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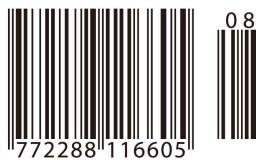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240245-000057-14



2023년 연구보고서

경제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2024. 4.



ISSN 2288-1166(Print)
ISSN 2733-4120(Online)



연구보고서 2023-17

경제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우한수 · 심수진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기업 경영, 개인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합리적 의사결정의 근간인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활용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통계는 정책결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통계청은 빅데이터의 활용,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등과 같은 통계생산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응답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국가통계의 중추를 담당하는 통계청의 싱크탱크로써 전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의 유일한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입니다. 2006년에 설립된 이래 기존의 조사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각종 기법과 관련된 통계방법론적 연구는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현상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집단 및 인구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및 인구동태 관련 방법론 연구를 밀도 깊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은 「2023년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연구보고서」에는 AI 통계분류 결과분석 및 실무활용성 제고방안 연구 등 데이터과학 연구, 202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등 조사표 개선 연구,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구통계, 격자통계를 활용한 도시화 현상 분석 등 인구통계 연구, 인구감소지역과 생활밀접업종 관계 분석 등 경제통계 연구, 비화률표본을 위한 통계적 추론 등 국가통계 방법론 연구, 위성영상 활용한 국토그린지표 개발 기초연구 등 SDG 지표 관련 연구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통계개발원이 전년에 국가통계 개선·개발을 위해 수행한 연구과제로서 국가통계 생산자의 통계개발 및 개선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통계개발원이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통계개발원은 본 연구보고서가 데이터 이용자의 통계 활용에 도움이 되고, 통계 작성자의 통계 개발 및 개선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가통계의 통계연구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용적이고 품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진에게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2024년 4월

통계개발원장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4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10
제1절 출산의 결정요인	10
제2절 출산력 관련 이론적 논의	13
제3절 차별 출산력 관련 경험적 연구	20
제3장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26
제1절 연구 모형	26
제2절 자료와 변수	27
제4장 기술 통계 분석 결과	31
제1절 코호트 분석	31
제2절 경제사회적 요인별 출산 격차	33
제5장 회귀분석 추정 결과	47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62
참고문헌	64
부 록	68
Abstract	89

요 약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시계열('03'~23년)을 이용하여 경제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추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5~44세 기혼 여성이 속한 유배우 가구의 비중 및 평균 자녀 수는 2015년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소득 분위별 자녀 수 분석 결과, 소득 4~5분위 상위 계층은 하위 1~3분위 계층보다 평균 자녀 수가 많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셋째, 회귀 분석 결과(2023년), 남성 소득은 자녀 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여성 소득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택 소유 여부는 소유의 경우가 미소유보다 자녀 수를 1.65배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여성 연령은 증가할수록 자녀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 출산과 여성의 소득이 부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육아휴직 관련 제도 정착 및 출산 여부에 관계없는 경력 지속이 한국에서 아직은 한계로 남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주택 소유와 관련하여 출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확인하였다. 결혼 초기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거주 공간의 확보는 자녀 출산을 돋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 유배우자 가구, 소득, 자녀 수, 주택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이라는 초저출산율(Lowest-low fertility rates) 사회로의 고착화 이의 해결을 위한 논의는 학문적·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한국의 출산율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결혼 기피로 인한 비혼의 증가를 지적하였으나, 최근의 출산율 감소는 유배우자 가구에서의 자녀 출산 감소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이철희, 2023).

한편, 많은 학자들은 결혼 관련 경제적 기반 획득의 어려움과 함께,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인해 이제 비혼 경향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를 일종의 상수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에 있어, 유배우자 가구의 출산율 변화가 예전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중심을 유배우자 가구의 출산 변화 분석 및 시사점 도출에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배우자 가구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과 소득, 주택소유 여부,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상태·교육정도 등 경제사회적 요인들과의 연관성(association)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 격차를 염밀한 의미에서의 합계출산율 등 출산율 변화가 아닌 유배우자 가구의 평균 자녀 수 변화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는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소득 등 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 파악에 특화된 반면 출산율 측정에 목적을 둔 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 변수 설명에 있어 대표성과 객관성 및 충분한 시계열을 확보한 국가승인통계이다. 출산이 유배우자 가구가 처한 경제사회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가구 중심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자녀 수와의 상관 관계 분석 또한 출산 관련 많은 시사점과 의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출산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출발 한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자녀의 출산을 국가, 사회가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지속 가능

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 출산은 여전히 국가 정책의 주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유배우자 가구의 자녀 수 변화의 방향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유배우자 가구의 무자녀 비율은 변화가 없고 두자녀 비율의 감소와 한 자녀 비율의 증가가 나타난다면, 자녀 출산이 여전히 가구에 있어 중요한 결정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출산을 가로막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장벽이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정부가 출산, 나아가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뒷받침하는 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과 관련된 개인의 선택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출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들이 출산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어떠한 속도로 출산력이 감소하고 있는지, 즉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출산 경향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차별 출산력 연구가 필요하다. 차별 출산력에 대한 연구는 인구학·사회학·경제학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적 접근은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Robinson, 1997). 출산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지만, 경제 수준은 출산과 양육에 있어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많은 나라들에서 출산 정책은 당사자들의 경제적 수준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많은 법령에서 저출산 지원 대책을 위한 지원 대상기준을 소득과 자산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 출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거지원, 보육 비용의 세금공제 및 보조금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기반을 두고 있다(민희철, 2008). 소득은 차별 출산력 연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연구 주제로 국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지역별·시기별로 다른데 특히 남성 임금·여성 임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시기별·출생아 순위별로 다르다(Sleebos, 2003).¹⁾

Addio와 Ercole(2005)의 OECD 국가에 대한 비교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가별·시기별로 달라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다. 저출산에 대한 국내 연구 또한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경제사회학적 요인의 분석에 주목한 반면, 소득·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소득과 출산율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와 관련해서, 김현식(2017)은 재정패널 1~7차 자료를 사용하여 거주형태, 금융소득, 가구소득 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다른 연구와 같이 소득 관련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소득 계층에 따른 엄밀한 분석이 중심이 아니어서 기존의 경제사회적 요인

1) 이는 정반대의 경제 상황이 출산력 감소라는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호황기의 노동시장과 더 많은 직업 기회는 더 많은 여성의 고용되게 함으로써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출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경제 상황이 나빠질 때 여성들은 미래의 재정 상황에 대해 확신 할 수 없게 되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학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어렵게 됨에 따라 출산율은 감소할 수 있다(Sleebos, 2003).

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진성(2022)은 소득계층별 출산을 분석에서 가구 소득을 3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출산과 관련된 여성 소득과 남성 소득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점, 자녀 수가 아닌 출산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한편, 최은영과 박영실(2010)의 기존 연구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자산조사를 활용하여 2003~2009년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에 따른 자녀 수 분석을 시도하였다는데에서 주목할 만하다. 분석 시 활용한 자료의 한계상 자녀의 출생 시점에 대한 별도의 정보가 없어 현재의 자녀 수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였지만, 소득수준과 출산율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정확한 소득 변수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가 진행된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인구구조의 변화와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시계열 이후인 2010~2023년까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의 저출산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과거와의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출산과 사회경제적인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출산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조사를 중심으로 출산력 조사나 패널조사를 주로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연구의 출발점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최은영과 박영실, 2010)의 시계열을 연장해서 과거와의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출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소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른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져가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은영과 박영실(2010)의 후속 연구로써 가구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계동향조사 시계열('03~'2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득과 출산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이유는 소득과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조사된 자료가 빈약하고 이에 대한 접근 가능성 또한 낮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관련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소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출산과 관련된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족과 출산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작성되는 소득 관련 변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소득의 정확한 포착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득과 관련 대표적인 조사이면서 전국조사 기준 2003년 시계열부터 활용 가능한 ‘가계동향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에는 여성의 출생아 수에 대한 변수는 없지만, 유배우자 가구의 현재 자녀 수를 출생아 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특징과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최은영과 박영실(2010)의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를 기반으로 하였

다. 기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03~'09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및 맞벌이 여부, 여성경제활동상태 등 주요 경제적 특성을 기준으로 유배우자 가구의 출산격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계열을 '03 ~'23년까지 확장하여, 20여년 간의 유배우 가구, 자녀 수 비중 변화를 비롯한 자녀 수와 관련한 변화 모습 및 가구 처분가능소득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출생 격차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의 횡단면적 연구 방법론에 더해 출산 코호트를 세 시기(74~78년생, 79~83년생, 84~88년생)로 구분하여 보다 입체적인 출산 격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해당 출생 코호트 분석은 2015년 이후의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와 관련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셋째, 연구 모형은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한 순위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출산은 선진국에 비해 유배우자 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가구의 소득은 여성의 육아휴직, 출산의 지연 등을 통해 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계봉오, 2022). 이러한 시각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경제활동상태, 학력, 자가 소유 여부, 거주 형태, 거주 지역 등의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남성과 여성의 소득)과 경제활동상태는 유배우 가구의 자녀 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둘째, 가구 및 가구구성원의 경제사회적 특성들(주택의 점유 형태 및 타지주택 소유 여부, 학력, 경제활동 여부, 거주 지역 등)은 유배우 가구의 자녀 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수와 출산 격차 연관성 분석 연구 결과는 출산과 관련한 기준 가구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신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경제사회적 요인과 출산 격차(유배우자 가구의 자녀 수)와의 연관성 분석 결과 도출과 더불어 가구 소득 등 경제사회적 변수와 출산 격차에 대한 20여 년간의 시계열 자료 통계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 목적으로 아울러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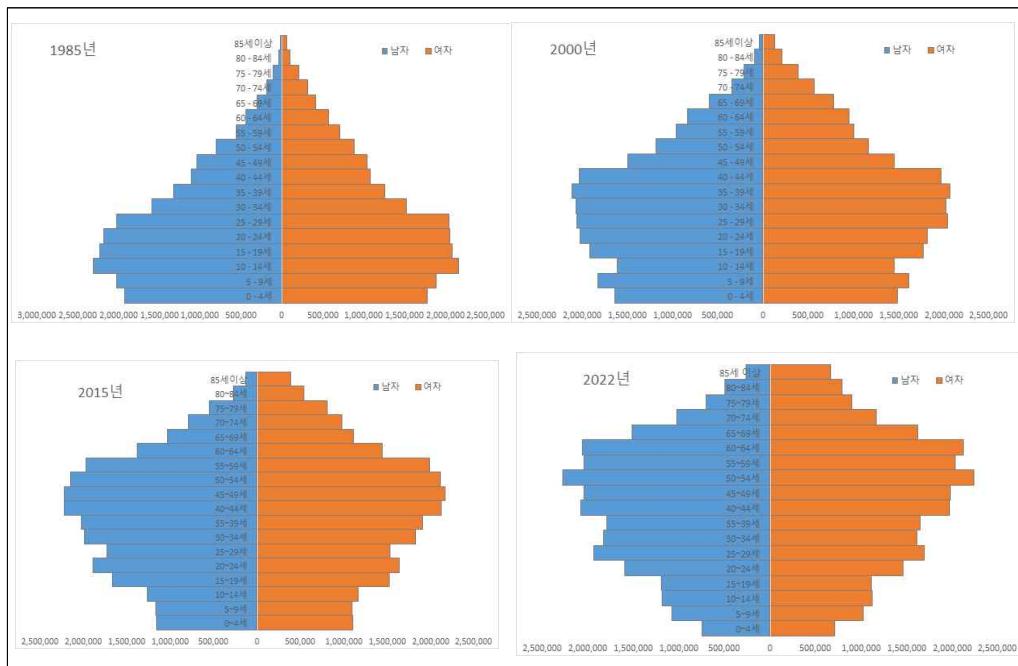
제2절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지난 반세기 동안 출산율 감소 경향이 지속된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개념적으로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960년대 6.0명 수준에서 1983년에는 인구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가정적인 상태에서 한 세대 후면 인구가 반으로 줄게 되는 1.08명을 기록하였다(권태환, 2008).

저출산 현상은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이미 관찰되기 시작한 오래된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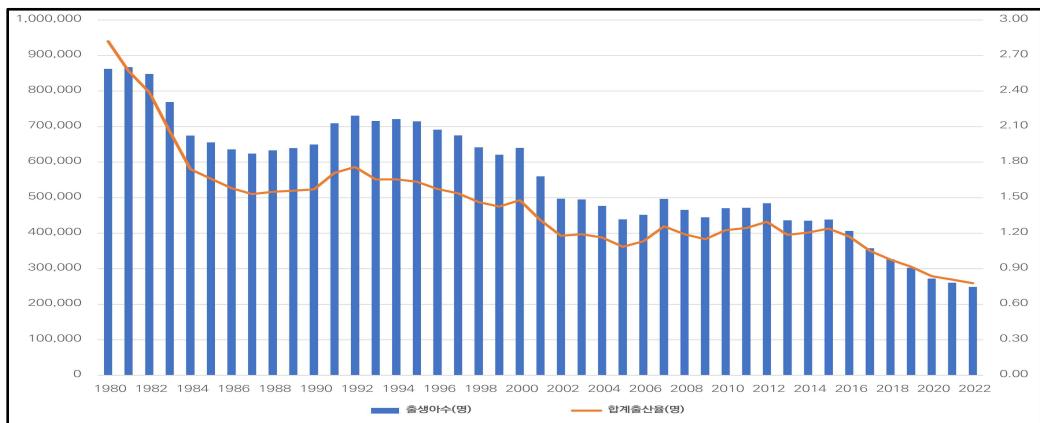
이다. 우리나라의 연령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85년과 2000년, 2015년, 2022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1-1>).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지난 35년 동안 인구 피라미드의 유형이 상당히 변모되어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율 감소에 의해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0년부터 인구 피라미드는 항아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고, 2020~2021년에는 외국인까지 합친 총인구의 절대 감소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이러한 인구 현상의 핵심 원인이다.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9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5년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1-1>, <그림 1-2>). 모의 평균연령 또한 2000년 29.03세에서 2020년 33.13세로 꾸준히 상승했다(<표 1-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1-1 >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1985~2022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1-2> 한국의 합계출산율·출생아 수 변화(1980~2022)

<표 1-1> 1980년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출생아 수·인구자연증가

(단위 : 명)

항목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2
합계출산율	2.82	1.66	1.57	1.63	1.48	1.09	1.23	1.24	0.84	0.78
출생아 수	862,835	655,489	649,738	715,020	640,089	438,707	470,171	438,420	272,337	249,186
자연증가	585,551	415,071	408,122	472,182	391,349	192,833	214,766	162,525	-32,611	-123,75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1-2> 모의 평균 출산연령(2000~2022)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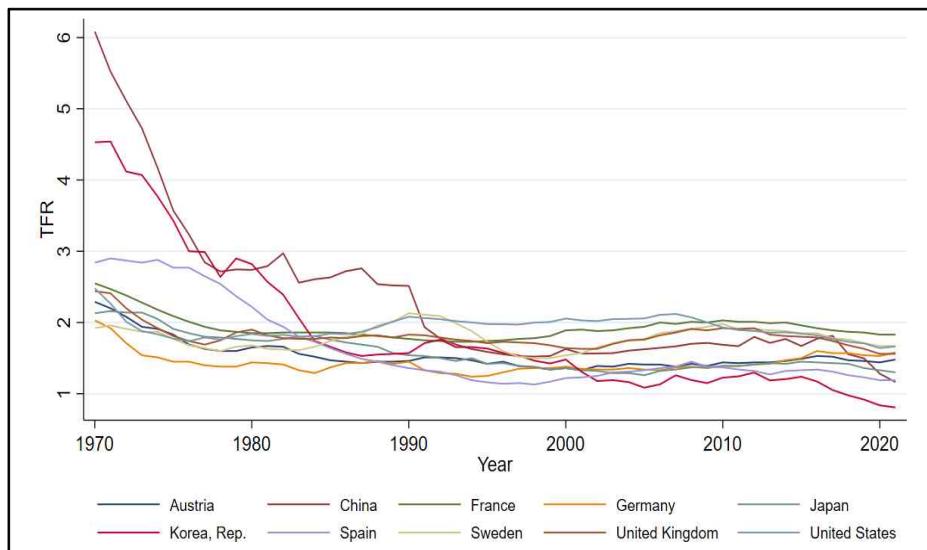
항목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모의 평균 출산 연령	29.03	29.50	29.99	30.44	30.79	31.26	31.62	32.04	32.40	32.80	33.13	33.5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해방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 속에서 1960~80년대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였다가 출산율이 급감하며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었다. 21세기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데이비드 콜만(David Coleman)이 이미 2006년에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일찍 소멸할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경제성장,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의 변화가 가족구성 및 가족 계획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양극화, 높은 주거비 역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이후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대응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사회 및 학계의 꾸준한 지적으로 기본계획의 방향성은 점차 ‘저출산’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점차 일·가정 양립, 출산·양육 부담 경감, 청년의 일자리 및 주거 대책, 맞춤형 돌봄정책 등으로 변화하여 왔다(김영미, 2018). 1980년대 이후 주요 고소득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는 대체로 공통적이지만, 2015년 이후 한국의 경향은 그 중에서도 현저하여 세계적으로 ‘초저출산(ultra-low fertility)’이라는 현상으로 해석된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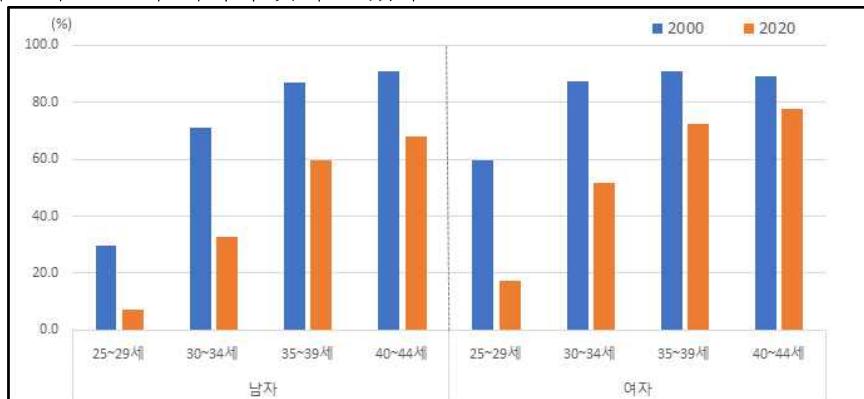
자료 : The World Bank, Gender Data Portal, “Fertility Rate”을 시각화함.

<그림 1-3> 세계 국가들의 출산율 변화(1970~2022)

출산율 감소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겠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임여성의 감소와 함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도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임연령대인 25~44세의 유배우 비율의 변화와 25~44세 평균 자녀 수와 출생자녀수별 비율을 살펴보았다.

유배우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4>). 여성의 25~29세 유배우 비율은 2000년 59.6%에서 2020년 17.3%로 42.3%p 감소하였으며, 30~34세는 2020년 51.8%로 같은 기간 35.3%p 감소하였다. 남성의 30~34세 유배우 비율은 2020년 32.9%로 2000년에 비해 38.3%p 감소하였다. 40~44세의 유배우 비율은 2000년 남성(90.9%)과 여성(89.1%) 모두 90%에 가까웠으나, 2020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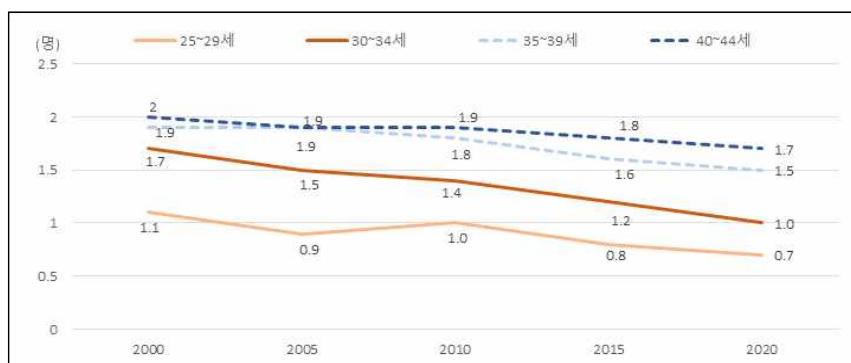
는 남녀 모두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그림 1-4> 연령별 유배우 비율(2000,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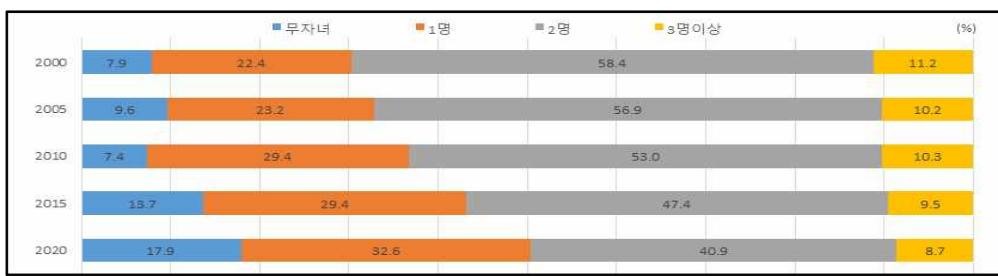
25~44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연령 대별로 감소폭에서 차이를 보인다. 출산이 거의 완료된 시점이라 볼 수 있는 40~44세 기혼여성의 경우 2000년 2.0명에서 2020년 1.7명으로 감소폭이 적은 반면, 주 출산연령 대인 30~34세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1.7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하여 출산 감소와 함께 출산연령도 늦춰졌음을 보여준다(<그림 1-5>).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그림 1-5> 25~44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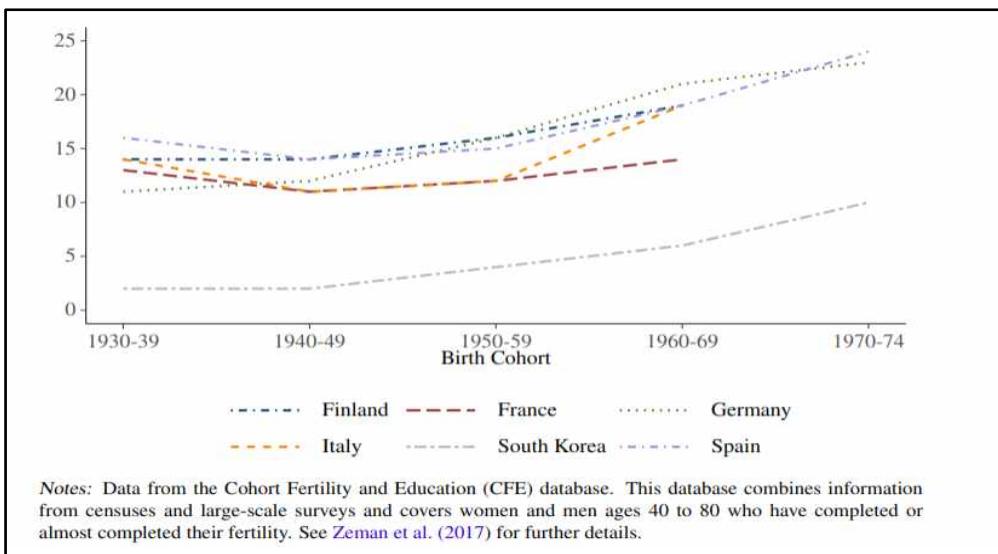
25~44세 기혼여성의 출생자녀수별 비율을 보면(<그림 1-6>), 무자녀 비율은 2000년 7.9%에서 2020년 17.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자녀수별 비율을 보면 한자녀는 2000년 22.4%에서 2020년 32.6%로 10%p 가까이 증가하였고, 두자녀 비율은 같은 기간 58.4%에서 40.9%로 17%p 가량 감소하였다. 반면 세자녀 이상인 비율은 11.2%에서 8.7%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그림 1-6> 25~44세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별 비율(2000-2020)

이러한 무자녀 비율을 코호트로 비교해 본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은 과거 다른 나라에 비해 코호트의 무자녀 비율이 낮았으나, 최근의 코호트로 올수록 그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그림 1-7>).



<그림 1-7> 코호트별 무자녀 비율의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이미 2000년부터 항아리형으로 변화하였고, 합계출산율도 1.5명 미만으로 낮아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25~44세의 유배우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출산의 기본 가정이라 할 수 있는 혼인 자체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혼인을 하였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무자녀의 비율은 2010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지 각 집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 2 장

선행 연구 고찰²⁾

제1절 출산의 결정요인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북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회복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떠한 인구학자에 의해서도 예견된 바 없는 현상이다(Chesnais, 1996). 이와 같은 현상을 MacDonald(2000)는 남성 부양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에서 성 평등 모델(gender equity model)로의 전환에 있어서의 개별 국가의 적응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선진사회에서는 여성에게 독립된 개인으로서 상당한 자유와 평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들이 아이를 갖는 순간 이러한 성취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노동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약할 때 더욱 그러하다(MacDonald, 2008). 하지만, 북부 유럽과 영어권 국가와 같이 사회적 제도가 보다 빨리 성 평등 모델에 적응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반면 가부장적인 남성 부양 모델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고용이 보육 시설·노인 부양 시설 등 사회적 제도의 부족에 의해 제한될 때,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울 때 출산율은 극단적인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MacDonald, 2000). 현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분업적 성역할 규범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국가들이다(Chesnais, 1996; MacDonald, 2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분업적 성역할 규범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 출산을 최대한 미루며, 또한 자녀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한국·일본·이탈리아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로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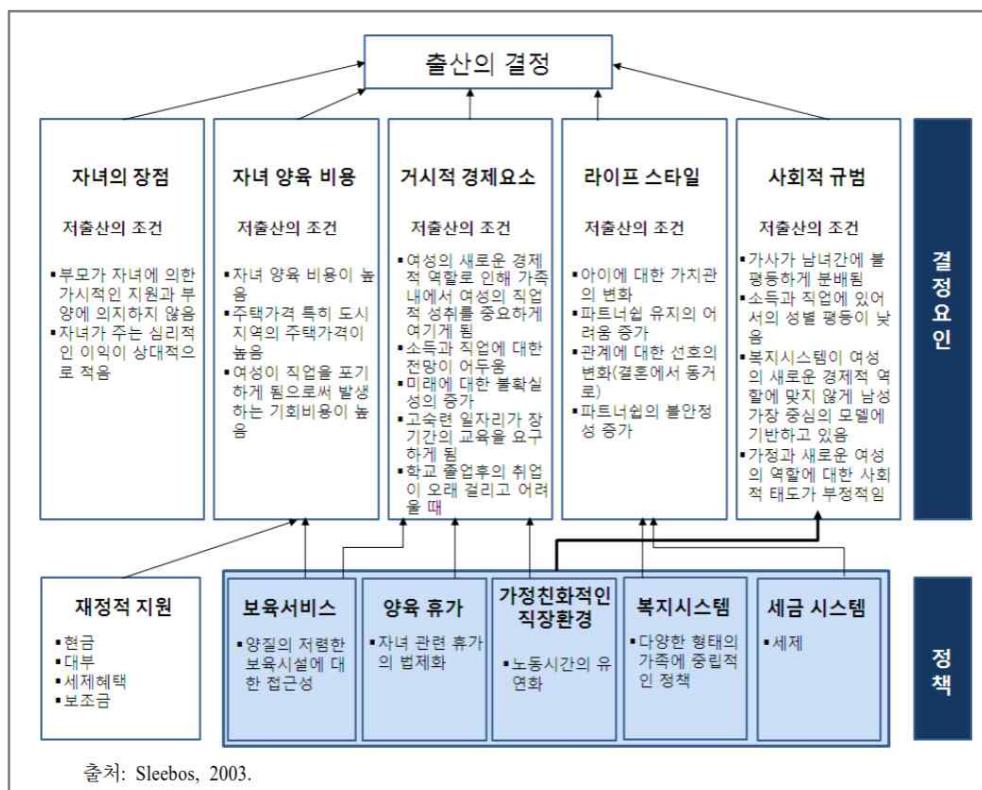
출산력(fertility)은 실제의 출생아 수에 기초한 현실적인 출산 수준을 의미하는데, 출산력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하위 인구 집단(subpopulation group)별로 다르며, 지역별로도 다르다. 인구학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기준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를 ‘차별 출

2) 본 장은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의 원고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함

'산력'으로 개념화하고 있다(최은영과 박영실, 2009).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소득과 출산율 사이의 연관성은 중요한 연구 분야다.

가족을 포함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출산 및 가족구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다변화 및 정밀화되어 왔다. 산업화·도시화와 전통적 가족 구조의 해체, 여성의 경제활동과 결혼·출산의 지연, 생활비 및 주거비 상승으로 자녀 양육 부담 상승, 생활양식 및 문화적 담론이 가족구조와 가족 계획에 대한 개념을 재편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유삼현 외, 2020).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계획 사이의 갈등, 소위 '경력단절' 문제 역시 한국사회의 오랜 이슈로 자리 잡았다. 학계에서는 자녀 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간의 쌍방향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의 확대와 관련 영향요인 분석도 주요 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녀로 인해 생기는 좋은 점, 자녀 양육 비용, 거시적인 경제 요소, 생활양식의 변화, 사회적 규범, 정부 정책 등은 개인의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2-1> 출산의 결정요인과 정책

이 중 출산율 저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이다(강은진, 1995). 최근 OECD 국가들에서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는 부적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정적인 관계로 바뀌었다(Ahn and Mira, 2002; Sleebos, 2003). 노동 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도 높은데, 스웨덴·노르웨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윤소영, 2005). 우리나라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를 기혼 여성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결혼과 가족 가치관에서도 독립적이어서 개인적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신인철, 2009에서 재인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교육수준과 출산력이 부적인 관계로 OECD 국가군의 1980년대 이전 상황과 유사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또한 출산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이시원 외, 2006; 김우영, 2007; 김정호, 2009).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출산율을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면, 교육수준이 낮은 아프리카의 출산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선진 산업 사회의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상식 수준의 분석 결과에 기반해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움이 되는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을 예로 들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고연령층 여성의 출산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저연령층 여성의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두 변수가 부적인 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령과 밀접한 상관을 갖는 교육수준별 차별 출산력 분석에서 연령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연령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크지만 지금까지 이를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요약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MacDonald(2000)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1950년대의 남성 부양 모델로 즉 여성의 교육과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다른 하나는 고용과 자녀를 갖는 것이 양립될 수 있도록 성 평등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노동 시장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950년대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선진 산업 국가에서 불가능하며, 모든 사회 제도에서 성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유일한 실현 가능한 선택이다(MacDonald, 2000). 선진 산업 사회에서는 여성의 높은 지위와 이러한 지위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정책이 다음 세대의 대체를 위해 출산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다(Chesnais, 1996). 실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제도의 발달이 미흡하여 여성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Brewster and Rindfuss, 2000; 박수미, 2005; 장지연, 2005; MacDonald, 2008).

제2절 출산력 관련 이론적 논의

출산력과 사회경제적 특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베커의 경제학적 이론을 기초로 한다(Becker, 1960). 이는 출산과 가족 계획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전적 이론 중 하나다. 이전까지의 사회학적·심리학적 접근법은 대규모 조사 자료를 다루거나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와 차별화되는 경제학적 접근법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Robinson, 1997).

초기 경제학적 접근법은 주로 소득과 자녀 수 혹은 가족 규모 간의 정적인 관계를 가정했다. 자녀를 일종의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소득 효과(income effect)가 작동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출산과 소득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면서 다양한 모델이 발전되었다. 대표적으로 베커를 중심으로 하는 시카고 모델(Chicago Model), 이스털린 모델(Easterlin's model), 라이벤스타인 모델(Libenstein's model)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1980년대를 넘어서며 산업화된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제2차 인구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과 같은 새로운 이론적 경향도 출현하였다(Lesthaeghe and Surkyn, 1988; McDonald, 2006).

1. 시카고 모델

베커는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를 소비재(consumption good) 혹은 생산재(production good)로 이해하고, 자녀가 주는 만족·효용과 출산·양육에 소모되는 비용을 통해 가족의 최적 출산을 결정하는 모형을 상정하였다(Becker, 1960). 이 모형에서 가족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비 목적을 달성하려 노력하며, 부모는 다른 소비와 자녀에게서 기대되는 효용을 비교하여 출산을 결정한다(Fulop, 1977). 이러한 접근법에서 출산

행위는 합리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며, 부모는 소비자 수요 이론(consumer demand theory)에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자원과 자녀 출산 시 초래되는 비용 및 효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수를 결정한다(Hotz et al., 1996).

베커는 또한 소득 증가가 출산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준 접근법에 대해 질-양 교환 모델(quality-quantity tradeoff model)로 대응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고소득 부모가 양질의 자녀 양육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소득 상승에 따라 출산이 감소한다는 모형을 제시하였다(Becker and Lewis, 1973). 특히 산업화된 사회에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가족을 이루는데 소용되는 비용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Becker(1993)는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과 인적 자본에 대한 강조가 증가함으로써 출산율이 하락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소득의 증가가 자녀의 수(양)와 질 둘 다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양적 탄력성은 자녀의 질과 비교할 때 작은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베커는 이후에도 합리적 선택이론을 가족 행동에 적용하여,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 시간의 배분, 그리고 여성 및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진다고 보았다(Becker, 1993).

경제학적 관점은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 모델에서는 출산과 양육은 부모, 특히 모의 시간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고소득(혹은 고임금)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더 높은 기회비용을 초래하므로, 출산과 여성의 소득이 음의 상관관계가 상정된다(Mincer, 1963; Kravdal, 1992). 이러한 기회비용에 대한 논의는 여성이 출산의 최적 시점(optimal timing)을 결정하는 모형으로도 발전하였다(Happel et al., 1984)

라이벤스태인은 출산 행동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은 견지하지만, 사회변화와 가족의 지위를 고려한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부모의 소득이나 지위에 의해 자녀 출산에 대한 효용 및 비용함수가 변화하는 모형을 상정하고,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한 장기 출산율 패턴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Libenstein, 1975).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대나 가치관의 변화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출산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2. 이스털린 학파

이스털린(Easterlin)은 가장 인기 있는 출산 이론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시카고 모델에서 출산과 소득 간의 부적인 관계에 대해 여성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인 가격효과(price effect)로 설명한 것과 달리, 이스털린은 상대적인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상대적 소득 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과 출산 조절에 대한 한계 가설(threshold of fertility regulation hypothesis)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출산율이 일정한 주기를 따르며, 대규모 출산 코호트가 소규모 출산 코호트를 생산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는 두 가지 보완적인 요소가 있는데, 즉, 청년의 상대적 수(상대적 코호트 규모)의 효과와 임금 및 실업률(상대 소득)의 효과이다. 임금 및 실업률은 인구 규모에 영향을 받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따라서 대규모 집단에 속한 개인은 부모에 비해 생활 수준이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상대적 위치와 물질적 열망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출산율 감소와 같은 가족 생활을 조정하려고 한다. 따라서 대규모 코호트 다음 코호트는 규모가 작아진다(Doliger, 2004).

Easterlin(1978)의 상대적 소득 가설은 2차 대전 후 미국 내 베이비붐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로, 청년의 물질적 열망 대비 상대적인 소득 개념에 주목하였다. 그는 젊은 성인들의 선호형성(preference form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세대, 경제적 발전, 부모의 생활수준 경험 등에 따라 변화한다(Easterlin, 1966; Macunovich, 2006). 그에 의하면 현재의 청년들은 몇 년 전까지 그들 부모 가구에 의존적인 가구 구성원이었고, 따라서 그들 부모의 가정 내에서 경험된 소비 수준이 그들의 물질적인 상품에 대한 현재의 선호를 형성한다. 그는 청년들이 갈망하는 소비 수준은 10년 전 그들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응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스털린은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세대가 30대였을 때의 소득과 전후 청년들의 소득을 비교하면서 전후 젊은 커플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가 30대였을 때보다 자신들이 소비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상황에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베이비붐을 이끌었다. 청년의 실제적인 열망에 대한 상대적인 소득 개념에 주목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청년들이 느낀 심각한 경제적 제약은 이후의 출산율 하락으로 설명된다(Fulop,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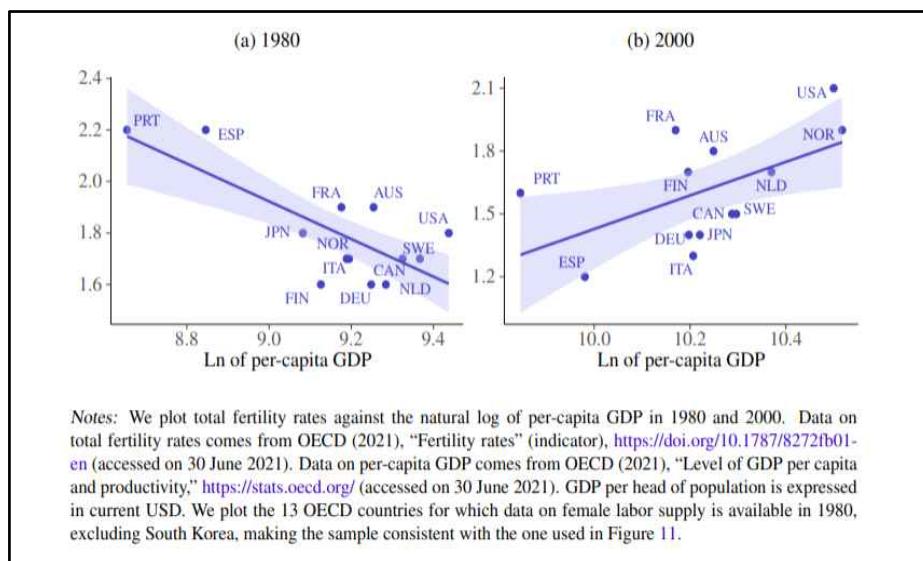
출산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는 점차 출산과 가족 계획을 둘러싼 폭넓은 현상들로 관심이 확대되었는데, 근대화와 기술발전, 교육 기회의 팽창, 자녀 돌봄 등이 그 주요 대상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경제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을 결합하여, 교육 기회 팽창에 따른 여성의 시간 가치 상승 및 자녀의 상대적 가치 하락, 기술발전과 자녀 양육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 등을 강조했다(Robinson, 1997).

3. 제2차 인구변천 이론

한편, 1980년대를 넘어서며 산업화된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연구 경향을 출현시켰다. 산업국가에서 인구가 대체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수렴적 경향을 관찰한 연구자들은 이를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이라는 개념으로 명명하고, 앞서 제시된 사회경제적 관점에 더하

여 가족 형성 및 인구재생산에 관한 문화적이고 제도적 요인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esthaeghe and Surkyn, 1988; Van de Kaa, 1987; McDonald, 2006). 이들은 인간에게 있어 출산의 결정은 희소자원의 배분과 같은 경제적 동인뿐 아니라 가족 형성 패턴에 관해 공유되는 문화적 관념이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1960년대 이후 선진산업 국가에서의 출산력 감소를 최근 코호트에서의 가족의 구성 및 해체에 관한 문화적 변화로 설명하였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구 국가뿐 아니라 다른 산업화된 국가에서도 대체출산율 이하로 출산력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점차 동아시아의 일본과 한국, 나아가 중국에까지 적용되어 왔다(Raymo et al. 2015; 이병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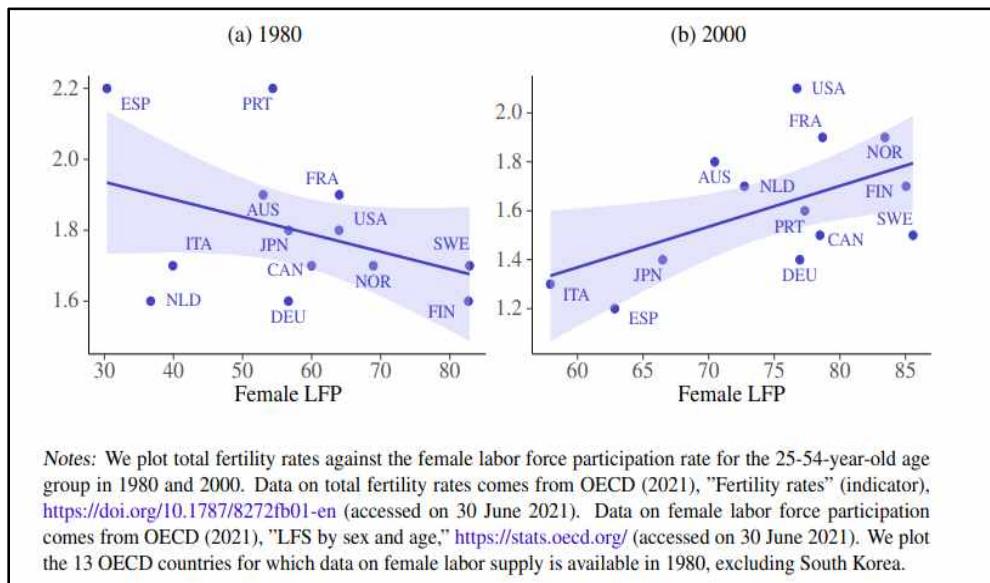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은 코호트의 진행에 따라 과거 혼인 중심의 가족에 관한 관념이 허물어지고, 혼인 이외의 다양한 생활방식(living arrangements)이 확대되는 것을 중요하게 짚어낸다(Lesthaeghe, 2010). 최근 연구에서는 이로 인해 주요 고소득 국가에서의 출산 결정이 수십 년 전과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도 한다. 이는 출산 행위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뿐 아니라,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의 변화에서도 관찰된다. 과거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졌던 여러 변수의 효과가 최근의 통계들에서는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있으며, 반대로, 새로이 등장한 경험적 경향은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으로는 해석하기 힘들다. <그림 2-2>를 보면 최근 수십 년간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소득과 출산 간의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난다(Doepke et al.,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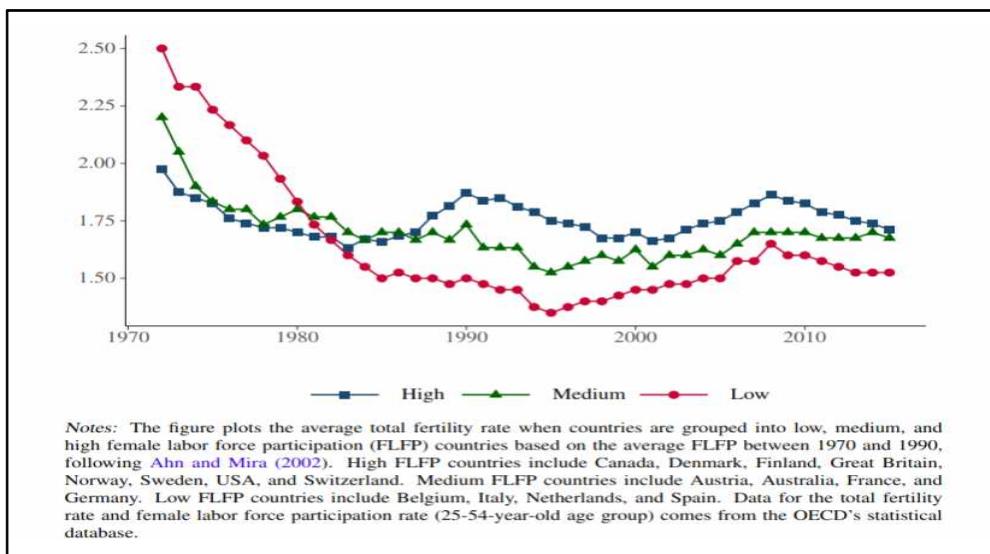
<그림 2-2> OECD 주요국의 출산율과 1인당 GDP

과거 시카고 학파나 이스털린 모델에서 상정한 질-양 교환 모델, 여성의 시간 기회비용에 관한 이론은 더 이상 고소득 국가들 사이에서 출산을 결정하는 주된 변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과거 출산을 다룬 경제학적 연구들에서는 소득 수준과 출산 간의 음

의 상관관계가 국가 간·국가 내 양쪽에서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국가 간 비교에서는 유효하지만, 더 이상 고소득 국가 간/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고소득 국가들 사이에서 소득과 출산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는 거의 사라졌으며, 오히려 2000년대 이후 고소득 국가 간 비교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더 높은 현상도 나타난다. <그림 2-3>과 <그림 2-4>에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간의 관계도 유사한데, 1980년대 이후 주요 고소득 국가들을 비교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낮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낮은 현상이 확인된다(Doepke et al., 2022).



<그림 2-3>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그림 2-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정도별 합계출산을 변화

20세기 후반 이후 고소득 국가들 사이에서 가족 외 자녀돌봄을 보조할 수 있는 사적·공적 수단이 증가하면서, 소득과 출산, 여성노동과 출산의 교환관계는 점점 더 약화되어 왔다. 과거 교환 관계 모형에서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 가족 내 사적 지출이라고 상정되었다. 그러나 점점 많은 국가의 교육에 관한 사회적 지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공교육이 거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며, 공교육의 범위 역시 거의 대학 입학 이전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자녀돌봄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childcare) 역시 소득과 출산 간의 관계를 바꾸어 놓고 있다. 더 이상 자녀의 돌봄은 가구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제는 돌봄을 시장 혹은 공공에 외주화(outsourcing)함으로써 여성의 양육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여, 기회비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교육을 받은, 직장이 있는, 소득이 높은 어머니·여성 혹은 가구에서 돌봄을 구매하는 일은 과거의 기회비용 관점을 혼들어 놓는다(Hazan and Zoabi, 2015). 오히려 더 중요해진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운데 출산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여성의 첫 출산연령의 지연은 대다수의 고소득 국가에서 확인된다(<표 2-1>).

<표 2-1> 각국 여성의 평균 첫 출산 연령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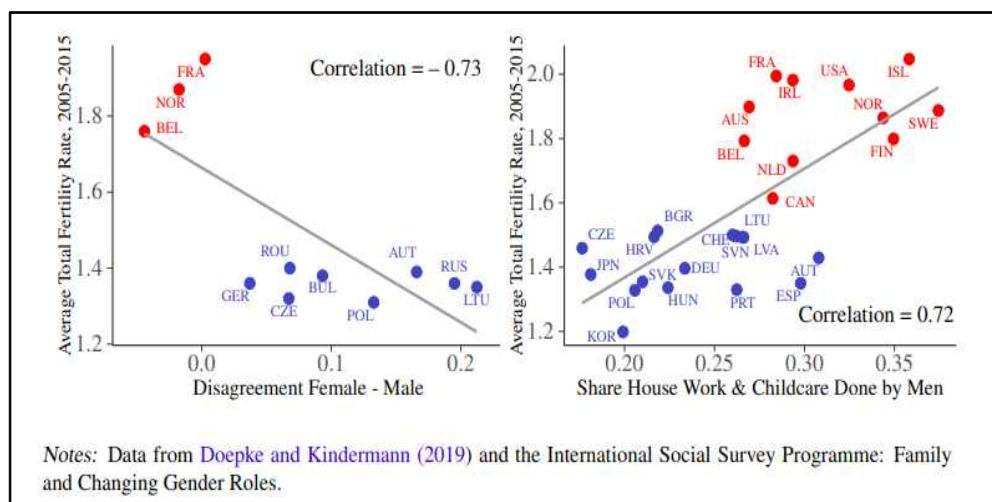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한국	-	-	-	26.5	27.7	29.1	30.1	31.2	32.3
미국	22.7	23.7	24.2	24.5	24.9	25.2	25.4	26.4	27.1
이탈리아	25.1	25.9	26.9	28.1	-	-	-	30.8	31.4
스웨덴	-	-	26.3	-	27.9	28.7	28.9	29.2	29.7
일본	26.4	26.7	27.0	27.5	28.0	29.1	29.9	30.7	30.7
덴마크	24.6	25.6	26.4	27.4	27.8	28.4	..	29.2	29.8
노르웨이	-	-	-	26.4	26.9	27.7	28.0	28.9	29.8
스페인	-	25.8	26.8	28.4	29.1	29.4	29.8	30.7	31.2
영국	24.7	25.1	25.5	26.1	26.5	27.2	27.7	28.6	29.1
캐나다	24.9	25.5	25.9	26.3	27.1	28.0	28.4	29.2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출산 통제와 불임 시술 역시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1960년대 이후 피임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출산 통제에 관한 지식은 그 이후 고소득 국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보급되었다. 피임기술은 과거에 교육 수준과 출산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피임기술에 대한 지식은 이미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팽창하였다. 이미 미국에서는 학력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임신 건수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

는다(Buckles, Guldi, and Schmidt 2019).

여성의 일과 가정을 병행하게 하는 기업, 정부의 정책들은 소득과 출산의 관계를 바꾸는 또 하나의 변수다. 고소득 국가들에서 공공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 정책들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자녀돌봄에 관한 공적·사적 지원들은 여성의 출산 전후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그림 2-5>). 이제 여성의 일과 출산을 두고 가족 안팎에서 협상(bargaining)하는 모형이 더 일반적이며, 여기에는 부부의 소득이나 의사결정을 둘러싼 광범위한 요인들이 작동한다(Doepke and Kindermann, 2019; Goldin, 2021).



<그림 2-5> 남성의 가사분담 및 남녀 간 의사결정별 합계출산율 차이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매우 낮지만 이미 서구 국가에서는 비혼인 관계에서의 출산 및 양육 모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 기반의 가족 관계 내 경제적 상황만으로 출산에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혼인 외 출생 비율은 이미 40%를 넘어섰다. 또한 혼인 이외에 동거, 동성결합, 한부모 등의 여러 가족구성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표 2-2>).

<표 2-2> 세계 국가들의 혼인 외 출생의 비율(2020)

OECD 평균	(단위 : %)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영국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헝가리	한국	일본
41.9	62.2	55.2	54.2	49.0	47.6	40.5	33.8	33.1	32.7	30.4	2.5	2.4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제3절 차별 출산력 관련 경험적 연구

소득과 출산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둘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도 부적(-) 관계에서부터 정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가 존재한다. 국가단위로 소득과 출산의 관계는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여성 임금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며(Heckman and Walker, 1990; Blacklow, 2006), 남성 소득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임금이 출산력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를 밝히는데 실패하거나(Zhang, Quan and Meerbergen, 1994) 혹은 설령 유의미한 효과를 밝혀내더라도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Del Boca, 2002). 그 결과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또는 국가별로 달라진다. 예를 들면, Ronsen(2004)은 첫째아와 둘째아 확률에 대한 여성 임금의 부적인 효과를 발견하였으나 셋째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Heckman과 Walker(1990)는 스웨덴의 출산력에 대해서는 여성 임금의 부적인 효과를 발견하였으나,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여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Tasiran(1996)은 여성 임금의 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좀 더 최근의 연구들은 젊은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에 대한 여성의 임금 효과에 대해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여성 임금은 소득 측면에서는 정적인 효과를,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부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둘 다를 발휘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정적인 소득 효과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자녀 양육에 있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며, 남성의 가사분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여성 임금의 증가가 가정 내 여성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구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 임금의 증가는 그들의 모성(motherhood)과 경력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여성의 임금은 자녀에 대해서 강한 소득 효과와 약한 가격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Macunovich, 2006).

196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경향하에서, 차별 출산력, 곧 ‘누가’ 출산을 더 적게 혹은 많이 하는가는 연구 관심의 꾸준한 대상이었다. 마이크로데이터에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점차 확대되고, 이들은 앞선 이론적 쟁점들을 검토했다. 북미나 유럽 등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여성의 임금과 출산을 분석하고, 이스털린의 시간 가격 및 상대적 소득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Ermisch, 1989; Heckman and Walker, 1990; Macunovich, 1996; 1998).

여성의 노동 상태 이외에도 자녀 양육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부모의 교육 수준,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상황, 자녀 양육을 보조하는 제도적 수단 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계량적으로 검토되었다(Blau and Robins, 1989; Gauthier and Hatzius, 1997; Rindfuss et

al., 1996). 일부 연구는 여성 노동으로 인한 출산의 대체보다 출산의 ‘지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지연된 출산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었다(Kohler et al. 2002).

특히 여성이 경력(career)을 쌓는 과정에서 일과 가정 사이에서의 갈등은 출산의 계획·지연·실현과 관련된 복잡한 결과를 자아냈는데, 이로 인해 교육이나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Blair-Loy, 2009; Goldin, 2021).³⁾ 여성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출산이나 자녀 수 등이 다시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복잡한 연쇄(sequence)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출산력 지표를 종속변수로 삼기보다 노동, 가족구성(결혼·이혼·출산), 양육 등 생애과정 전반에서 출생 사건 발생의 시점(timing)이나 속도, 혹은 연쇄(series)를 파악하는 연구 경향이 한편에서 확대되어 왔다(Abbott, 1995; Balbo et al. 2013; Elder, 1994; Felmee, 1993). 그리고 제2차 인구변천에서 강조하는 서구사회 의 또 하나의 경향, 즉 혼인 이외의 가족구성의 다양화는 출산에 관한 기존 이론 및 방법론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경로 모형으로 고안하고 있다(Fomby and Osborne, 2017; Smock and Schwartz, 2020).

국내의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은 주로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Kim, 1983; 공선영, 2006; 민희철, 2008; 김사현, 2009; 신혜원 등, 2009). 소득별 차별 출산력 연구는 그동안 단절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세계출산력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1974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효과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체계적인 분석 결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김두섭, 2007). 그에 의하면 출산 관련 분석의 주 자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소득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소득과 출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경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관계가 분석자료에 따라 상이하다. 관련 연구의 경우 소득과 자산에 대한 대리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희철(2008)은 소득과 임금을 교육수준을 통해 추정하였다. 신혜원 등(2009)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소득에 대한 대리 변수로, 한국감정평가원의 공동주택 공시지가 지역별 자료에 기반한 거주 지역의 공시지가 평균을 가구의 자산에 대한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민희철(2008)은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임금과 배우자 소득수준이 결혼 후 첫 번째 및 두 번째 출산 간격에 미치는 효과를 1998년 이후 결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여성 임금의 증가가 첫째아 출산은 지연시키는 반면 배우자 소득이 출산을 앞당기는 효

3)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은 그의 저서 ‘커리어 그리고 가정(2021)’에서, 20세기 미국의 각 코호트별 여성들의 교육 및 직업 선택 기회 확대 속에서 임금 격차와 가족 계획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그려낸 바 있다.

과는 첫째아 출산의 경우 나타나지 않았고 두 번째 출산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의하면 여성의 임금은 자녀 출산에 있어서 기회비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혜원 등(2009)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5%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 명의 자녀 출산을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 이상의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의 높은 연령, 자녀의 기회비용, 그리고 여성경제활동은 추가자녀를 계획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 기혼여성 및 남성의 높은 교육수준 그리고 가계의 높은 경제수준 등은 추가 자녀를 계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과 함께 여성의 취업에 주목한 국내의 연구들도 있는데,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분석한 공선영(2006)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혼전 취업경험, 취업여성의 월평균 소득, 종사상 지위가 통계적으로 희망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출산과 부적으로, 무급가족종사자나 임시고용, 일용고용보다는 상용고용과 고용주인 경우가 희망자녀수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취업여성의 경우 남편의 취업상황보다는 여성의 취업상황이 희망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의하면 자녀출산의 주요 결정요인은 향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가구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가름하게 하는 종사상 지위의 안정성이었다(공선영, 2006). 한편, 최근에는 다양한 조사 자료가 축적되면서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차별 출산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까지 한국에서의 출산력 관련 연구는 대체로 합계출산율 등 출산지표를 다른 거시요인과 연계해 탐색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이들은 대체로 1980~90년대 한국의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요인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경제발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결혼연령의 상승, 괴임기술의 확대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김한곤, 1993; 은기수 1997). 김승권 외(2022)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현 ‘가족과출산조사’, 이하 전국출산력조사)를 분석자료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은기수(2001)는 1997년 전국출산력조사를 분석하여 결혼연령 및 첫 출산연령의 상승이 여성의 출산 위험(risk)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시기까지의 연구는 아직 개인 혹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효과는 주된 검증 대상은 아니었으며, 다만 이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에 비해 출산력이 낮다는 점만 확인되었다.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며 80~90년대에 변화한 출산 패턴 및 이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전되었다. 여기서도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코호트에서의 초혼 연령 상승이 출산결정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그 이외의 소득이나 교육 수준과 같은 변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김태현 외(2006)는 1980~2000년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기혼여성의 차별 출산력을 분석하였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생아 수가 많았고, 고졸 이상에 비해 중졸 이하에서 출생아 수가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인구총조사라는 대규모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여가 커었으나 자료 특성상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정보는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김두섭(2007)은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를 이용해 IMF 전후 출산력의 변화 추세와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인 경향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그룹과 아주 높은 그룹에서 출산 수준이 높은 V자형 현상이 관찰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존의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저소득층과 대도시의 고소득층)에서 급속히 감소하였다고 분석했다. 출산 사건이 아닌 출산 의향을 대리변수로 삼아 분석한 연구들 역시 늘어났는데, 이 경우 소득이 높거나 보육·교육비 부담이 낮을 경우에 더 많은 의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숙, 2005; 김정석, 2007; 신윤정, 2008).

2010년대 전후의 출산 연구는 경제활동을 여성의 출산 결정에 핵심 변인으로 제시하고,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을 점차 다양화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연구부터는 한국노동패널(KLIPS), 한국여성가족패널(KLoWF), 한국복지패널(KOWEPS) 등의 패널자료가 분석에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 정교하게 고안되었다. 대체로 결혼 후 경제활동 기간이 길거나 결혼 전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출산할 위험(혹은 확률)이 낮았으나, 만약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안정적인 고용형태에서 비교적 출산 위험이 높았다(김사현, 2009; 류기철·박영화, 2009; 이삼식·최효진, 2014). 교육수준이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변수의 조작화나 타 변수와의 관계에 따라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였다(김현숙, 2007; 김현식, 2017).

일부 연구에서는 출산 결정의 과정이 출생순위별로 다르다는 점에 유념하였다. 이 경우 특히 둘째 자녀의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 혹은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되었다(김정석, 2007). 민현주와 김은지(2011)는 노동패널 1998~2008년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출생코호트를 1950년대생, 1960년대생, 1970~1984년생으로 나누고, 취업 여부에 대한 상호작용모형을 통해 출생코호트-출생순위-취업 여부의 결합효과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취업 여부가 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음(-)의 방향이지만, 특히 최근 코호트에서 취업 여성의 둘째 출산이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이삼식과 최효진(2014)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 여부가 출산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확연하게 나타났지만,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에 미치는 취업 및 고용지위의 영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들은 앞서 서구학계에서의 문제의식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생애주기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

다. 생애과정(life course)을 고려한 출산 결정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는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 모형은 이미 이전부터 활용되었으나, 단순 기술적 활용을 넘어 생애 과정을 핵심 문제로 삼아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는 자녀 출산과 여성 경제활동이 쌍방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감안하여, 두 변수 간의 일방향적인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둘을 종합적으로 유형화하는 방식의 연구가 증가하였다(계봉오와 김영미, 2014; 민현주, 2012; 이순미, 2014; 김이선과 박경숙, 2019).

민현주(2012)는 한국노동패널 1998~2008년 조사자료를 활용해 기혼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을 결합하여 유형화했다. 1965~1979년 출생코호트 여성들의 첫째 출산 전후 노동시장 참여 유형을 지속이탈형, 지속참여형, 출산이탈형, 출산후 진입형, 후기이탈형의 5가지로 유형화했는데,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지속이탈형보다 후기이탈형, 지속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에서 같은 가구 혹은 개인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패널 자료가 점차 축적되면서 이를 분석한 연구들은 늘어났다. 그러나 패널자료는 센서스 자료에 비해서는 물론 반복횡단면 자료에 비해서도 표본의 규모가 작은 데다가, 출산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는 연령이 제한적이어서 각 연구의 표본 규모는 상당히 작은 한계가 있었다.

은기수(2018)의 연구는 201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일의 연쇄와 출산력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의 일의 연쇄를 6개 유형⁴⁾으로 분류하고, 타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대체로 여성의 계속 노동을 지속하는 경우(노동지속형) 출산아 수가 적고, 일을 아예 하지 않거나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우(초기노동이탈형, 노동재진입형, 무노동지속형)에 출산아 수가 더 많았다. 또한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직업지위가 높은 직종에서 노동지속형인 경우가 많았다.

최근 출산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정교화 이외에 기존에 덜 주목받던 변수의 효과 역시 분석되고 있다. 점유형태나 주택가격, 금융자산과 같은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다방면에서 분석되고 있으나,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에서 출산 확률이 더 높은 것 이외에는 타 변수의 효과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김현식(2017)은 재정패널 자료를 통해 소득과 자산이 출산 순위별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월세에 비해 자가 가구에서 첫째 자녀의 출산 확률이 높았다. 배호중과 한창근(2016)은 노동패널을 활용해 2000년대 이후 혼인가구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초점은 자가 보유 여부와 주택자산이었다. 혼인 당시 자가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출산이 빠르고,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출산이 빨랐는데, 주택가격의 크기와 자녀출산 속도가 비례하지는 않았다. 임보영, 강정구, 마강래(2018)는 노동

4) 무노동지속형, 후기노동진입형, 노동지속형, 후기노동이탈형, 노동재진입형, 초기노동이탈형.

패널 2015년 자료를 활용해 혼인 및 자녀 수에 미치는 주택가격의 영향을 분석했는데, 지역(시군구)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작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계수의 값이 작고 효과가 불분명했다. 오히려 영향이 커던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특히 어머니 여성)가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은 경향이 있었다. 신형섭과 정의철(2021)은 신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점유 형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자가점유일 경우 출산 확률이 높았지만, 이외에 가구소득이나 가구순자산, 전세가격 등은 효과가 불분명했다. 또한 자가점유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첫째 자녀 출산보다는 둘째 자녀 출산과 관련이 깊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진성(2022)은 한국 노동패널을 이용한 소득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에서 소득이 적은 가구 일수록 출산율 하락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3 장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제1절 연구 모형

이 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른 출산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순서형 로짓 분석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 분석에서 사용할 종속 변수인 출산 격차는 자녀 수로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로 순서화된 형태를 갖는다. 순서화는 어느 한 응답이 다른 응답에 종속되지 않아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구분되며 한 응답에서 다음 응답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존재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이성우, 2005). 이러한 순서형 자녀 수에 여성 및 남성의 소득과 경제사회적 변수들인 학력, 여성 연령, 주택 소유 여부, 거주 형태, 거주 지역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은 기술통계분석은 약 20여 년간(2003~2023년)의 시계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은 2003년과 2013년 2023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관심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과 남성의 소득이 자녀 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가구 및 가구구성원의 경제사회적 변수들이 자녀 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소득, 여성 및 남성의 경제사회적 특성 변수, 즉,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녀 수는 순서가 있는 범주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구 방법으로 종속변수가 순서나 서열의 속성을 가진 경우 독립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순서형 로짓모형은 이항 로짓모형을 확장하여 순서화된 다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형으로서, 순서형 로짓모형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이성원, 2022).

$$\begin{aligned}
 P(Y_i > j) &= \exp(X_i \beta - \alpha_j) / [1 + \exp(X_i \beta - \alpha_j)] \\
 (\text{where, } j = 1, 2, 3, \dots, M-1) \\
 P(Y_i = 1) &= 1 - \exp(X_i \beta - \alpha_1) / [1 + \exp(X_i \beta - \alpha_1)] \\
 P(Y_i = j) &= \exp(X_i \beta - \alpha_j - 1) / [1 + \exp(X_i \beta - \alpha_j - 1)] \\
 &\quad - \exp(X_i \beta - \alpha_j) / [1 + \exp(X_i \beta - \alpha_j)] \\
 (\text{where, } j = 2, 3, \dots, M-1) \\
 P(Y_i = M) &= \exp(X_i \beta - \alpha_{M-1}) / [1 + \exp(X_i \beta - \alpha_{M-1})]
 \end{aligned}$$

제2절 자료와 변수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 2003년~2023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8,700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 및 지출,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지위 등 인구 사회학적 여러 변인을 매월 가계부를 통해 파악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가계동향조사가 출산력 조사를 위해 설계된 조사는 아니지만 소득에 따른 출산격차 연구에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특히 가구소득의 정확성과 대표성이 다른 어느 조사보다도 높다.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부 기입 방식(전자가계부 병행)을 통해 상세 소득과 지출 항목의 파악이 가능하며, 통계청 본청 가계수지동향과와 지방 사무소 공무원 및 도급조사원을 통해 매월 내검을 실시한다. 또한 정책 시행에 따른 다양한 소득과 지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어 정책의 효과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영아 수당, 재난 지원금 등의 효과를 분기별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은 처분가능소득으로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구에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처분가능소득을 통해 소득5분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구 출산격차에 있어서도 총소득보다는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이 출산과 관련한 실질적인 항목이라 생각된다. 유진성(2022)은 소득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합의 연구에서 향후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 분석, 정부의 지원금 정책 효과 등의 파악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가구 처분가능소득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시의성과 장기 시계열의 확보 가능성이다.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단위 자료로는 2003년부터, 도시 단위 자료로는 1990년부터 활용이 가능하여 소득과 관련한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를 20년 이상의 시계열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표 3-1> 가계동향조사 주요 개요

구분	설명
조사 목적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법적 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06호)
주요 조사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도시가계조사에서 전국가계조사로 확대 - 2006년 1인가구 조사, 전자가계부 도입 - 2017년 지출부문과 소득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조사 실시 - 2019년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 통합(전용표본 월 7,200가구), 농림어가 포함
조사 기간	조사대상기간 : 매월 1일 ~ 말일
모집단 및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 :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일반 가구 - 표본추출틀: 인구주택총조사의 보통조사구(1), 아파트조사구(A)를 표본추출명부 (sampling frame)로 하여, 추출단위 조사구별로 모집단 특성에 대해 기초자료 집계 - 표본의 대표성(sample representativeness)은 가중 후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표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중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정도, 취업 여부,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 ○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원 ○ 거처구분, 자동차 보유 여부, 주거에 관한 사항 - 조사표: 조사대상가구에서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내용을 기입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실태 관련항목 : 조사담당자 면접방식 ○ 가구의 수입 및 지출 관련 항목 : 응답자 기입방식(종이 및 전자가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가계부 - 전자가계부 : 조사대상가구가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가계부(PC 및 모바일)로 직접 접속하여 입력
결과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표 : 전국 및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 ○ 보도자료 및 국가통계포털(KOSIS)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5월부터 대상분기 익익월(5, 8, 11, 2월) 넷째 주 목요일 ※ 2019년 분기별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공표하며, 연간지출 조사결과는 공표시기를 달리할 수 있음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공표일 이후 한 달 이내
조사 체계	표본가구→조사담당자→지방청(사무소)→통계청(가계수지동향과)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침서(2021)

1. 주요 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에 따른 출산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써 우선 분석 대상, 소득과 출산 격차 등 연구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정의가 필요하다.

첫째, 분석 대상은 25~44세 기혼 여성이 포함된 유배우자 가구이다. 통상적인 여성의 가임 연령대인 25~44세를 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유배우자 가구는 남성과 여성 배우자 모두가 가구에 존재하는 가구로 한정하였다. 이에 사별, 이혼 가구 등 현재 배우자가 부재한 가구는 제외하였다. 여성 연령 25~44세는 출산이 활발한 30대와 출산 완료 시점인 40~44세를 포함해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5~44세 연령의 분석은 횡단면 분석과 출생 코호트별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시계열인 2003년~2023년에 해당하는 출생연도는 1959년생~1998년생을 포함한다. 한편 연령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로 연령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유배우자 가구의 감소로 분석 대상 표본이 협소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경우 25~34세, 35~44세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과 비소비지출 항목 정의는 아래와 같다.

<표 3-2> 처분가능소득 분류 내용

구분	변수	분류 내용	
①소득	경상 소득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 세전 금액
		사업소득	총수입액에서 일체의 사업자출을 차감한 금액
		재산소득	재산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 사적이전소득 가구 간 이전 등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복권 당첨금 등 우연적인 일시적인 소득
②비소비지출		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이전 등	
처분가능소득		①소득 - ②비소비지출	

*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3년 2/4분기 보도자료

또한 연구 분석에서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하위 계층을 소득1분위, 상위 계층을 5분위로 구분하여 소득 격차에 따른 자녀 수, 자녀 수 비중 등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연구의 주요 분석 항목인 출산 격차는 미혼 자녀 수로 정의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가구주와의 관계로 미혼 자녀 수를 합산하여 가구별 미혼 자녀 수를 파악하였다. 기혼 자녀는 별도 파악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정의하는 가구의 개념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모인 집단을 의미하여 기혼 자녀는 생계를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한 결과이다. 이후 본 연구에서 분석 시 사용되는 자녀 수는 미혼 자녀 수이다.

2. 변수 및 측정

종속변수는 가구별 자녀 수이다. 자녀 수는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 이상 4개 분류를 사용하였다. 소득 관련 변수로는 남성 소득과 여성 소득을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개인별로 분류되지 않는 한계를 감안하였다. 소득 값은 회귀분석에서 자연 로그 값을 취하였다.

경제사회적 특성 변수로는 여성 연령, 여성 취업 여부, 여성 고용의 안정성, 여성 학력, 남성 학력, 거주 지역, 주택소유 여부, 주택 거주 형태 등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여성의 취업 여부는 취업과 비취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가변수(dummy variable)를 이용하여 취업을 기준으로 하였다. 여성의 고용 안정성은 여성의 종사상지위를 활용하여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 고용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상용직 근로자가 아니면 고용 안정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여성의 학력과 남성의 학력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4년제), 대학원 이상의 4개로 구분하였으며 범주형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거주 지역은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하였는데 도시는 행정구역상 동지역, 비도시는 행정구역상 읍, 면 지역을 의미한다. 주택소유 여부는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였으며, 거주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등 기타 3개 분류로 재구성하였다.

<표 3-3> 변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	측정
종속변수	자녀 수	0=무자녀 / 1=한자녀 / 2= 두자녀 / 3= 다자녀
독립변수	여성 소득	In(근로소득+사업소득)
	남성 소득	In(근로소득+사업소득)
통제변수	여성 연령	
	여성 취업 여부	1= 취업 / 2= 비취업
	여성 고용안정성	1= 상용직 근로자 / 2= 기타
	여성 고용안정성	1= 상용직 근로자 / 2= 기타
	여성 학력	1=고졸이하/2=전문대졸/3=대졸(4년제)/4= 대학원이상
	남성 학력	1=고졸이하/2=전문대졸/3=대졸(4년제)/4= 대학원이상
	거주지역	1= 도시 / 2= 비도시
	주택거주형태	1= 자가 / 2= 전세 / 3= 월세 등 기타
	주택소유 여부	1= 소유 / 2= 미소유

제 4 장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제1절 코호트 분석

본격적인 횡단면적 기술 통계 분석에 앞서 간략한 코호트 분석을 통해 자료의 이해를 돋고자 한다. 본 연구에 해당하는 '03~'23년 시계열에 포함되는 출생 연령대는 1959년생부터 1998년생까지이다. <그림 4-1>에서 연도별 해당 출생연도 분포를 표시(노란색 부분)하면 아래와 같다. 출생연도를 5세 단위로 구분하여 25~44세까지 포함한 출생 코호트는 1974~1978년생, 1979~1983년생 그리고 25~39세에 해당하는 1984~1987년생 코호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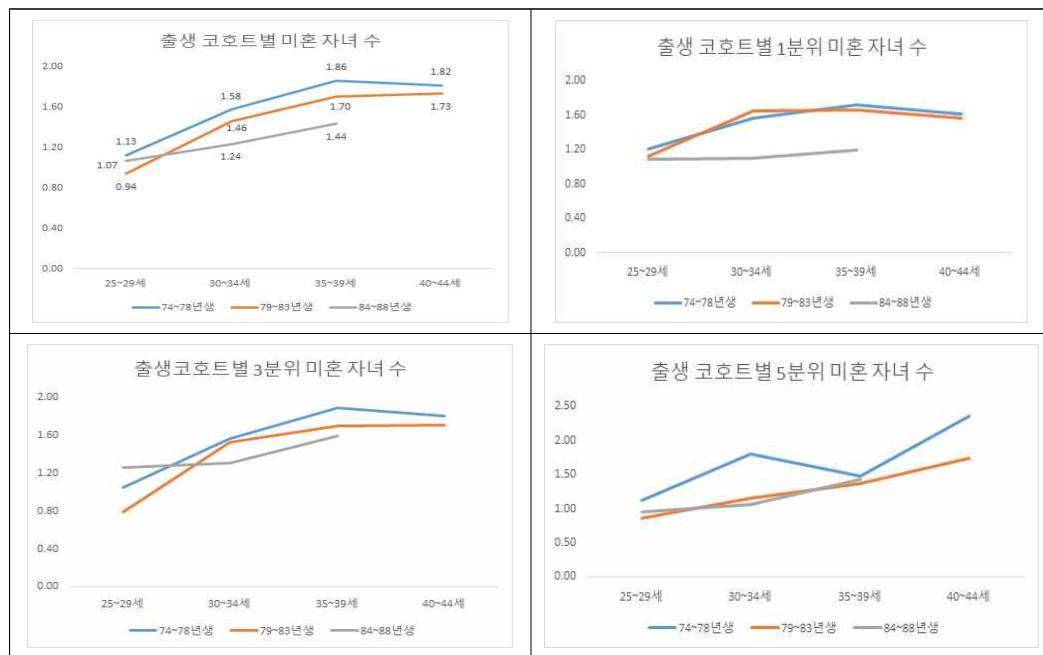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998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997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99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995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94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993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99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99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1990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98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988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987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98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985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1984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983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982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198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1980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1979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1978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1977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197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1975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1974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1973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1972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197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1970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1969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1968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1967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196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1965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1964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1963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962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196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1960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1959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그림 4-1> 출생연도별 분포

출생 코호트별 자녀 수 및 소득 분위별 자녀 수 분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 4-2>와 같다. 74~78년생, 79~83년생, 84~88년생 코호트 모두 소득 1분위와 3분위에서는 35~39세 출산 완료 성향이 보이나 5분위에서는 40~44세까지 출산이 지속되는 경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1> 출생코호트-소득5분위별 자녀 수

		74~78년생	79~83년생	84~88년생
전체	25~29세	1.13	0.94	1.07
	30~34세	1.58	1.46	1.24
	35~39세	1.86	1.70	1.44
	40~44세	1.82	1.73	
1분위	25~29세	1.05	0.79	1.27
	30~34세	1.57	1.53	1.31
	35~39세	1.90	1.71	1.60
	40~44세	1.81	1.72	
3분위	25~29세	1.21	1.13	1.09
	30~34세	1.56	1.65	1.11
	35~39세	1.72	1.66	1.19
	40~44세	1.62	1.57	
5분위	25~29세	1.12	0.86	0.96
	30~34세	1.81	1.16	1.07
	35~39세	1.47	1.36	1.44
	40~44세	2.36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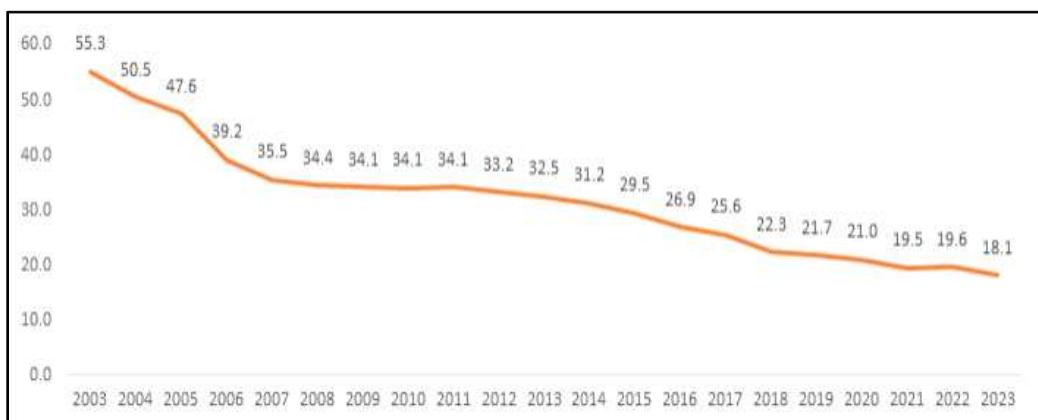
<그림 4-2> 출생코호트-소득5분위별 자녀 수

제2절 경제사회적 요인별 출산 격자

1. 유배우자 가구 비중 변화

소득에 따른 자녀 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가구 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5~44세 기혼 여성의 포함된 유배우자 가구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자 한다.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배우자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03년 기준 유배우자 가구 비중은 55.3%이며, '23년은 18.1%에 불과하였다. 출산이 이루어지는 가족 구성 측면에서 유배우자 구성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배우자 가구의 감소는 함께 출산율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4-3> 유배우자 가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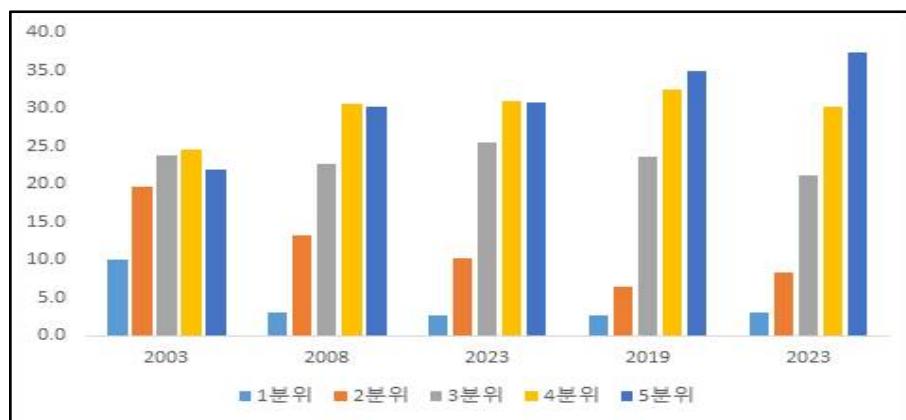
소득5분위별 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3년의 경우, 전체 가구 대상 소득 1분위 가구 중 유배우자 가구(25~4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였으나, 이 비율은 '23년 0.5%로 감소하였다. 1분위 가구 비중은 2006년 이후 2% 이하에 불과하였다. 이는 2006년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를 시작한 표본 체계 개편과 관련이 있다. 1인 가구의 소득은 대체적으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낮고 상대적으로 1분위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2006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 가구 중 유배우자 가구는 39.2%에서 18.1%로 21.1%p 감소하였는데 소득 3~5분위 감소폭은 각각 -6.1%p, -5.6%p, -4.1%p로 3분위의 비중 감소가 제일 크다.

<표 4-2> 전체 가구(=100) 대비 유배우자 가구 소득5분위별 비중

	전체가구	유배우자 가구(25~44세)						(단위: %)
		소계	1분위 (=20.0)	2분위 (=20.0)	3분위 (=20.0)	4분위 (=20.0)	5분위 (=20.0)	
2003	100.0	55.3	5.5	10.9	13.1	13.5	12.2	
2004	100.0	50.5	5.0	9.7	12.1	12.3	11.4	
2005	100.0	47.6	4.7	8.6	11.4	11.6	11.2	
2006	100.0	39.2	1.9	5.4	9.9	11.1	10.8	
2007	100.0	35.5	1.6	4.8	8.5	10.5	10.2	
2008	100.0	34.4	1.1	4.6	7.8	10.5	10.4	
2009	100.0	34.1	1.0	4.4	8.1	10.0	10.7	
2010	100.0	34.1	1.1	4.1	8.6	10.5	9.8	
2011	100.0	34.1	1.2	3.9	8.8	10.3	9.9	
2012	100.0	33.2	1.0	3.6	8.8	10.3	9.6	
2013	100.0	32.5	0.9	3.3	8.3	10.1	10.0	
2014	100.0	31.2	0.7	3.1	7.9	9.7	9.9	
2015	100.0	29.5	0.6	2.9	6.9	9.8	9.3	
2016	100.0	26.9	0.4	2.3	6.7	8.7	8.8	
2017	100.0	25.6	0.6	1.8	5.6	9.1	8.5	
2018	100.0	22.3	0.4	1.8	4.9	7.7	7.7	
2019	100.0	21.7	0.6	1.4	5.1	7.0	7.6	
2020	100.0	21.0	0.5	1.7	4.2	7.2	7.4	
2021	100.0	19.5	0.6	1.8	4.4	6.1	6.5	
2022	100.0	19.6	0.3	1.7	4.2	6.2	7.2	
2023	100.0	18.1	0.5	1.5	3.8	5.5	6.7	

주: 각 유배우자가 가구 소득5분위별 표본수는 <부표 1>에 제시

한편, 유배우자 가구(25~44세)를 구성하는 소득5분위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소득 1~2분위는 감소, 소득4~5분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까지는 소득1분위~ 2분위 비중이 15% 이상이었으나, 2011년 이후 소득 1분위~2분위 비중 합계는 10% 내외, 소득3~5분위 비중이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표 4-3>). 특히, 소득2분위 가구의 비중 감소와 5분위 가구의 비중 증가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저소득층의 결혼 시장 진입에 부정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그림 4-4> 유배우자 가구(=100) 소득5분위별 비중

<표 4-3> 유배우자 가구(=100) 소득5분위별 비중

(단위: %)

	유배우자 가구(25~44세)					
	소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3	100.0	10.0	19.7	23.8	24.5	22.0
2004	100.0	9.8	19.2	24.0	24.4	22.6
2005	100.0	10.0	18.2	24.1	24.3	23.5
2006	100.0	5.0	13.8	25.3	28.4	27.5
2007	100.0	4.4	13.5	23.9	29.6	28.6
2008	100.0	3.1	13.3	22.7	30.6	30.3
2009	100.0	2.9	12.8	23.6	29.4	31.2
2010	100.0	3.2	12.1	25.3	30.7	28.7
2011	100.0	3.4	11.4	25.9	30.1	29.2
2012	100.0	3.0	10.8	26.3	31.1	28.8
2013	100.0	2.6	10.2	25.5	31.0	30.7
2014	100.0	2.1	9.9	25.4	31.0	31.6
2015	100.0	2.0	10.0	23.3	33.3	31.4
2016	100.0	1.6	8.5	24.8	32.3	32.8
2017	100.0	2.5	6.9	21.9	35.5	33.1
2018	100.0	1.6	7.9	21.9	34.3	34.3
2019	100.0	2.6	6.3	23.7	32.4	35.0
2020	100.0	2.2	8.2	20.0	34.1	35.4
2021	100.0	3.0	9.5	22.7	31.4	33.4
2022	100.0	1.6	8.6	21.5	31.7	36.7
2023	100.0	3.0	8.3	21.2	30.3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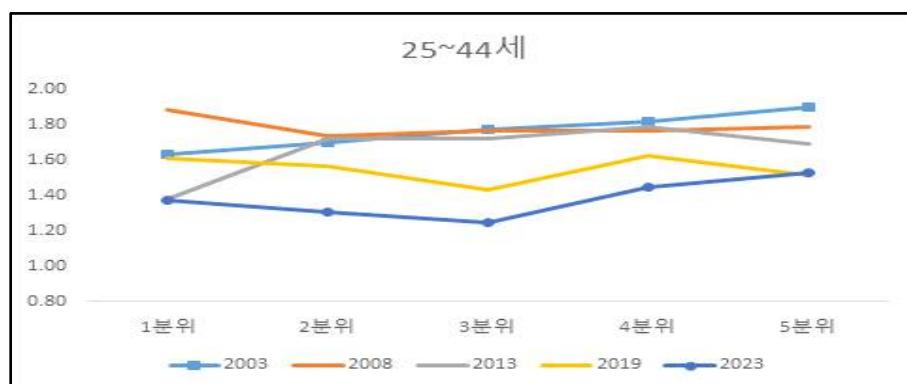
2. 소득5분위별 평균 자녀 수와 자녀 수 구성 비율

가. 소득5분위별 평균 자녀 수

<그림 4-5><그림 4-7>은 소득 5분위별 평균 자녀 수를 연령집단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25~44세 전체 유배우 여성 집단을 보면, 대체로 소득이 낮은 1~3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전체 평균 자녀 수보다 적으며, 소득이 높은 4·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전체 평균 자녀 수보다 많다. 한편, 2008년 이후 1분위 가구에 해당하는 표본수가 협소하여 1분위 가구의 자녀 수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세부적인 연령집단으로 들어가 보면 소득과 평균 자녀 수 간의 관계는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그 경향은 한창 출산이 진행 중인 25~29세와 30~34세 집단과 완결 출산력을 보이는 35~39세와 40~44세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과 출산과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소득과 출산과의 정적인 관계는 25~29세 집단에서 40~44세 집단까지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전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집단이 소득이 적은 집단에 비해 자녀를 더 많이 갖는 소득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출산이 진행 중인 집단, 특히 25~29세 집단에서는 소득과 출산 간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5분위 고소득 가구의 평균 자녀 수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고소득 젊은 연령 집단에서 자녀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 출산을 미루고 있는 점이 포착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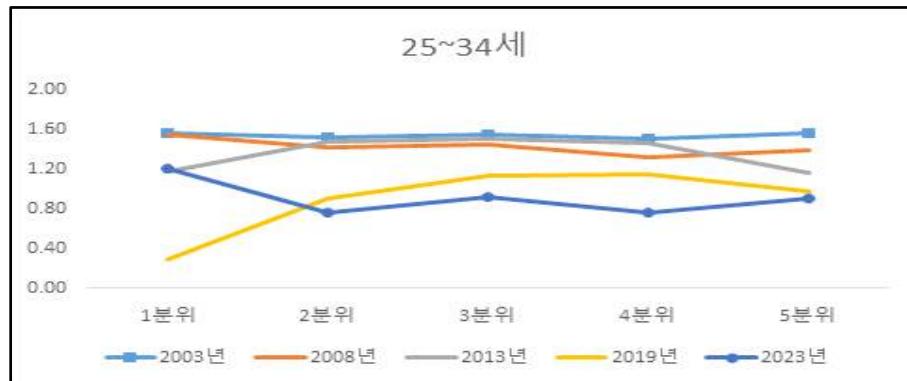
유배우자 여성 25~44세 전체 연령대에서는 2003년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9년과 2023년도에는 소득과 자녀 수가 V자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주: 연도별 자녀 수와 표본 수는 <부표 2>에 제시

<그림 4-5> 소득 5분위별 유배우자 여성의 자녀 수(25~4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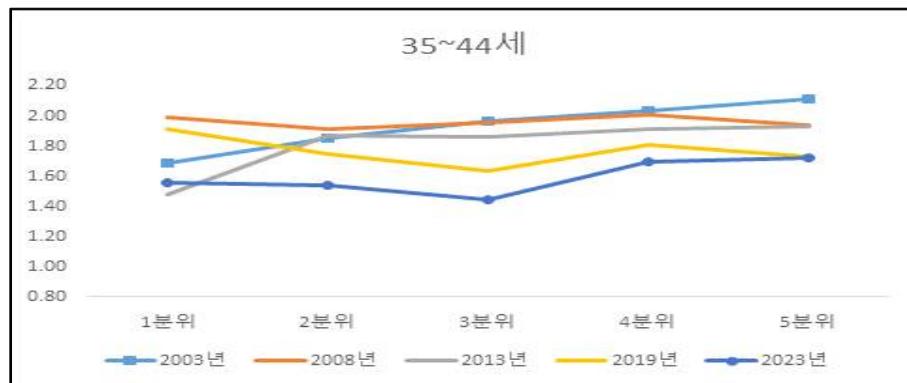
25~34세 집단에서는 소득에 따라 자녀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03년 이후 '23년까지 자녀 수의 수준은 다를 뿐 소득에 따른 자녀 수 격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령대는 출산이 진행 중인 연령대로,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적 여성들은 출산 지연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 분위별로 자녀 수 격차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 연도별 자녀 수와 표본 수는 <부표 3>에 제시

<그림 4-6> 소득 5분위별 유배우자 여성의 자녀 수(25~34세)

35~44세 집단에서는 대체로 소득이 낮은 1분위·2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수가 전체 평균 자녀 수보다 적으며, 소득이 높은 4분위·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전체 평균 자녀 수보다 많았다. 다만, 1분위는 표본 수가 협소하여 이에 대한 해석 시 유의를 요한다. 한편 이 연령대는 출산이 완료되는 연령대로 소득과 자녀 수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2021년 이후 3~5분위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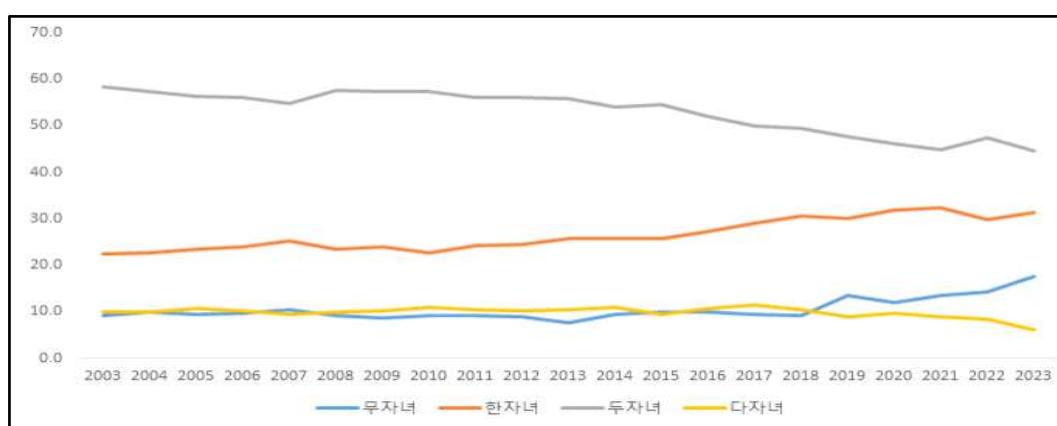


주: 연도별 자녀 수와 표본 수는 <부표 4>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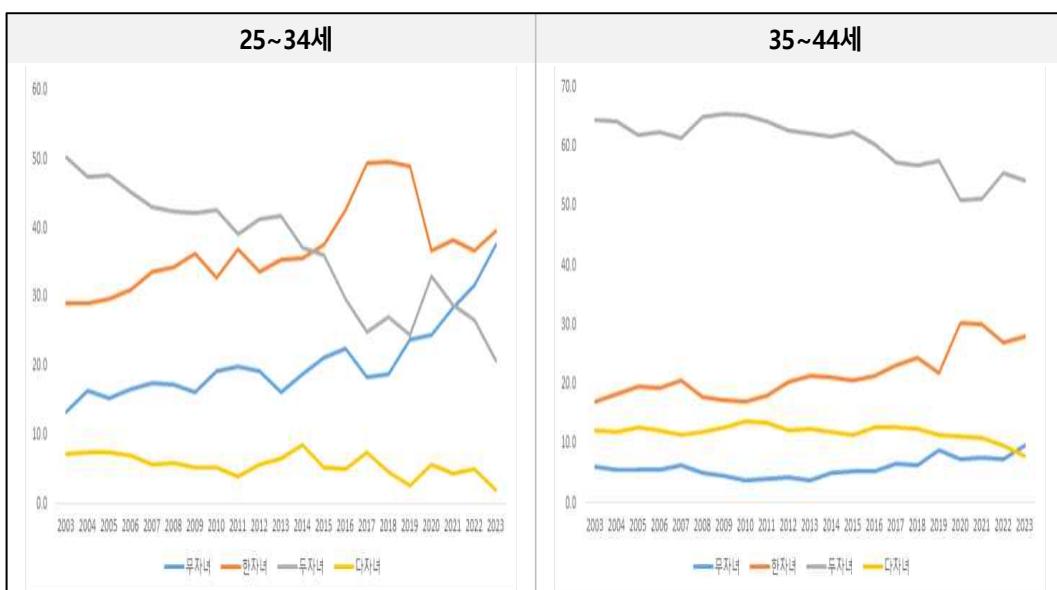
<그림 4-7> 소득 5분위별 유배우자 여성의 자녀 수(35~44세)

나. 소득 5분위별 자녀 수 비율

다음으로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았다. 25~44세 전체 연령대에서는 2003년 이후 두자녀와 다자녀 비중은 감소하고, 무자녀와 한자녀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변화 추세는 출산 진행 중인 연령대(25~34세)와 출산이 완료된 시점의 연령대(35~44세)에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25~34세 연령대에서는 일정한 추세보다는 역동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19년 이후에는 무자녀 가구의 증가와 두자녀 가구의 감소 추세가 명확히 보인다. 35세~44세 연령대에서는 전체 연령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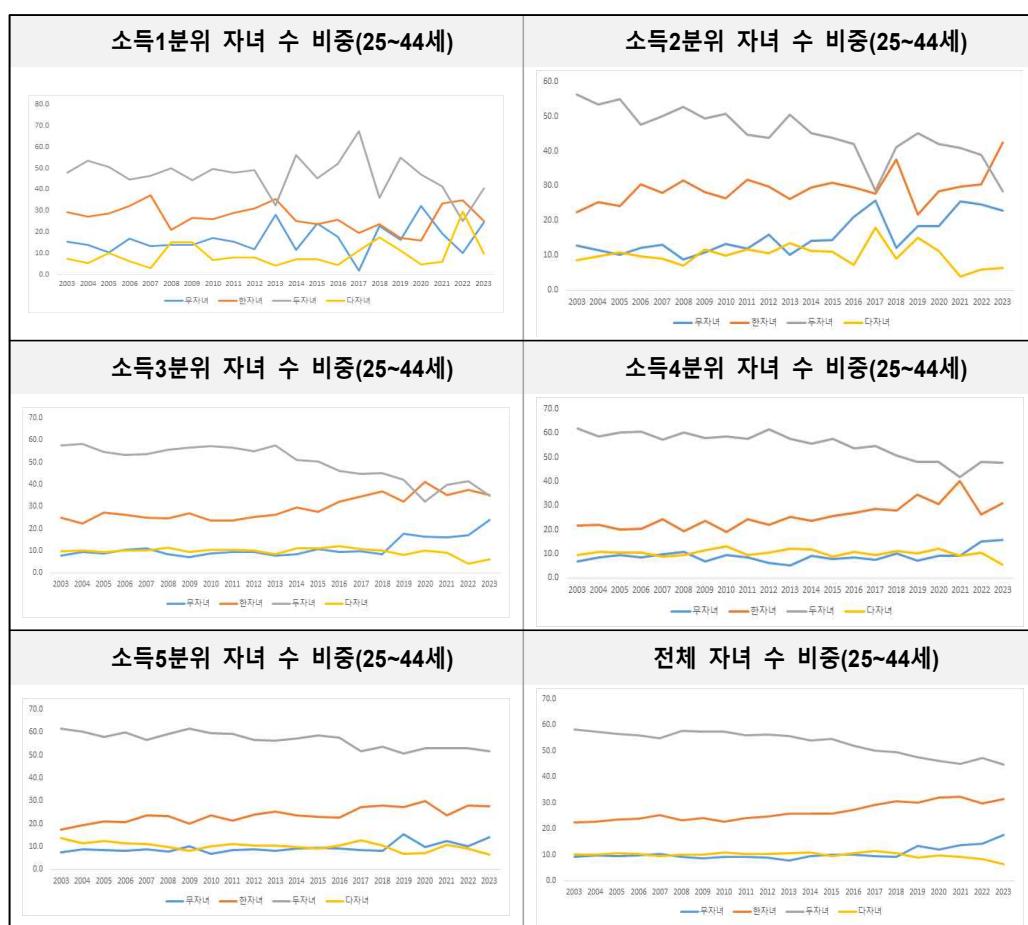
<그림 4-8> 자녀수별 비중(25~44세)



<그림 4-9> 연령대별 자녀수별 비중

소득 5분위별 자녀 수 비중을 살펴보면, 25~44세 연령대의 경우, 소득1분위 가구의 경우는 두자녀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으나 한자녀와 무자녀 등과의 격차를 설명하기에는 일정한 추세를 확인하기 힘들었다. 이는 1분위 표본수의 감소로 인한 편향된 수치 때문으로 생각된다. 소득 2~4분위의 경우 두자녀와 한자녀 비중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무자녀 비중 또한 2019년 이후 급속히 증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소득 5분위의 경우 두자녀 비중의 감소와 한자녀 가구 비중의 증가 경향이 나타났으며, 무자녀 가구 비중은 2015년 10.1%에서 2023년 17.7%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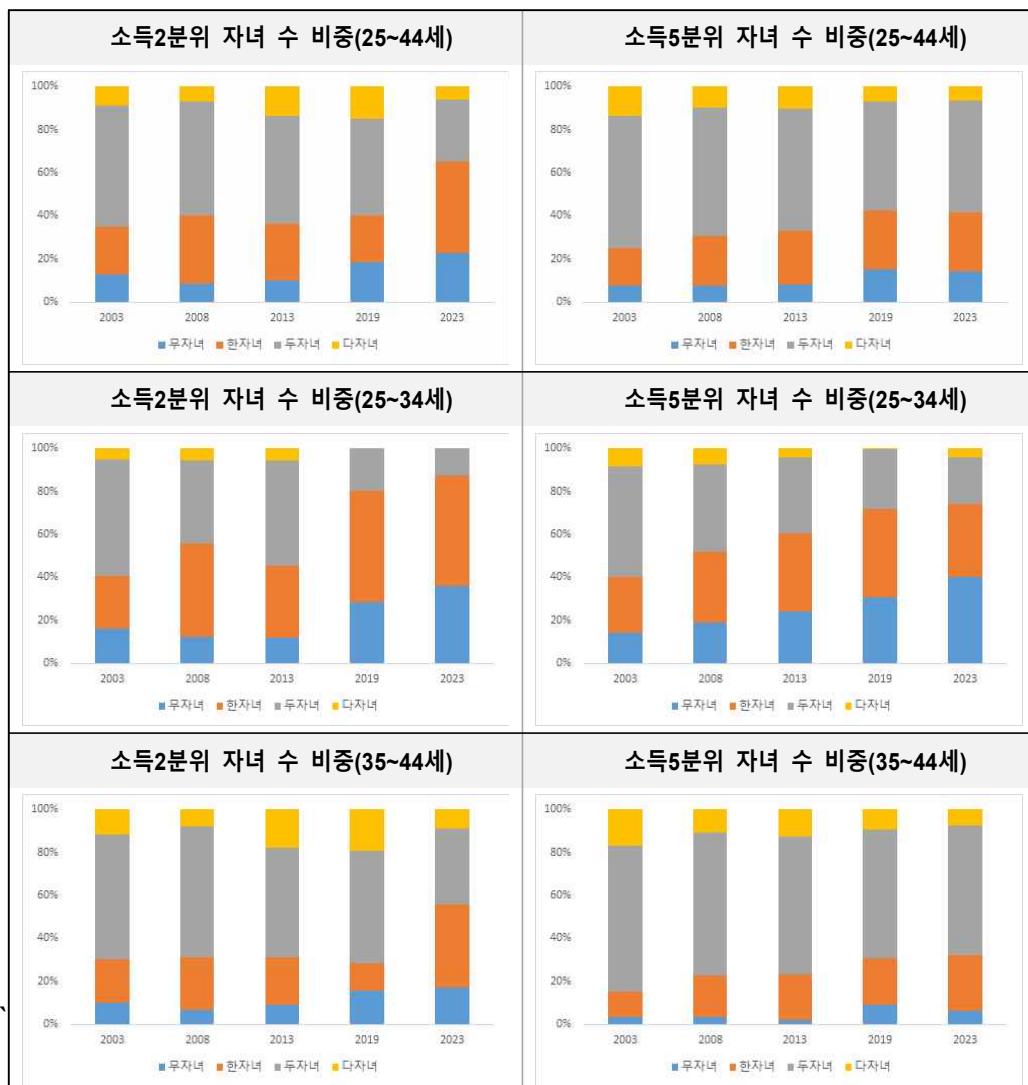
한편, 무자녀 가구 비중은 소득 1~3분위가 소득 4~5분위보다 비중이 높아 소득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반면, 두자녀 비중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져 소득과 정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4-10> 소득분위별 자녀수별 비중(25~44세)

소득 분위별로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가구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2003년, 2008년, 2013년, 2019년, 2023년 시계열을 통해 살펴보았다.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2분위 가구와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5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분위 가구의 경우 25~44세 전체 집단에 대해 무자녀 비율과 한자녀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반대로 두자녀 비율은 2003년 56.2%, 2008년 52.6%, 2013년 50.4%, 2023년 28.5%로 감소하였다.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또한 한자녀 비중 증가, 두자녀 비중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 소득 2분위와 5분위를 비교하면, 소득5분위에서는 두자녀 비중이 소득2분위에서는 한 자녀 및 무자녀 비중이 높았다.



주: 모든 분위별 자녀 수 비중은 <부표 5>, 전체 연도별 자료는 <부표 6>~<부표 8>에 제시

<그림 4-11> 소득분위 및 연령대별 자녀 수 비중

다. 맞벌이 여부별 자녀 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자녀 수를 소득 5분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5~44세 연령대, 25~34세, 35~44세 연령대 모두 비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자녀 수가 많았다. 다만, '03, '08, '13년도의 경우 출산 완료 시점인 40~44세 연령대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자녀 수가 많았다. 이는 출산 진행 중인 연령대에서 여성인 경우, 자녀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 일시적 실업 상태로 대응한 결과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소득2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에서 대체적으로 자녀 수가 많아,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

<표 4-4> 소득5분위-맞벌이 여부별 자녀 수

연 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맞 벌이	맞벌 이										
25~ 44세	03	1.73	1.68	1.61	1.24	1.62	1.61	1.68	1.75	1.81	1.70	1.94	1.74
	08	1.70	1.70	1.70	1.66	1.57	1.70	1.69	1.74	1.72	1.68	1.78	1.69
	13	1.76	1.64	1.13	1.09	1.70	1.70	1.72	1.60	1.80	1.74	1.92	1.59
	19	1.58	1.48	1.53	2.61	1.51	1.94	1.46	1.34	1.69	1.56	1.69	1.45
	23	1.46	1.36	1.35	1.42	1.21	1.25	1.31	1.12	1.56	1.35	1.75	1.43
25~ 34세	03	1.59	1.41	1.64	1.17	1.49	1.52	1.55	1.52	1.59	1.38	1.79	1.36
	08	1.51	1.15	1.58	0.95	1.40	1.35	1.54	1.20	1.49	0.97	1.64	1.24
	13	1.56	1.13	1.10	1.00	1.51	1.35	1.55	1.18	1.63	1.30	1.71	0.98
	19	1.14	1.00	0.29	0.00	0.91	1.00	1.17	1.10	1.20	1.08	1.22	0.93
	23	1.10	0.65	1.11	2.25	0.86	0.53	0.98	0.82	1.01	0.59	1.67	0.61
35~ 44세	03	1.89	1.82	1.57	1.27	1.79	1.65	1.85	1.86	2.04	1.86	2.04	1.97
	08	1.82	1.89	1.74	1.70	1.70	1.75	1.84	1.89	1.89	1.95	1.84	1.87
	13	1.87	1.82	1.16	1.09	1.83	1.80	1.86	1.75	1.87	1.89	1.98	1.83
	19	1.82	1.66	1.84	2.61	1.71	1.96	1.68	1.49	1.97	1.67	1.87	1.66
	23	1.63	1.60	1.63	0.48	1.36	1.59	1.48	1.32	1.80	1.60	1.78	1.67
40~ 44세	03	1.94	1.96	1.70	1.29	1.89	1.66	1.74	2.05	2.13	1.97	2.11	2.17
	08	1.92	2.08	1.74	1.88	1.91	1.95	1.96	2.06	1.92	2.19	1.93	2.06
	13	1.89	2.00	1.00	2.00	1.74	2.23	1.97	1.92	1.93	2.03	1.98	1.98
	19	1.92	1.77	1.72	2.61	1.61	1.95	1.82	1.75	2.16	1.74	1.89	1.76
	23	1.80	1.78	1.90	0.48	1.80	1.57	1.66	1.57	1.81	1.74	1.96	1.87

주: 전체 연도별 자료는 <부표 9>~<부표 12>에 제시



<그림 4-12> 소득5분위-맞벌이 여부별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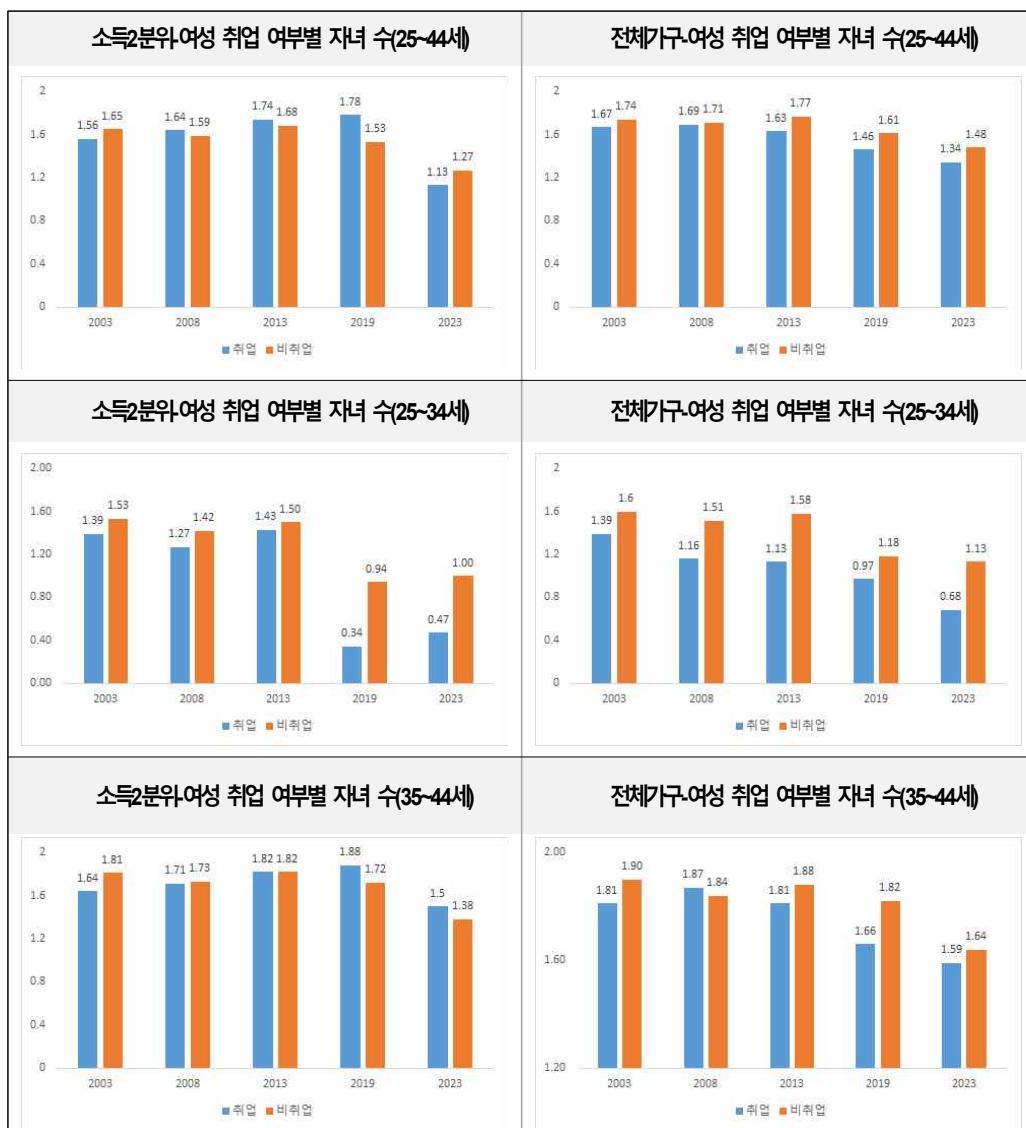
라.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 자녀 수

여성의 경제활동여부별 자녀 수 또한 앞서 살펴본 맞벌이 여부에 따른 자녀 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소득 5분위별-여성 취업여부별 자녀 수 분석 결과는 <표 4-5>와 같다. 25~44세 연령대, 25~34세, 35~44세 연령대 모두 여성 비취업 가구가 취업 가구에 비해 자녀 수가 많았다. 다만, '08, '13년도의 경우 출산 완료 시점인 40~44세 연령대에서는 여성 취업 가구가 비취업 가구에 비해 자녀 수가 많았다. 한편, 소득2분위에서는 취업 가구에서 대체적으로 자녀 수가 많아,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의 경우 취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5> 소득5분위-여성 취업 여부별 자녀 수

연 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취업	비 취업	취업	비 취업	취업	비 취업	취업	비 취업	취업	비 취업	취업	비 취업	
25~ 44세	03	1.67	1.74	1.31	1.62	1.56	1.65	1.74	1.69	1.7	1.81	1.74	1.94
	08	1.69	1.71	1.76	1.67	1.64	1.59	1.72	1.7	1.67	1.73	1.69	1.79
	13	1.63	1.77	0.95	1.22	1.74	1.68	1.59	1.73	1.73	1.81	1.59	1.92
	19	1.46	1.61	2.43	1.51	1.78	1.53	1.28	1.51	1.55	1.7	1.45	1.71
	23	1.34	1.48	1.63	1.25	1.13	1.27	1.09	1.34	1.35	1.57	1.43	1.77
25~ 34세	03	1.39	1.6	1.25	1.66	1.39	1.53	1.5	1.56	1.38	1.59	1.36	1.79
	08	1.16	1.51	0.95	1.58	1.27	1.42	1.25	1.53	0.98	1.49	1.24	1.64
	13	1.13	1.58	0.77	1.21	1.43	1.5	1.18	1.56	1.3	1.64	0.98	1.71
	19	0.97	1.18	0.29	0	0.34	0.94	1.01	1.24	1.05	1.23	0.93	1.24
	23	0.68	1.13	1.81	0.93	0.47	1.0	0.8	1.02	0.59	1.01	0.63	1.75
35~ 44세	03	1.81	1.9	1.34	1.56	1.64	1.81	1.86	1.86	2.04	2.04	1.97	2.04
	08	1.87	1.84	1.8	1.71	1.71	1.73	1.86	1.93	1.92	1.92	1.87	1.84
	13	1.81	1.88	1.03	1.23	1.82	1.82	1.86	1.88	1.88	1.88	1.83	1.99
	19	1.66	1.82	2.43	1.83	1.88	1.72	1.69	1.68	1.96	1.96	1.66	1.87
	23	1.59	1.64	1.41	1.61	1.5	1.38	1.49	1.59	1.82	1.82	1.67	1.78
40~ 44세	03	1.95	1.95	1.42	1.68	1.67	1.91	2.04	1.74	1.97	2.13	2.17	2.11
	08	2.07	1.93	1.70	1.81	1.96	1.89	2.04	1.97	2.18	1.92	2.04	1.95
	13	1.99	1.90	1.72	1.00	2.12	1.77	1.90	1.99	2.03	1.92	1.98	1.98
	19	1.76	1.94	2.43	1.70	1.84	1.64	1.73	1.85	1.75	2.16	1.76	1.89
	23	1.77	1.81	1.55	1.86	1.57	1.82	1.56	1.67	1.72	1.84	1.87	1.96

주: 전체 연도별 자료는 <부표 13><부표 ~16>에 제시



<그림 4-13> 소득5분위-여성 취업 여부별 자녀 수

마. 주택소유 여부별 자녀 수

소득5분위 및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평균 자녀 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일관되게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1분위 일부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분위 내, 모든 시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4-6> 소득5분위-주택소유 여부별 자녀 수(25~44세)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유	미소 유										
2003	1.80	1.58	1.54	1.49	1.70	1.53	1.74	1.68	1.86	1.59	1.92	1.56
2004	1.79	1.54	1.59	1.44	1.69	1.56	1.79	1.62	1.83	1.53	1.87	1.48
2005	1.80	1.54	1.67	1.56	1.79	1.57	1.76	1.54	1.80	1.57	1.86	1.48
2006	1.81	1.49	1.56	1.30	1.67	1.47	1.78	1.51	1.83	1.58	1.87	1.45
2007	1.75	1.47	1.43	1.34	1.64	1.49	1.77	1.51	1.75	1.51	1.81	1.36
2008	1.79	1.54	1.82	1.52	1.68	1.53	1.78	1.63	1.83	1.47	1.80	1.50
2009	1.75	1.61	1.63	1.61	1.69	1.57	1.73	1.66	1.77	1.72	1.76	1.45
2010	1.77	1.59	1.47	1.45	1.68	1.50	1.78	1.62	1.83	1.63	1.76	1.63
2011	1.75	1.55	1.51	1.45	1.67	1.47	1.72	1.64	1.80	1.48	1.78	1.59
2012	1.73	1.59	1.39	1.83	1.51	1.50	1.73	1.57	1.82	1.65	1.73	1.58
2013	1.75	1.62	1.13	1.12	1.73	1.67	1.71	1.61	1.82	1.67	1.74	1.57
2014	1.77	1.48	1.60	1.61	1.63	1.47	1.72	1.57	1.84	1.45	1.79	1.40
2015	1.77	1.44	1.57	1.10	1.55	1.50	1.79	1.41	1.80	1.45	1.77	1.45
2016	1.72	1.50	1.55	1.35	1.37	1.35	1.66	1.57	1.76	1.53	1.80	1.47
2017	1.73	1.49	1.88	1.88	1.15	1.62	1.76	1.39	1.73	1.56	1.80	1.43
2018	1.66	1.55	1.43	1.51	1.35	1.64	1.62	1.50	1.70	1.49	1.70	1.63
2019	1.63	1.34	1.85	1.00	1.65	1.52	1.46	1.33	1.67	1.49	1.68	1.18
2020	1.60	1.44	1.61	0.41	1.57	1.36	1.36	1.38	1.67	1.60	1.65	1.44
2021	1.64	1.28	1.58	1.08	1.44	1.10	1.60	1.20	1.59	1.39	1.73	1.38
2022	1.65	1.24	1.60	2.13	1.28	1.25	1.41	1.19	1.73	1.25	1.78	1.22
2023	1.54	1.15	1.07	1.61	1.37	1.02	1.39	1.04	1.59	1.20	1.64	1.15

바. 지역별 자녀 수

도시지역 거주 여부에 따른 자녀 수를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지역 구분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만 구분 가능하다. 도시지역은 행정구역상 동지역을 비도시 지역은 읍면 지역을 의미한다.

25~44세 연령대에서 비도시 거주 가구가 도시 거주 가구에 비해 자녀 수가 많았다. 다만, 25~44세 기혼 여성의 속한 유배우 가구가 속한 비도시 지역 가구 수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비도시 지역에 남아 있는 가구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상위 소득 계층에서 자녀 출산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7> 소득5분위-거주 지역별 자녀 수(25~44세)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도시	비도시										
2003	1.71	1.71	1.49	1.63	1.60	1.70	1.71	1.73	1.76	1.74	1.84	1.74
2004	1.69	1.69	1.51	1.52	1.63	1.62	1.71	1.72	1.73	1.74	1.75	1.82
2005	1.69	1.74	1.62	1.55	1.65	1.77	1.65	1.69	1.70	1.86	1.76	1.72
2006	1.67	1.74	1.33	1.72	1.58	1.48	1.64	1.65	1.73	1.87	1.74	1.88
2007	1.63	1.73	1.40	1.35	1.59	1.44	1.63	1.75	1.63	1.82	1.69	1.90
2008	1.66	1.90	1.63	1.94	1.53	1.87	1.68	1.84	1.64	2.02	1.71	1.83
2009	1.68	1.82	1.61	1.67	1.60	1.80	1.69	1.73	1.72	1.96	1.66	1.81
2010	1.68	1.85	1.50	1.22	1.55	1.70	1.69	1.86	1.73	1.91	1.71	1.90
2011	1.66	1.78	1.51	1.31	1.56	1.65	1.65	1.85	1.68	1.71	1.71	1.90
2012	1.68	1.71	1.58	1.52	1.49	1.59	1.65	1.73	1.76	1.80	1.70	1.67
2013	1.67	1.84	1.12	1.17	1.63	1.94	1.66	1.76	1.75	1.90	1.68	1.86
2014	1.64	1.86	1.50	1.96	1.48	1.84	1.64	1.73	1.67	1.95	1.65	1.86
2015	1.62	1.79	1.27	1.73	1.50	1.63	1.60	1.69	1.65	1.82	1.64	1.92
2016	1.60	1.84	1.39	1.72	1.28	1.71	1.57	1.84	1.64	1.89	1.68	1.84
2017	1.61	1.85	1.79	2.26	1.41	1.23	1.53	1.85	1.65	1.80	1.66	2.00
2018	1.61	1.70	1.46	1.59	1.45	1.73	1.58	1.51	1.61	1.80	1.67	1.72
2019	1.50	1.68	1.85	0.67	1.56	1.62	1.33	1.80	1.57	1.88	1.50	1.50
2020	1.53	1.63	1.13	1.55	1.43	1.63	1.38	1.30	1.64	1.66	1.56	1.81
2021	1.47	1.69	1.35	1.24	1.17	1.78	1.36	1.77	1.51	1.55	1.62	1.76
2022	1.47	1.74	1.67	2.05	1.21	1.73	1.32	1.37	1.50	1.75	1.58	1.86
2023	1.40	1.43	1.37	1.09	1.19	1.47	1.29	0.96	1.40	1.63	1.50	1.57

주: 소득5분위-거주지역별 표본수는 <부표 17>에 제시

제 5 장

회귀 모형 추정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모형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 순서형 다항 로짓 분석으로, 가구의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정의하였으며,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의 4개 분류로 구분하였다. 분석 변수로는 소득의 경우 여성소득, 남성소득을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 변수가 출산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거주 형태, 주택 소유 여부, 여성 교육수준, 남성 교육수준, 여성 취업 여부, 여성 상용직 여부, 남성 상용직 여부 등 경제사회적 변수를 통제하였다. '03년 이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03년, '13년, '23년 1/4분기 데이터를 통해 변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연령을 25~44세, 25~34세, 35~44세로 구분하였다.

<표 5-1>은 2003년의 25~44세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로 남성 소득은 자녀 출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오즈비는 1.03배로 남성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출산 확률이 3%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미소유한 경우에 비해 출산의 확률을 높였다. 오즈비가 1.55배로 출산 확률이 미소유에 비해 55%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 학력에 비해 전문대, 대졸, 대학원 이상의 경우 출산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고졸 이하의 학력에 비해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경우 자녀 출산 확률을 각각 28%, 6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취업은 자녀 출산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학력 수준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성의 학업 및 경제 활동은 출산 확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 연령은 자녀 출산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다소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2>는 25~34세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이다. 남성 소득은 전체 연령대와 유사하게 출산 확률에 정의 관계를 보인다. 거주 형태의 경우, 자가 거주 대비 월세 등 기타 거주가 출산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2003년에는 결혼 및 출산 진행 연령대에서는 월세 등의 주거 형태가 출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 학력은 전체 연령대와 유사하게 출산 확률에 부의 상관 관계를 보여 주었다. 반면 남성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고졸 이하에 비해 대졸의 경우 출산 확률을 낮추었다.

<표 5-3>은 35~44세를 분석한 결과로 여성소득이 출산 확률에 정의 관계를 보여 여성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출산 확률이 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소득 또한 출산 확률에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을 완료한 여성 연령대에서 다시 경제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여전히 자녀 출산에 부의 관계를 보여 주었으나, 남성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 학력에 비해 대졸과 대학원 이상에서 출산 확률과 강한 정의 관계를 보여 오즈비가 각각 1.7, 2.4로 나타냈다. 여성 연령은 35~44세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35세 전에 대부분의 여성이 출산을 완료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선 여성 소득과 출산과의 정의 관계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표 5-4>는 2013년의 25~44세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여성의 소득은 부의 상관 관계를, 남성 소득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 소득은 출산 확률을 5% 감소시키며, 남성 소득은 출산 확률을 6% 증가시키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택소유의 경우 출산 확률을 47% 증가시켰다. 여성의 학력 수준과 남성의 학력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의 상용직 근로자 여부에서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기타 직종에서 오즈비가 1.2로 출산 확률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거주의 경우 비도시 대비 오즈비가 0.83으로 출산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여성 연령은 출산 확률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출산 확률을 10% 증가시켰다.

<표 5-5>는 25~34세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연령대와 유사하게 여성 소득은 부의 관계를 남성 소득은 정의 관계를 보였다. 남성 소득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출산 확률을 5%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소유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용직 여부에 있어 여성과 남성 모두 비상용직인 경우가 출산 확률을 각각 51%, 5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거주가 비도시 거주에 비해 출산 확률을 낮추었다.

<표 5-6>은 35~44세를 분석한 결과로 소득의 경우는 여타 연령대와 동일하게 여성 소득은 출산 확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남성 소득은 출산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남성 소득의 오즈비는 1.06으로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출산 확률이 6%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 연령의 경우 2003년의 해당 연령대와 동일하게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련하여 여성의 취업의 경우는 비취업에 비해 여성 상용직인 경우는 비상용직인 경우보다 출산 확률을 높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1>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03년(25~44세)

	Estimate	Standard Error	Odds Ratio
여성 소득	.0066667	.0071293	1.006689
남성 소득	.0331825**	.0119644	1.033739
거주 형태(vs. 자가)			
전세	.0697957	.1607145	1.072289
월세 등 기타	.2428177	.1689833	1.274836
주택소유 여부(vs. 미소유)			
소유	.4413152**	.1604537	1.554751
여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7133462***	.1082157	.4900018
대학(4년제)	-.6699422***	.0943174	.5117382
대학원 이상	-1.120238***	.2701654	.3262022
남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0256985	.1069687	1.026032
대학(4년제)	.2436125**	.0810414	1.27585
대학원 이상	.4680128**	.1525744	1.596818
여성 취업 여부(vs. 취업)			
비취업	.325019***	.0790972	1.384057
여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상용직)			
비상용직	-	-	-
남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해당)			
비상용직	-	-	-
도시 거주 여부(vs. 비도시)			
도시 거주	.0664014	.0802921	1.068656
여성연령	.0788666***	.0065164	1.08206

주: 1) 표본수(4,434), LR chi2(16) = 377.10, Prob > chi2 = 0.0000, Pseudo R2 = 0.0386

2) † p<0.1, * p<0.05, ** p<0.01, *** p<0.001.

<표 5-2>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03년(25~34세)

	Estimate	Standard Error	Odds Ratio
여성 소득	.006843	.0117681	1.006866
남성 소득	.0496769**	.0188584	1.050932
거주 형태(vs.자가)			
전세	.2296749	.2576032	1.258191
월세 등 기타	.5558659**	.2665358	1.74345
주택소유 여부(vs. 미소유)			
소유	.7150246**	.2532583	2.044237
여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7896199***	.1376506	.4540173
대학(4년제)	-.8066583***	.1323353	.4463471
대학원 이상	-1.745136***	.3762258	.1746212
남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2006365	.1404924	.8182098
대학(4년제)	-.3489433**	.1198714	.7054331
대학원 이상	-.1849773	.2290819	.8311232
여성 취업 여부(vs. 취업)			
비취업	.5312386***	.1264297	1.701038
여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상용직)			
비상용직			
남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해당)			
비상용직			
도시 거주 여부(vs. 비도시)			
도시 거주	-.11979	.1155715	.8871067
여성연령	.3249983***	.0190819	1.384028

주: 1) 표본수(1,997), LR chi2(16) = 534.72, Prob > chi2 = 0.0000, Pseudo R2 = 0.1152

2) † p<0.1, * p<0.05, ** p<0.01, *** p<0.001.

<표 5-3>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03년(35~44세)

	Estimate	Standard Error	Odds Ratio
여성 소득	.0154327†	.0093254	1.015552
남성 소득	.0273969†	.0161514	1.027776
거주 형태(vs. 자가)			
전세	.0808615	.2117349	1.084221
월세 등 기타	.0275244	.226555	1.027907
주택소유 여부(vs. 미소유)			
소유	.2638517	.2146455	1.301935
여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2741174	.1939884	.7602428
대학(4년제)	-.4881973**	.1407655	.6137318
대학원 이상	-.8133909†	.4242074	.4433522
남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1338024	.1817246	1.143167
대학(4년제)	.5479224***	.1162725	1.729656
대학원 이상	.8787169***	.2134978	2.407808
여성 취업 여부(vs. 취업)			
비취업	.1796831†	.1062567	1.196838
여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상용직)			
비상용직			
남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해당)			
비상용직			
도시 거주 여부(vs. 비도시)			
도시 거주	.2541718*	.115765	1.289393
여성연령	-.1237372	.015398	.8836121

주: 1) 표본수(2,437), LR chi2(16) = 125.86, Prob > chi2 = 0.0000, Pseudo R2 = 0.0256

2) † p<0.1, * p<0.05, ** p<0.01, *** p<0.001.

<표 5-4>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13년(25~44세)

	Estimate	Standard Error	Odds Ratio
여성 소득	-.0359203**	.0130351	.9647172
남성 소득	.0623452***	.016143	1.06433
거주 형태(vs.자가)			
전세	.1234496	.185291	1.131393
월세 등 기타	.2250125	.2047373	1.252338
주택소유 여부(vs. 미소유)			
소유	.3833684*	.189024	1.467218
여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1188797	.1033196	.8879146
대학(4년제)	-.0797291	.2582053	.9233665
대학원 이상	.1825469	.6290432	1.20027
남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0968178	.0977406	.9077214
대학(4년제)	-.0155567	.1913712	.9845637
대학원 이상	-.4517748	.3646577	.6364975
여성 취업 여부(vs. 취업)			
비취업	-.0543425	.1685909	.9471076
여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상용직)			
비상용직	.073236	.1190787	1.075984
남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해당)			
비상용직	.1769385†	.0927891	1.193558
도시 거주 여부(vs. 비도시)			
도시 거주	-.183636†	.104356	.8320859
여성연령	.100673***	.0092515	1.105915

주: 1) 표본수(2,357), LR chi2(16) = 210.65, Prob > chi2 = 0.0000, Pseudo R2 = 0.0394

2) † p<0.1, * p<0.05, ** p<0.01, *** p<0.001.

<표 5-5>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13년(25~34세)

	Estimate	Standard Error	Odds Ratio
여성 소득	-.0549882*	.0233093	.9464963
남성 소득	.0508905†	.0297589	1.052208
거주 형태(vs. 자가)			
전세	.0405952	.3566545	1.04143
월세 등 기타	.3370787	.3766531	1.400849
주택소유 여부(vs. 미소유)			
소유	.4841167	.3511382	1.622741
여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1957068	.1675221	.8222533
대학(4년제)	-.3336519	.406336	.7163031
대학원 이상	.1389842	1.803903	1.149106
남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3199785†	.1648535	.7261647
대학(4년제)	-.338265	.36251	.7130063
대학원 이상	-1.207749	.7862845	.2988693
여성 취업 여부(vs. 취업)			
비취업	.0127385	.3187729	1.01282
여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상용직)			
비상용직	.4137277†	.2308008	1.512445
남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해당)			
비상용직	.4260683*	.1678656	1.531225
도시 거주 여부(vs. 비도시)			
도시 거주	-.5857794**	.1775114	.5566718
여성연령	.2357146***	.0322411	1.265813

주: 1) 표본수(790), LR chi2(16) = 161.96, Prob > chi2 = 0.0000, Pseudo R2 = 0.0854

2) † p<0.1, * p<0.05, ** p<0.01, *** p<0.001.

<표 5-6>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13년(35~44세)

	Estimate	Standard Error	Odds Ratio
여성 소득	-.0338391*	.0161373	.966727
남성 소득	.0612422**	.0194105	1.063156
거주 형태(vs.자가)			
전세	.0328902	.2206493	1.033437
월세 등 기타	-.0440844	.2542238	.9568732
주택소유 여부(vs. 미소유)			
소유	.0730574	.2326642	1.075792
여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0805	.1359739	.9226549
대학(4년제)	.2327521	.3463199	1.262069
대학원 이상	.2932527	.7053022	1.340782
남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0551016	.124653	1.056648
대학(4년제)	-.088213	.2328267	.9155658
대학원 이상	-.4369419	.4305756	.646009
여성 취업 여부(vs. 취업)			
비취업	-.2583203	.2053572	.7723478
여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상용직)			
비상용직	-.1791822	.1446881	.8359536
남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해당)			
비상용직	.0089327	.1145365	1.008973
도시 거주 여부(vs. 비도시)			
도시 거주	.0171365	.1317677	1.017284
여성연령	-.0280415	.0186828	.972348

주: 1) 표본수(1,567), LR chi2(16) = 24.55, Prob > chi2 = 0.0782, Pseudo R2 = 0.0075

2) † p<0.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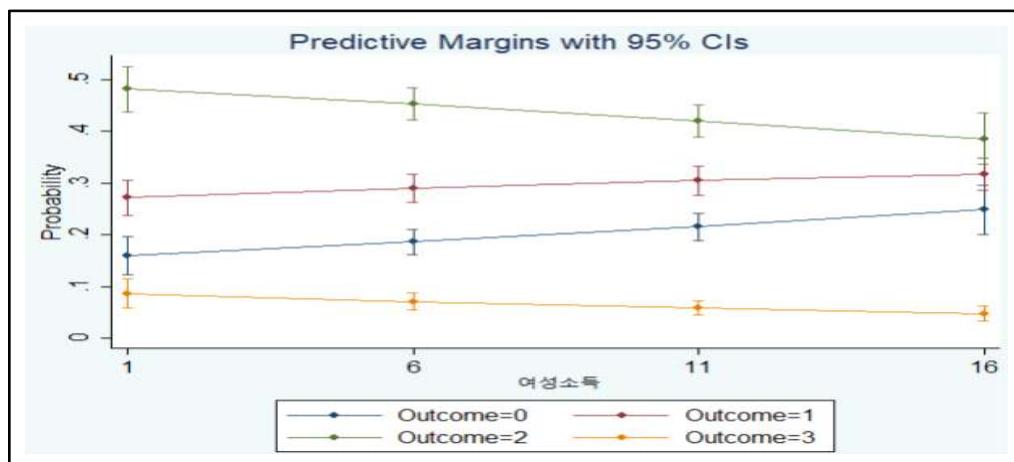
2023년에 사용된 주요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표 5-7>과 같다. 거주 형태별로는 자가의 비중이 57.7%로 전세 및 월세 등 가구에 비해 높았으며, 자녀 수 또한 1.55명으로 전세 1.22명, 월세 등 기타 가구 1.17명에 비해 각각 0.33명, 0.38명 많았다. 주택 소유 여부는 소유 비중이 64.0%로 미소유 비중보다 높았으며, 자녀 수 또한 1.54명으로 미소유 가구보다 0.39명 많았다. 여성 교육 수준별은 대졸(4년제) 비중이 53.3%로 가장 높았으나, 자녀 수에서는 전문대 졸이 1.47명으로 대졸 1.39, 대학원 이상 1.30명보다 많았다. 남성 교육 수준별 또한 대졸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자녀 수는 전문대졸이 1.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 취업 여부별로 보면, 취업 여성의 비중이 59.5%로 미취업 여성보다 비중이 높았으나, 자녀 수는 0.14명 더 적었다. 여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별로 보면, 비상용직 근로자가 59.9%를 차지하였으며 자녀 수 또한 1.46명으로 여성 상용직 근로자 1.32명에 비해 0.14명 많았다. 남성 상용직 근로자는 73.6%를 차지 하였으나 자녀 수는 1.32명으로 비상용직 남성(1.46명)보다 적었다. 도시 여부별 항목에서는 도시 거주 비중이 86.4%로 비도시 거주 비율보다 월등히 많았다. 비도시 가구의 자녀 수가 1.43명으로 도시에 비해 0.03명 많았다. 소득5분위별로 보면, 소득1분위와 2분위는 각각 3.0%, 8.3%로 약 10%를 차지하였으나, 3분위, 4분위, 5분위는 각각 21.2%, 30.3%, 37.3% 비중을 나타내었다. 자녀 수 또한 소득2분위에서 소득5분위로 갈수록 자녀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 연령 비중은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각각 6.2%, 22.4%, 29.6%, 41.8%을 차지하였으며 자녀 수 또한 각각 0.5명, 0.98명, 1.44명, 1.73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졌다.

<표 5-8>은 2023년이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25~44세 연령을 기준으로 한 모형에서 LR 카이 제곱 값이 248.87, 9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여성 소득, 남성 소득, 주택소유 여부, 여성 연령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득의 계수는 -0.04로 자녀 수와 부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여성 소득에 대한 오즈비는 0.96으로 여성 소득이 1단위 증가할수록 자녀 수는 약 4%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남성 소득의 계수는 0.04로 자녀 수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남성 소득에 대한 오즈비는 1.04로 남성 소득이 1단위 증가할수록 자녀 수는 약 4% 증가하는 것으로 여성 소득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주택 소유 여부 변수에서는 주택 소유가 주택 미소유에 비해 자녀 수를 6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충분한 거주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성 연령은 예상대로 자녀 수를 17%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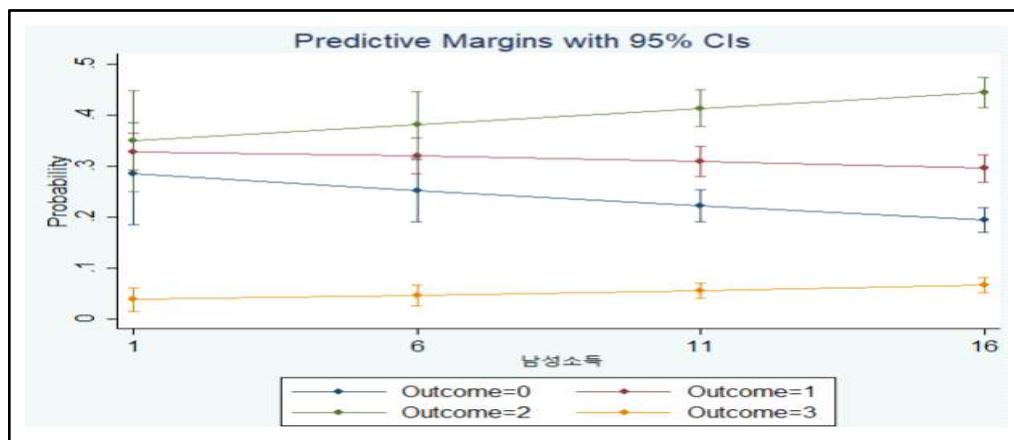
<표 5-9>는 25~34세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성 소득은 오즈비가 0.98로 강한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 상용직의 경우보다 비상용직인 경우 오즈비가 2.35로 출산 확률에 정의 관계를 보였다. 여성 연령은 출산 확률을 25% 증가시키는 정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표 5-10>은 35~44세를 분석한 결과로 주택소유와 여성 연령이 출산 확률을 높이는 정의 관계를 보였 주었다. 소득의 경우 여성의 부의 관계를, 남성은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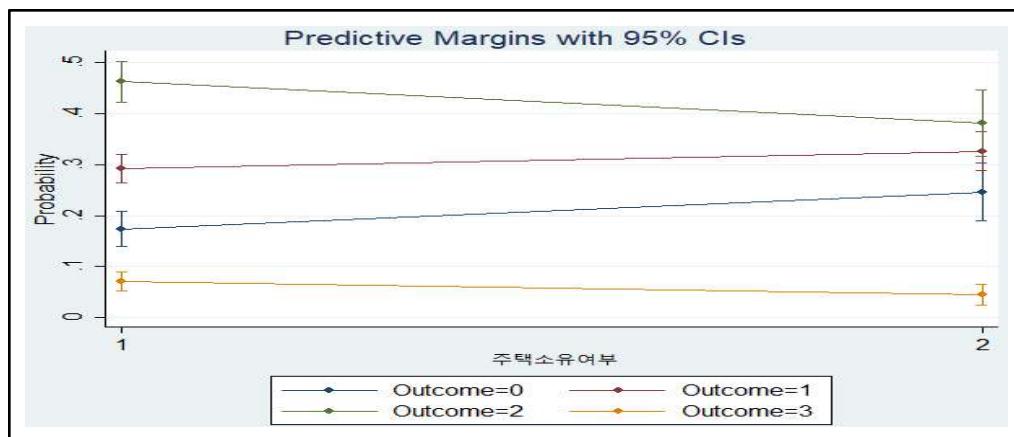
<그림 5-1><그림 5-4>는 전체 2023년 25~44세 연령대를 대상으로 여성 소득, 남성 소득, 주택소유 여부, 여성 연령 변수 각각에 대해 자녀수별 확률을 나타내었다. 여성소득이 증가할수록 두자녀와 다자녀를 가질 확률이 떨어지는 반면, 무자녀와 한자녀를 가질 확률이 증가하였다. 반대로 남성소득이 증가할수록 두자녀와 다자녀를 가질 확률이 증가하는 반면, 무자녀와 한자녀를 가질 확률은 감소하였다. 주택 소유 변수에서는 주택을 소유의 경우(1)가 미소유(2)의 경우보다 두자녀, 다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았다. 여성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자녀와 다자녀를 가질 확률이 증가하였다. 반대로 무자녀를 가질 확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한편, 한자녀는 25세 이후 35세까지 해당 확률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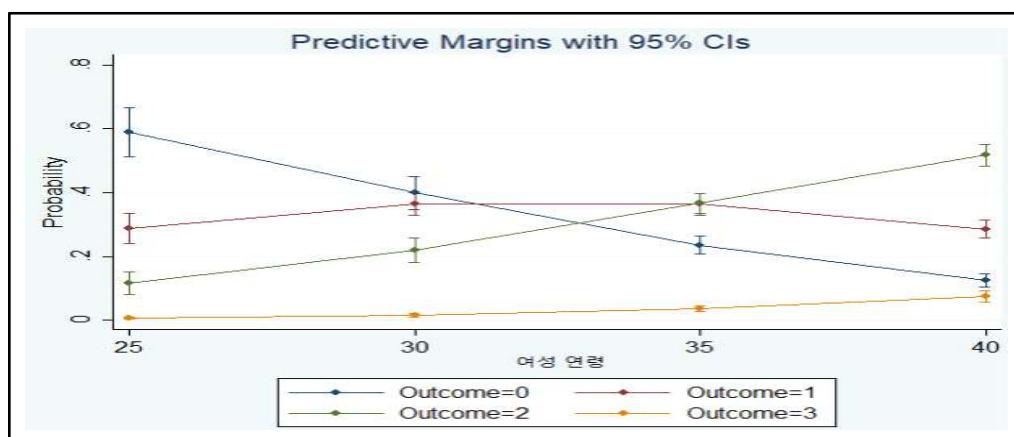
<그림 5-1> 여성소득의 자녀 수 확률 분포



<그림 5-2> 남성소득의 자녀 수 확률 분포



<그림 5-3> 주택소유 여부별 자녀 수 확률 분포



<그림 5-4> 여성 연령의 자녀 수 확률 분포

<표 5-7> 기술통계량: 2023년(25~44세)

	표본 수	비중*	자녀 수
전체	1075	100.0	1.40
거주 형태			
자가	644	57.7	1.55
전세	229	22.8	1.22
월세 등 기타	202	19.5	1.17
주택소유 여부			
소유	710	64.0	1.54
미소유	365	36.0	1.15
여성 교육 수준			
고졸이하	211	20.7	1.39
전문대(2~3년제)	227	19.9	1.47
대학(4년제)	578	53.0	1.39
대학원 이상	59	6.4	1.30
남성 교육 수준			
고졸이하	195	19.8	1.40
전문대(2~3년제)	214	18.9	1.43
대학(4년제)	575	52.9	1.39
대학원 이상	91	8.4	1.41
여성 취업 여부			
취업	624	59.5	1.34
비취업	451	40.5	1.48
여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			
상용직	414	40.1	1.32
비상용직	661	59.9	1.46
남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해당)			
상용직	794	73.6	1.38
비상용직	281	26.4	1.44
도시 거주 여부			
비도시	138	13.7	1.43
도시 거주	937	86.4	1.40
소득 분위			
1분위	31	3.0	1.35
2분위	93	8.3	1.22
3분위	215	21.2	1.24
4분위	341	30.3	1.43
5분위	395	37.3	1.51
여성 연령			
25~29세	76	6.2	0.50
30~34세	237	22.4	0.98
35~39세	311	29.6	1.44
40~44세	451	41.8	1.73

<표 5-8>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23년(25~44세)

	Estimate	Standard Error	Odds Ratio
여성 소득	-.0433382*	.0212427	.9575875
남성 소득	.0394319†	.018031	1.04022
거주 형태(vs. 자가)			
전세	-.0655722	.2690563	.9365314
월세 등 기타	-.3273175	.28137	.7208548
주택소유 여부(vs. 미소유)			
소유	.5023701†	.2676974	1.652634
여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2397645	.1954025	1.27095
대학(4년제)	.0965523	.1845738	1.101367
대학원 이상	-.0983278	.3229024	.9063517
남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159061	.2014832	1.172409
대학(4년제)	.1125436	.1890622	1.119121
대학원 이상	.2421893	.2754811	1.274035
여성 취업 여부(vs. 취업)			
비취업	-.1498902	.2534937	.8608025
여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상용직)			
비상용직	.0317761	.1737583	1.032286
남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해당)			
비상용직	.1113225	.1508218	1.117755
도시 거주 여부(vs. 비도시)			
도시 거주	-.1675824	.1786749	.8457069
여성연령	.1610547***	.0135831	1.174749

주: 1) 표본수(1,075), LR chi2(16) = 248.87, Prob > chi2 = 0.0000, Pseudo R2 = 0.0949

2) † p<0.1, * p<0.05, ** p<0.01, *** p<0.001.

<표 5-9>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23년(25~34세)

	Estimate	Standard Error	Odds Ratio
여성 소득	-.0968722**	.032558	.907672
남성 소득	.034444	.0350006	1.035044
거주 형태(vs. 자가)			
전세	-.1467722	.4834041	.8634907
월세 등 기타	-.6643212	.5440543	.5146227
주택소유 여부(vs. 미소유)			
소유	.3665665	.4850701	1.442772
여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1768942	.3690423	1.193505
대학(4년제)	-.3962549	.3506112	.6728352
대학원 이상	.2497029	.6355946	1.283644
남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4071984	.3663411	.6655121
대학(4년제)	-.1852226	.337774	.8309193
대학원 이상	-.094516	.539709	.9098131
여성 취업 여부(vs. 취업)			
비취업	-.8547431†	.4798865	.4253925
여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상용직)			
비상용직	.8550622*	.3711586	2.351521
남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해당)			
비상용직	.3051826	.2999171	1.356873
도시 거주 여부(vs. 비도시)			
도시 거주	-.4482808	.350961	.6387253
여성연령	.2198476***	.0517355	1.245887

주: 1) 표본수(313), LR chi2(16) = 80.37, Prob > chi2 = 0.0000, Pseudo R2 = 0.1127

2) † p<0.1, * p<0.05, ** p<0.01, *** p<0.001.

<표 5-10> 로짓 분석 추정 결과: 2023년 (35~44세)

	Estimate	Standard Error	Odds Ratio
여성 소득	-.0191628	.0223385	.9810197
남성 소득	.043952	.0279919	1.044932
거주 형태(vs. 자가)			
전세	.0273298	.3399703	1.027707
월세 등 기타	-.1612482	.3404776	.8510808
주택소유 여부(vs. 미소유)			
소유	.6063166 [†]	.3347668	1.833665
여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2034181	.2360987	1.225585
대학(4년제)	.198738	.2246315	1.219862
대학원 이상	-.2716416	.3790678	.7621274
남성 교육 수준(vs. 고졸 이하)			
전문대(2~3년제)	.403871	.2469606	1.497611
대학(4년제)	.2590537	.2319862	1.295703
대학원 이상	.3357607	.329193	1.399004
여성 취업 여부(vs. 취업)			
비취업	.0725996	.3066734	1.0753
여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상용직)			
비상용직	-.2343418	.2004917	.7910913
남성 상용직 근로자 여부(vs. 해당)			
비상용직	.0086473	.1759722	1.008685
도시 거주 여부(vs. 비도시)			
도시 거주	-.111613	.2116688	.8943903
여성연령	.0963762***	.0255126	1.101173

주: 1) 표본수(762), LR chi2(16) = 50.19, Prob > chi2 = 0.0000, Pseudo R2 = 0.0288

2) † p<0.1, * p<0.05, ** p<0.01, *** p<0.001.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소득에 따른 출산 격차를 가계동향조사의 자녀 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소득과 가구의 경제사회적 변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으나, 출산력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조사가 아니어서 자녀 수를 통한 분석에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03~2023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출산 격차와 관련한 여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혼 출산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적으며 전통적인 유배우 출산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유배우 가구를 통한 출산 격차 분석은 많은 의의를 가진다. 기술 통계 부분의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결혼과 관련한 유배우 가구의 비중 축소와 이와 더불어 유배우 가구의 출산율 저하와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배우자 가구 비중은 '03년 55.3%에서 '23년 18.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자녀 수는 '03년 1.78명에서 '15년 1.76명으로 1.75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19년 이후 1.54명, '23년 1.43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자녀 수 감소와 더불어 주목할 변화는 무자녀 비중의 급격한 증가라 할 수 있다. 자녀 수 비중을 보면, 2015년 이후 두자녀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한자녀와 무자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무자녀 비중은 '03~'15년 1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3년 17.7%로 증가하였다. 출산 완결 연령대인 35~44세 구간에서도 무자녀 비율은 '03년 6.0%에서 9.7%로 증가하고 있어 유배우자 가구에서의 출산 기피가 전반적 경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 결혼 장벽의 해소와 더불어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무자녀에서 한자녀로 이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집중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셋째, 소득과 자녀 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부문 결과를 보면, 예상한 대로 소득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소득 4분위와 5분위의 자녀 수는 평균보다 높았으며, 소득 1~3분위는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다만, 소득 분위에 따른 출산 격차는 세부 연령대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출산이 진행 중인 25~34세 연령대에서는 소득 분위별로 자녀 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소득 상위 계층 가구를 구성하는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적 여성들이 본인들의 커리어를 위해 출산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출산이 완료되는 연령대인 35~44세 연령대에서는 소득과 자녀 수는 정의 상관관계

를 보이며 특히, 2021년 이후 3~5분위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는 소득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인다.

넷째,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변수들은 자녀 수와 부의 관계를 보였다. 맞벌이별 자녀 수에서는 비맞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자녀 수가 많았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 자녀 수에서도 미취업 여성 가구가 취업 여성 가구보다 자녀 수가 많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자녀 출산과 일반적으로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현식(2017)은 소득과 차별 출산력 연구 관련 둘째 자녀 출산 모형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부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교육 수준별 자녀 수는 해당 연구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전문대졸이 대졸과 대학원 이상 학력보다 자녀 수가 많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학력 수학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 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주택 소유는 자녀 출산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23년 기준 주택 소유 가구의 자녀 수는 1.54명으로 미소유 가구 1.15명보다 0.39명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03년 시계열 이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과 출산에 있어 안정적이고 충분한 주거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자가 거주의 경우가 전세 및 월세 거주 가구보다 자녀 수가 많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에 있어, 남성소득이 자녀 수에 정의 영향을 여성 소득이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은 자녀 출산 시기에 여성이 비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러 출산 지원 정책이 일부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중소기업 단위에서는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가 힘들다는 여러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책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자녀 출산을 위해 경력단절이 아닌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한 경력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의 고학력 수준이 과거에는 출산 확률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최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성의 커리어 획득을 위해 양육의 분담이 당연히 되어가고 있는 만큼 사회적 시스템 또한 갖춰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득에 따른 출산 격차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를 지닌다. 특히 자료 활용 측면에서 여성 가구원의 자녀 출생 정보, 패널 자료의 부재 등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출산 모형 등 연구 모형의 정합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조사 자료 연계, 여타 보건복지부 출산력조사, 재정 패널 등 다양한 자료 검토를 통한 연구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진행될 소득과 자산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의 디딤돌이 되고 아울러 정책 마련을 위한 주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계봉오·김영미. (2014). 한국여성의 결혼, 출산 및 경제활동 참가 형태에 대한 연구 : 다중상태 생명표(Multi-state life table) 적용. *사회연구*, 15(1), 79-113.
- 계봉오·유삼현·최슬기. (2022). 유배우 출산율 변화, 2005~202: 혼인지속 기간 접근, *한국인구학 제45권 제4호(2022년)*, pp.71~92.
- 곽은혜. (2022). 육아휴직급여 확대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45(3), 43-69.
- 김두섭.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67-95.
- 김사현. (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36(2), 113-137.
- 김승권, 최병호, 정경희, 이삼식, 박덕규, 박인화, 장지연. (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미.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59, 103-152.
- 김인경. (2017).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 *KDI 연구보고서 2017-06*.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김정호·홍석철. (2020).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 지원의 효과 비교: 출산 및 모의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3(1), 1-29.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한국인구학*, 29(1), 1-23.
- 김현숙. (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에 관한 Count 모형 분석 및 경제적 함의. *한국인구학*, 30(3), 107-135.
- 김현식. (2017).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한국인구학*, 40(3), 51-78.
- 류기철·박영화. (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32(1), 1-23.
- 민현주. (2012). 자녀출산과 양육시기동안의 여성취업 유형화: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의 적용. *한국사회학*, 46(2), 61-87.
- 민현주·김은지. (2011). 출산순위별 출산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45(4), 198-222.
- 배은경. (2021). ‘저출생’의 문제제기를 통해 본 한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 재생 산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검토. *페미니즘연구*, 21(2), 137-186.
- 배호중·한창근. (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204-238.
- 배호중·한창근·양은모. (2017). 친정과의 거리와 자녀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37(2), 5-40.
- 신윤정. (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 신형섭·정의철. (2021). 주택점유형태가 신혼가구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연구*, 29(1), 5-32.

- 유삼현, 이도훈, 김영미, 김근태, 황선재, 계봉오. (2020). 최근 출생아수하락 원인 분석과 인구 구조 변화의 파급효과 분석.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
- 유진성.(2022). 소득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과학연구*, p233~258.
- 은기수. (1997). 한국 인구의 변동. *한국사회사학회 편*, 한국 현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지성사.
- 은기수. (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한국사회학*, 35(6), 105-139.
- 은기수. (2018). 한국 기혼여성의 일의 연쇄와 출산력. *한국인구학*, 41(1), 79-108.
- 원숙연·최윤희. (2018).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출산율의 영향요인 - 자녀에 대한 비용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7(3), 231-268.
- 이병호. (2020). 제2차 인구변천 이론, 1986-2020: 특징, 논쟁, 함의. *한국인구학*, 43(4), 37-68.
- 이성우, 민성희, 박지영, 윤성도. (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 이삼식·최효진. (2014). 가임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4), 153-184.
- 이순미. (2014). 가구생계부양 유형의 변화와 여성 내부의 계층화. *한국여성학*, 30(2), 1-52.
- 이인숙. (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 이철희. (2023). 1992~2021년 한국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석: 여성인구, 결혼, 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 임병인, 이지민. (2020).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출생아 수 제고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38(3), 43-64.
- 임보영·강정구·마강래. (2018).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53(1), 137-151.
- 주익현. (2023). 모성보호제도 사용의 기혼여성 임금근로자 출산 효과: 출생순서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3(3), 202-226.
- Abbott, A. (1995). Sequence analysis: New methods for old idea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1(1), 93-113.
- Baudin, T., De La Croix, D., & Gobbi, P. E. (2015). Fertility and childlessnes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5(6), 1852-1882.
- Becker, G.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p. 209-240).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cker, G. (1993). Nobel lecture: The economic way of looking at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3), 385-409.
- Becker, G., & Lewis, H.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art 2), S279-S288.
- Blair-Loy, M. (2009). *Competing Devotions: Career and Family Among Women Executive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Blau, D. & Robins, P. (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26, 287-299.
- Buckles, K., Guldi, M., & Schmidt, L. (2019). *Fertilit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1980-2017: The role of unintended births*. NBER Working Paper 25521.
- Doepke, M., & Kindermann, F. (2019). Bargaining over babies: Theory, evidence, and policy

- implic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109(9), 3264-3306.
- Doepke, M., & Tertilt, M. (2018). Women's empowerment, the gender gap in desired fertility, and fertility outcom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AEA Papers and Proceedings*, 108, 358-362.
- Doepke, M., Hannusch, A., Kindermann, F., & Tertilt, M. (2022). *The economics of fertility: A new era*. NBER Working Paper 29948.
- Doliger, C. (2004). The Easterlin Hypothesis. *Historical Social Research/Historische Sozialforschung*, 205-212.
- Easterlin, R. A. (1978).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Fertility: A Synthesis*, in Charles Tilly(ed.), *Historical Studies of Changing Fertil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lder, G. (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15.
- Ermisch, J. F. (1989). Purchased child care, optimal family size and mother's employment Theory and econometric analysi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2), 79-102.
- Felmlee, D. (1993). The dynamic interdependence of women' s employment and fertility. *Social Science Research*, 22(4), 333-360.
- Fomby, P., & Osborne, C. (2017). Family instability, multipartner fertility, and behavior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9(1), 75-93.
- Freedman, D. S. and A. Thornton. (1982). *Income and Fertility: The Elusive Relationship*.
- Fulop, M. (1977). A Survey of the Literature on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r, *The American Economist*, 21(1), 5-13
- Gauthier, A. & Hatzius, J.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 295-306.
- Goldin, C. (2021). *Career and Family: Women's Century-Long Journey Toward Equity*. Lond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ppel, S., Hill, J., & Low, S. (1984). An economic analysis of the timing of childbirth. *Population Studies*, 38, 299-311.
- Hazan, M., & Zoabi, H. (2015). Do highly educated women choose smaller families?. *The Economic Journal*, 125(587), 1191-1226.
- Heckman, J., & Walker, J.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s and income and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Evidence from Swedish longitudinal data.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411-1441.
- Lesthaeghe, R., & Surkyn, J. (1988).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1).
-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Macunovich, D. (1996). Relative Income and Price of Time: Exploring Their Effects on US Fertility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 223-257.
- Macunovich, D. J. (1998). Fertility and the Easterlin hypothesis: An assessment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1, 53-111.
- McDonald, P. (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 development review, 485-510.
- Raymo, J. , Park, H., Xie, Y., & Yeung, W. (2015). Marriage and family in East Asia: Continuity and chan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41, 471-492.
- Rindfuss, R. R., Morgan, S. P., & Offutt, K. (1996). Education and the changing age pattern of American fertility: 1963–1989. *Demography*, 33(3), 277-290.
- Robinson, W. (1997).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over three decades. *Population studies*, 51(1), 63-74.
- Smock, P. & Schwartz, C. (2020). The demography of families: A review of patterns and 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1), 9-34.
- Torr, B. M. (2011).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1940–2000. *Journal of family history*, 36(4), 483-503.
- Van de Kaa, D.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부 록

<부표 1> 유배우자 가구 소득5분위별 표본 수

(단위: 가구 수)

	전체가구	유배우자 가구(25~44세)					
		소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3	8,045	4,434	480	879	1002	1082	991
2004	7,727	3,953	421	762	918	947	905
2005	8,028	3,892	411	733	904	930	914
2006	9,392	3,657	193	536	909	997	1022
2007	7,823	2,856	129	392	685	832	818
2008	7,740	2,733	88	373	626	824	822
2009	7,723	2,748	84	345	673	820	826
2010	7,770	2,768	97	346	709	868	748
2011	7,732	2,653	96	335	715	777	730
2012	7,599	2,500	72	312	690	738	688
2013	7,523	2,357	65	270	634	724	664
2014	7,168	2,153	54	228	566	670	635
2015	7,158	1,936	44	219	494	610	569
2016	6,956	1,727	31	176	426	555	539
2017	4,145	958	23	75	208	344	308
2018	6,610	1,273	24	110	285	428	426
2019	4,032	734	19	47	168	254	246
2020	5,517	1,036	24	94	212	347	359
2021	5,860	1,032	31	95	243	315	348
2022	5,959	1,061	18	94	234	334	381
2023	6,168	1,075	31	93	215	341	395

<부표 2> 유배우자 가구(25~44세) 소득5분위별 자녀 수 및 표본 수

(단위: 명, 가구 수)

	자녀 수						표본 수					
	소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3	1.78	1.63	1.70	1.77	1.82	1.90	4434	480	879	1002	1082	991
2004	1.78	1.66	1.72	1.77	1.81	1.85	3953	421	762	918	947	905
2005	1.79	1.76	1.76	1.72	1.81	1.86	3892	411	733	904	930	914
2006	1.77	1.59	1.66	1.76	1.80	1.84	3657	193	536	909	997	1022
2007	1.74	1.64	1.68	1.72	1.76	1.79	2856	129	392	685	832	818
2008	1.77	1.89	1.74	1.77	1.77	1.79	2733	88	373	626	824	822
2009	1.77	1.83	1.71	1.78	1.81	1.73	2748	84	345	673	820	826
2010	1.78	1.55	1.65	1.79	1.83	1.81	2768	97	346	709	868	748
2011	1.79	1.72	1.67	1.77	1.83	1.83	2653	96	335	715	777	730
2012	1.72	1.96	1.50	1.68	1.81	1.70	2500	72	312	690	738	688
2013	1.73	1.38	1.72	1.73	1.79	1.70	2357	65	270	634	724	664
2014	1.73	1.77	1.68	1.74	1.70	1.77	2153	54	228	566	670	635
2015	1.76	1.35	1.80	1.74	1.76	1.82	1936	44	219	494	610	569
2016	1.79	1.93	1.51	1.78	1.73	1.93	1727	31	176	426	555	539
2017	1.68	2.40	1.42	1.68	1.69	1.68	958	23	75	208	344	308
2018	1.72	1.52	1.30	1.70	1.81	1.74	1273	24	110	285	428	426
2019	1.54	1.62	1.57	1.43	1.63	1.51	734	19	47	168	254	246
2020	1.56	1.27	1.48	1.37	1.67	1.60	1036	24	94	212	347	359
2021	1.54	1.39	1.28	1.45	1.54	1.67	1032	31	95	243	315	348
2022	1.54	1.74	1.27	1.35	1.59	1.65	1061	18	94	234	334	381
2023	1.43	1.37	1.31	1.25	1.45	1.53	1075	31	93	215	341	395

<부표 3> 유배우자 가구(25~34세) 소득5분위별 자녀 수 및 표본 수

(단위: 명, 가구 수)

	자녀 수						표본 수					
	소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3	1.54	1.57	1.52	1.55	1.52	1.56	1997	248	428	493	454	374
2004	1.49	1.37	1.47	1.54	1.55	1.43	1653	171	370	424	364	324
2005	1.51	1.64	1.56	1.48	1.49	1.47	1550	162	320	403	359	306
2006	1.47	1.53	1.46	1.47	1.48	1.46	1440	81	248	403	380	328
2007	1.42	1.28	1.49	1.47	1.39	1.39	1052	38	171	278	306	259
2008	1.40	1.55	1.43	1.46	1.32	1.40	983	27	153	244	317	242
2009	1.39	1.35	1.28	1.47	1.49	1.28	1014	30	134	276	299	275
2010	1.37	1.01	1.28	1.46	1.41	1.32	1004	41	142	285	315	221
2011	1.37	1.60	1.16	1.40	1.41	1.36	912	38	121	268	284	201
2012	1.35	1.40	1.29	1.39	1.44	1.19	833	21	120	263	232	197
2013	1.39	1.19	1.48	1.51	1.47	1.17	790	24	103	246	229	188
2014	1.36	1.64	1.49	1.46	1.19	1.33	712	23	87	204	217	181
2015	1.45	1.18	1.37	1.34	1.46	1.64	610	17	83	174	193	143
2016	1.36	1.78	0.97	1.45	1.26	1.53	497	18	67	140	152	120
2017	1.32	3.00	1.52	0.93	1.52	1.19	240	7	20	62	81	70
2018	1.25	1.00	1.20	1.14	1.54	1.09	332	7	33	87	109	96
2019	1.07	0.29	0.91	1.14	1.16	0.98	227	6	14	71	72	64
2020	1.21	1.25	1.29	1.00	1.42	1.10	289	10	37	74	95	73
2021	1.10	1.16	0.81	1.04	1.17	1.17	295	6	34	79	84	92
2022	1.06	1.20	1.03	1.03	1.11	1.04	308	4	38	78	94	94
2023	0.87	1.22	0.77	0.92	0.77	0.90	313	13	32	74	98	96

<부표 4> 유배우자 가구(35~44세) 소득5분위별 자녀 수 및 표본 수

(단위: 명, 가구 수)

	자녀 수						표본 수					
	소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3	1.97	1.69	1.86	1.97	2.04	2.11	2437	232	451	509	628	617
2004	1.98	1.84	1.94	1.96	1.96	2.09	2300	250	392	494	583	581
2005	1.96	1.85	1.89	1.90	2.01	2.06	2342	249	413	501	571	608
2006	1.95	1.64	1.80	1.97	2.00	2.01	2217	112	288	506	617	694
2007	1.92	1.80	1.82	1.88	1.97	1.98	1804	91	221	407	526	559
2008	1.96	1.99	1.91	1.96	2.01	1.94	1750	61	220	382	507	580
2009	1.96	2.00	1.94	1.97	1.96	1.95	1734	54	211	397	521	551
2010	1.98	1.80	1.85	1.99	2.02	2.00	1764	56	204	424	553	527
2011	1.98	1.75	1.89	1.96	2.01	2.01	1741	58	214	447	493	529
2012	1.89	2.08	1.64	1.85	1.97	1.88	1667	51	192	427	506	491
2013	1.89	1.48	1.87	1.86	1.92	1.93	1567	41	167	388	495	476
2014	1.90	1.84	1.81	1.89	1.92	1.91	1441	31	141	362	453	454
2015	1.89	1.45	2.01	1.91	1.88	1.87	1326	27	136	320	417	426
2016	1.92	2.17	1.77	1.95	1.87	2.00	1230	13	109	286	403	419
2017	1.75	2.26	1.39	1.85	1.72	1.78	718	16	55	146	263	238
2018	1.84	1.65	1.36	1.86	1.87	1.87	941	17	77	198	319	330
2019	1.75	1.91	1.75	1.64	1.81	1.73	507	13	33	97	182	182
2020	1.69	1.29	1.59	1.55	1.75	1.74	747	14	57	138	252	286
2021	1.71	1.46	1.49	1.66	1.67	1.85	737	25	61	164	231	256
2022	1.72	1.85	1.43	1.51	1.78	1.84	753	14	56	156	240	287
2023	1.65	1.56	1.54	1.45	1.70	1.72	762	18	61	141	243	299

<부표 5> 소득분위별 자녀 수 비중

(단위:%)

			2003	2008	2013	2019	2023
25~34세	1분위	무자녀	11.5	3.9	28.2	71.0	31.8
		한자녀	33.7	44.4	43.8	29.0	20.2
		두자녀	47.9	45.3	17.9	0.0	46.5
		다자녀	6.8	6.5	10.1	0.0	1.6
	2분위	무자녀	16.0	12.4	12.0	28.3	36.0
		한자녀	24.7	43.3	33.2	51.9	51.2
		두자녀	54.0	38.5	49.2	19.8	12.8
		다자녀	5.3	5.8	5.6	0.0	0.0
	3분위	무자녀	11.1	13.5	12.6	21.0	34.3
		한자녀	31.4	34.5	35.7	51.7	41.0
		두자녀	49.7	45.2	45.5	22.3	23.4
		다자녀	7.8	6.7	6.2	5.0	1.3
	4분위	무자녀	13.3	22.3	12.7	16.1	40.2
		한자녀	31.1	30.3	34.5	55.4	43.8
		두자녀	48.0	43.2	43.7	25.5	15.0
		다자녀	7.6	4.2	9.1	3.1	1.0
	5분위	무자녀	14.3	19.0	24.1	30.6	40.0
		한자녀	25.7	33.1	36.2	41.2	34.2
		두자녀	51.7	40.4	35.3	27.7	21.5
		다자녀	8.3	7.5	4.4	0.5	4.3
35~44세	전체	무자녀	13.3	17.4	16.1	23.8	37.7
		한자녀	29.1	34.3	35.5	49.0	39.5
		두자녀	50.4	42.4	41.8	24.5	20.8
		다자녀	7.2	6.0	6.6	2.7	2.0
	1분위	무자녀	18.9	17.0	27.9	4.0	16.3
		한자녀	25.2	13.7	29.8	14.5	30.9
		두자녀	47.8	51.7	42.3	67.6	33.5
		다자녀	8.1	17.7	0.0	13.9	19.3
	2분위	무자녀	10.0	6.6	8.9	15.4	17.0
		한자녀	20.3	24.7	22.1	13.1	38.5
		두자녀	58.1	60.7	51.1	52.2	35.4
		다자녀	11.6	7.9	17.9	19.3	9.0
	3분위	무자녀	4.7	5.2	4.8	15.4	17.8
		한자녀	19.3	18.5	20.5	18.6	31.6
		두자녀	64.8	61.8	65.0	55.8	41.7
		다자녀	11.3	14.5	9.8	10.2	8.9
	4분위	무자녀	2.0	4.6	2.1	4.0	6.8
		한자녀	15.1	13.6	21.7	26.5	26.4
		두자녀	72.1	69.3	63.1	56.7	59.7
		다자녀	10.8	12.5	13.2	12.8	7.1
	5분위	무자녀	3.4	3.3	2.0	9.2	6.2
		한자녀	11.9	19.4	21.3	21.6	25.7
		두자녀	67.7	66.6	64.0	59.8	60.8
		다자녀	16.9	10.7	12.7	9.4	7.3
	전체	무자녀	6.0	5.0	3.9	8.9	9.7
		한자녀	17.2	17.9	21.5	21.8	28.1
		두자녀	64.5	65.1	62.2	57.7	54.3
		다자녀	12.3	11.9	12.4	11.6	7.9

25~44세	1분위	무자녀	15.4	13.9	28.0	16.3	24.6
		한자녀	29.3	21.0	35.4	17.2	25.1
		두자녀	47.9	50.1	32.5	55.2	40.5
		다자녀	7.5	15.0	4.0	11.4	9.8
	2분위	무자녀	12.8	8.7	10.0	18.3	22.8
		한자녀	22.4	31.5	26.1	21.7	42.4
		두자녀	56.2	52.6	50.4	45.1	28.5
		다자녀	8.7	7.1	13.5	15.0	6.3
	3분위	무자녀	7.6	8.4	7.7	17.7	23.9
		한자녀	24.9	24.5	26.2	32.2	35.1
		두자녀	57.8	55.5	57.6	42.0	35.0
		다자녀	9.7	11.5	8.4	8.1	6.1
	4분위	무자녀	6.8	10.8	5.1	7.3	15.7
		한자녀	21.8	19.4	25.2	34.4	31.0
		두자녀	61.9	60.2	57.6	48.2	47.9
		다자녀	9.5	9.6	12.1	10.1	5.5
전체	5분위	무자녀	7.6	7.7	8.0	15.3	14.1
		한자녀	17.2	23.2	25.3	27.2	27.7
		두자녀	61.6	59.3	56.3	50.6	51.7
		다자녀	13.6	9.8	10.5	6.9	6.6

<부표 6> 소득5분위-자녀수별 비율(25~44세)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분위 (=100)	무자녀	15.4	13.9	10.4	16.8	13.4	13.9	13.9	17.2	15.3	11.9	28.0
	한자녀	29.3	27.2	28.8	32.2	37.4	21.0	26.7	26.2	28.9	31.0	35.4
	두자녀	47.9	53.4	50.8	44.8	46.4	50.1	44.3	49.8	47.8	49.0	32.5
	다자녀	7.5	5.5	10.0	6.2	2.8	15.0	15.2	6.8	8.0	8.1	4.0
2분위 (=100)	무자녀	12.8	11.6	10.2	12.2	13.0	8.7	10.8	13.2	11.9	15.9	10.0
	한자녀	22.4	25.3	24.2	30.5	28.0	31.5	28.2	26.4	31.7	29.8	26.1
	두자녀	56.2	53.4	54.8	47.6	50.1	52.6	49.3	50.6	44.7	43.8	50.4
	다자녀	8.7	9.8	10.7	9.8	9.0	7.1	11.7	9.9	11.7	10.5	13.5
3분위 (=100)	무자녀	7.6	9.3	8.8	10.4	11.2	8.4	7.0	8.6	9.4	9.4	7.7
	한자녀	24.9	22.3	27.2	26.2	24.9	24.5	27.0	23.7	23.5	25.5	26.2
	두자녀	57.8	58.2	54.7	53.3	53.8	55.5	56.6	57.3	56.6	55.0	57.6
	다자녀	9.7	10.2	9.3	10.1	10.1	11.5	9.4	10.4	10.5	10.1	8.4
4분위 (=100)	무자녀	6.8	8.4	9.5	8.5	9.7	10.8	6.8	9.3	8.4	6.1	5.1
	한자녀	21.8	22.1	19.8	20.3	24.3	19.4	23.6	19.1	24.4	22.0	25.2
	두자녀	61.9	58.7	60.3	60.7	57.4	60.2	58.0	58.7	57.8	61.5	57.6
	다자녀	9.5	10.8	10.4	10.6	8.6	9.6	11.5	12.9	9.4	10.4	12.1
5분위 (=100)	무자녀	7.6	8.9	8.6	8.0	8.7	7.7	10.2	6.8	8.3	8.8	8.0
	한자녀	17.2	19.4	20.9	20.7	23.7	23.2	20.1	23.5	21.2	23.9	25.3
	두자녀	61.6	60.3	58.0	60.1	56.6	59.3	61.5	59.7	59.3	56.7	56.3
	다자녀	13.6	11.3	12.6	11.3	11.0	9.8	8.2	10.0	11.2	10.6	10.5
전체	무자녀	9.2	9.9	9.3	9.8	10.4	9.1	8.6	9.2	9.3	9.0	7.7
	한자녀	22.4	22.6	23.5	23.9	25.3	23.4	24.0	22.6	24.2	24.6	25.9
	두자녀	58.3	57.4	56.5	56.0	54.8	57.6	57.3	57.4	56.1	56.1	55.8
	다자녀	10.1	10.1	10.7	10.3	9.5	9.9	10.1	10.9	10.4	10.3	10.6

<부표 6> 소득5분위-자녀수별 비율(25~44세) (계속)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위 (=100)	무자녀	11.5	24.1	17.9	1.9	22.9	16.3	32.3	19.2	10.2	24.6
	한자녀	25.1	23.6	25.6	19.6	23.6	17.2	15.9	33.5	35.0	25.1
	두자녀	56.3	45.2	52.2	67.4	36.1	55.2	47.0	41.4	25.1	40.5
	다자녀	7.1	7.1	4.3	11.2	17.5	11.4	4.8	6.0	29.7	9.8
2분위 (=100)	무자녀	14.1	14.4	21.2	25.6	12.2	18.3	18.3	25.5	24.7	22.8
	한자녀	29.5	30.8	29.6	27.8	37.5	21.7	28.5	29.8	30.4	42.4
	두자녀	45.0	43.9	41.9	28.6	41.2	45.1	42.1	40.8	38.9	28.5
	다자녀	11.4	11.0	7.3	18.0	9.1	15.0	11.2	3.8	5.9	6.3
3분위 (=100)	무자녀	8.3	10.9	9.5	9.7	8.4	17.7	16.4	16.0	16.9	23.9
	한자녀	29.5	27.7	32.4	34.5	36.7	32.2	41.0	35.3	37.5	35.1
	두자녀	51.0	50.4	46.0	44.9	45.0	42.0	32.3	39.7	41.5	35.0
	다자녀	11.2	11.0	12.2	10.9	9.9	8.1	10.3	9.1	4.1	6.1
4분위 (=100)	무자녀	9.1	7.9	8.4	7.4	9.9	7.3	9.1	9.2	15.1	15.7
	한자녀	23.5	25.8	27.1	28.4	28.0	34.4	30.6	40.1	26.3	31.0
	두자녀	55.6	57.6	53.7	54.7	50.8	48.2	48.0	41.7	48.2	47.9
	다자녀	11.8	8.7	10.8	9.5	11.2	10.1	12.2	9.0	10.3	5.5
5분위 (=100)	무자녀	9.2	9.4	9.0	8.5	8.0	15.3	9.7	12.3	10.0	14.1
	한자녀	23.7	22.8	22.8	27.2	28.0	27.2	30.0	23.7	28.0	27.7
	두자녀	57.4	58.7	57.7	51.6	53.6	50.6	53.0	53.2	52.9	51.7
	다자녀	9.8	9.1	10.6	12.8	10.4	6.9	7.3	10.9	9.0	6.6
전체	무자녀	9.5	10.1	10.1	9.4	9.3	13.5	12.1	13.6	14.4	17.7
	한자녀	25.7	25.8	27.2	29.1	30.6	30.1	32.0	32.4	29.8	31.4
	두자녀	54.0	54.6	52.1	50.0	49.5	47.6	46.1	45.0	47.3	44.7
	다자녀	10.9	9.5	10.7	11.5	10.6	8.8	9.8	9.0	8.4	6.2

<부표 7> 소득5분위-자녀수별 비율(25~34세)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분위 (=100)	무자녀	11.5	20.0	10.5	10.6	7.7	3.9	17.0	29.1	22.3	19.0	28.2
	한자녀	33.7	28.1	28.6	38.2	58.6	44.4	40.2	32.8	32.0	38.8	43.8
	두자녀	47.9	47.7	50.4	43.3	31.6	45.3	42.8	36.5	41.2	36.5	17.9
	다자녀	6.8	4.1	10.5	7.9	2.1	6.5	0.0	1.6	4.5	5.7	10.1
2분위 (=100)	무자녀	16.0	14.9	12.6	19.0	14.1	12.4	18.7	26.3	19.4	24.8	12.0
	한자녀	24.7	31.2	28.3	27.3	30.3	43.3	41.8	30.1	49.3	39.5	33.2
	두자녀	54.0	47.0	51.1	45.6	50.7	38.5	33.9	41.3	28.0	29.8	49.2
	다자녀	5.3	7.0	8.1	8.0	4.8	5.8	5.5	2.3	3.4	5.8	5.6
3분위 (=100)	무자녀	11.1	14.4	12.9	16.2	16.4	13.5	10.2	14.4	17.2	17.6	12.6
	한자녀	31.4	26.7	34.8	32.4	31.7	34.5	40.0	32.5	34.4	33.9	35.7
	두자녀	49.7	51.3	45.5	44.6	45.9	45.2	43.9	47.2	44.0	43.1	45.5
	다자녀	7.8	7.5	6.7	6.8	6.0	6.7	5.9	5.9	4.4	5.4	6.2
4분위 (=100)	무자녀	13.3	14.5	17.9	15.2	18.0	22.3	14.0	20.8	18.2	13.7	12.7
	한자녀	31.1	30.5	26.4	29.8	34.6	30.3	35.5	29.8	38.8	31.1	34.5
	두자녀	48.0	46.0	50.1	49.1	42.4	43.2	43.8	41.4	39.3	49.9	43.7
	다자녀	7.6	9.0	5.7	6.0	5.1	4.2	6.7	7.9	3.7	5.2	9.1
5분위 (=100)	무자녀	14.3	20.7	20.0	18.5	21.4	19.0	22.4	17.7	24.8	25.3	24.1
	한자녀	25.7	28.1	29.0	31.9	32.9	33.1	31.5	38.1	32.7	33.0	36.2
	두자녀	51.7	44.0	42.7	41.5	38.3	40.4	42.7	40.6	38.4	35.0	35.3
	다자녀	8.3	7.2	8.3	8.0	7.3	7.5	3.5	3.6	4.1	6.8	4.4
전체	무자녀	13.3	16.3	15.2	16.5	17.5	17.4	16.3	19.3	19.9	19.2	16.1
	한자녀	29.1	29.0	29.7	31.1	33.7	34.3	36.4	32.7	36.9	33.7	35.5
	두자녀	50.4	47.4	47.6	45.3	43.1	42.4	42.2	42.7	39.2	41.3	41.8
	다자녀	7.2	7.3	7.4	7.1	5.7	6.0	5.2	5.3	4.0	5.7	6.6

<부표 7> 소득5분위-자녀수별 비율(25~34세) (계속)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위 (=100)	무자녀	13.8	27.4	17.2	0.0	36.9	71.0	30.7	32.1	25.6	31.8
	한자녀	29.7	15.8	30.7	47.6	40.9	29.0	13.2	24.1	28.7	20.2
	두자녀	50.0	53.2	47.7	39.1	22.2	0.0	56.1	41.9	45.7	46.5
	다자녀	6.5	3.6	4.4	13.2	0.0	0.0	0.0	1.9	0.0	1.6
2분위 (=100)	무자녀	15.5	21.7	29.6	44.8	15.7	28.3	23.0	42.3	40.6	36.0
	한자녀	40.1	44.0	43.3	41.1	59.3	51.9	29.4	37.0	20.5	51.2
	두자녀	34.3	30.3	23.4	6.3	21.9	19.8	43.3	19.8	34.5	12.8
	다자녀	10.2	4.0	3.7	7.9	3.1	0.0	4.3	0.9	4.4	0.0
3분위 (=100)	무자녀	12.7	21.4	15.2	15.1	11.0	21.0	28.5	32.1	27.2	34.3
	한자녀	40.2	40.9	48.3	56.6	54.8	51.7	50.2	39.4	45.7	41.0
	두자녀	39.2	31.3	34.8	25.2	28.7	22.3	15.2	21.0	23.6	23.4
	다자녀	7.9	6.4	1.6	3.1	5.5	5.0	6.0	7.5	3.5	1.3
4분위 (=100)	무자녀	23.7	17.1	19.8	13.0	21.7	16.1	18.9	21.2	35.5	40.2
	한자녀	32.4	37.1	39.8	43.1	39.1	55.4	31.7	43.4	26.3	43.8
	두자녀	37.5	43.4	33.9	34.6	32.8	25.5	39.1	33.5	31.2	15.0
	다자녀	6.4	2.4	6.5	9.3	6.4	3.1	10.3	1.8	7.0	1.0
5분위 (=100)	무자녀	21.4	24.6	32.1	22.0	22.0	30.6	26.8	27.2	27.8	40.0
	한자녀	32.9	34.9	40.3	51.5	53.8	41.2	38.2	34.1	46.3	34.2
	두자녀	34.8	32.2	19.1	18.2	21.6	27.7	33.0	33.2	21.1	21.5
	다자녀	10.8	8.2	8.5	8.3	2.6	0.5	2.0	5.6	4.8	4.3
전체	무자녀	18.7	21.1	22.5	18.4	18.8	23.8	24.5	28.5	31.6	37.7
	한자녀	35.5	37.7	42.6	49.3	49.6	49.0	36.7	38.3	36.6	39.5
	두자녀	37.2	36.0	29.8	25.0	27.1	24.5	33.0	28.9	26.7	20.8
	다자녀	8.5	5.2	5.1	7.3	4.6	2.7	5.8	4.4	5.1	2.0

<부표 8> 소득5분위-자녀수별 비율(35~44세)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분위 (=100)	무자녀	18.9	10.1	10.3	21.5	15.8	17.0	12.5	10.3	10.2	9.4	27.9
	한자녀	25.2	26.7	29.0	27.5	28.2	13.7	20.6	22.4	26.6	28.2	29.8
	두자녀	47.8	56.9	51.0	46.0	52.8	51.7	44.9	57.6	52.6	53.4	42.3
	다자녀	8.1	6.3	9.7	5.0	3.2	17.7	22.0	9.8	10.6	8.9	0.0
2분위 (=100)	무자녀	10.0	8.6	8.6	7.1	12.2	6.6	6.3	4.6	8.3	10.3	8.9
	한자녀	20.3	19.9	21.3	32.8	26.2	24.7	20.5	23.9	23.2	23.7	22.1
	두자녀	58.1	59.1	57.5	49.0	49.6	60.7	58.0	56.7	52.7	52.6	51.1
	다자녀	11.6	12.4	12.6	11.1	11.9	7.9	15.3	14.9	15.7	13.4	17.9
3분위 (=100)	무자녀	4.7	5.4	5.7	6.2	8.1	5.2	5.0	5.0	5.1	4.9	4.8
	한자녀	19.3	18.8	21.5	21.7	20.8	18.5	18.9	18.1	17.5	20.8	20.5
	두자녀	64.8	63.6	61.5	59.6	58.5	61.8	64.5	63.6	63.5	61.6	65.0
	다자녀	11.3	12.3	11.3	12.4	12.6	14.5	11.6	13.2	13.9	12.7	9.8
4분위 (=100)	무자녀	2.0	4.9	4.2	4.6	4.8	4.6	3.2	3.3	3.2	2.8	2.1
	한자녀	15.1	17.3	15.7	14.6	18.3	13.6	17.6	13.5	16.8	18.1	21.7
	두자녀	72.1	65.9	66.7	67.6	66.2	69.3	65.2	67.7	67.6	66.5	63.1
	다자녀	10.8	11.8	13.3	13.3	10.7	12.5	13.9	15.5	12.4	12.6	13.2
5분위 (=100)	무자녀	3.4	2.3	3.0	3.4	2.8	3.3	3.9	2.2	1.9	3.3	2.0
	한자녀	11.9	14.6	16.9	15.7	19.3	19.4	14.1	17.3	16.8	20.8	21.3
	두자녀	67.7	69.5	65.5	68.2	65.1	66.6	71.3	67.8	67.4	64.1	64.0
	다자녀	16.9	13.7	14.6	12.7	12.8	10.7	10.6	12.7	13.9	11.9	12.7
전체	무자녀	6.0	5.5	5.6	5.7	6.4	5.0	4.5	3.7	4.1	4.4	3.9
	한자녀	17.2	18.4	19.6	19.5	20.6	17.9	17.3	17.2	18.0	20.5	21.5
	두자녀	64.5	64.2	62.1	62.6	61.4	65.1	65.4	65.2	64.4	62.8	62.2
	다자녀	12.3	11.9	12.7	12.3	11.6	11.9	12.8	13.8	13.6	12.4	12.4

<부표 8> 소득5분위-자녀수별 비율(35~44세) (계속)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위 (=100)	무자녀	9.8	21.7	18.7	2.9	16.4	4.0	34.9	15.0	7.1	16.3
	한자녀	21.8	29.1	19.9	3.4	15.5	14.5	20.2	36.5	36.2	30.9
	두자녀	60.8	39.6	57.1	83.7	42.5	67.6	32.4	41.2	21.1	33.5
	다자녀	7.6	9.6	4.2	10.0	25.6	13.9	12.5	7.3	35.6	19.3
2분위 (=100)	무자녀	13.3	10.4	16.2	18.4	10.7	15.4	15.6	17.8	14.4	17.0
	한자녀	23.6	23.7	21.6	22.7	28.3	13.1	27.9	26.5	36.9	38.5
	두자녀	51.1	51.1	52.8	37.1	49.4	52.2	41.4	50.5	41.8	35.4
	다자녀	12.0	14.7	9.4	21.8	11.6	19.3	15.2	5.2	6.8	9.0
3분위 (=100)	무자녀	5.9	6.0	6.6	7.5	7.3	15.4	10.7	8.0	11.6	17.8
	한자녀	23.8	21.5	24.4	25.7	29.4	18.6	36.6	33.2	33.3	31.6
	두자녀	57.3	59.4	51.5	52.8	51.6	55.8	40.4	48.9	50.6	41.7
	다자녀	13.0	13.1	17.5	14.0	11.8	10.2	12.3	9.9	4.5	8.9
4분위 (=100)	무자녀	2.9	4.2	4.4	6.0	6.5	4.0	5.8	4.8	7.1	6.8
	한자녀	19.7	21.1	22.6	24.8	24.8	26.5	30.3	39.0	26.3	26.4
	두자녀	63.4	63.3	60.7	59.6	56.2	56.7	51.0	44.7	55.0	59.7
	다자녀	14.1	11.3	12.3	9.5	12.6	12.8	12.9	11.5	11.7	7.1
5분위 (=100)	무자녀	4.5	3.9	3.0	5.0	4.2	9.2	5.0	7.0	4.6	6.2
	한자녀	20.2	18.5	18.2	21.0	21.0	21.6	27.8	20.0	22.4	25.7
	두자녀	66.0	68.2	67.7	60.0	62.3	59.8	58.5	60.3	62.7	60.8
	다자녀	9.4	9.4	11.1	13.9	12.5	9.4	8.7	12.7	10.3	7.3
전체	무자녀	5.2	5.4	5.4	6.7	6.3	8.9	7.4	7.7	7.5	9.7
	한자녀	21.2	20.7	21.3	23.1	24.5	21.8	30.2	30.0	27.1	28.1
	두자녀	61.6	62.5	60.5	57.4	56.7	57.7	51.0	51.4	55.5	54.3
	다자녀	12.0	11.4	12.8	12.7	12.5	11.6	11.3	10.9	9.8	7.9

<부표 9> 소득5분위-맞벌이 여부별 자녀 수(25~44세)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맞 벌이	맞벌 이										
2003	1.73	1.68	1.61	1.24	1.62	1.61	1.68	1.75	1.81	1.70	1.94	1.74
2004	1.71	1.67	1.55	1.41	1.54	1.77	1.72	1.70	1.81	1.65	1.91	1.67
2005	1.73	1.66	1.63	1.55	1.68	1.66	1.65	1.68	1.78	1.67	1.92	1.64
2006	1.70	1.66	1.40	1.49	1.58	1.53	1.65	1.64	1.80	1.69	1.86	1.68
2007	1.66	1.63	1.38	1.43	1.57	1.55	1.61	1.69	1.74	1.58	1.78	1.67
2008	1.70	1.70	1.70	1.66	1.57	1.70	1.69	1.74	1.72	1.68	1.78	1.69
2009	1.72	1.68	1.58	1.73	1.58	1.77	1.66	1.76	1.83	1.68	1.78	1.62
2010	1.72	1.69	1.45	1.56	1.51	1.72	1.67	1.80	1.84	1.68	1.87	1.65
2011	1.70	1.66	1.45	1.70	1.51	1.71	1.66	1.73	1.77	1.60	1.85	1.66
2012	1.72	1.64	1.62	1.42	1.41	1.78	1.65	1.69	1.85	1.68	1.88	1.57
2013	1.76	1.64	1.13	1.09	1.70	1.70	1.72	1.60	1.80	1.74	1.92	1.59
2014	1.75	1.59	1.65	1.34	1.63	1.36	1.65	1.66	1.83	1.59	1.86	1.60
2015	1.69	1.60	1.32	1.61	1.51	1.54	1.61	1.63	1.80	1.56	1.79	1.62
2016	1.63	1.65	1.42	1.59	1.29	1.63	1.62	1.62	1.67	1.68	1.86	1.64
2017	1.65	1.65	1.86	1.94	1.38	1.44	1.61	1.55	1.68	1.66	1.77	1.67
2018	1.65	1.60	1.82	0.50	1.46	1.54	1.58	1.56	1.70	1.56	1.75	1.65
2019	1.58	1.48	1.53	2.61	1.51	1.94	1.46	1.34	1.69	1.56	1.69	1.45
2020	1.57	1.53	1.09	2.41	1.43	1.58	1.42	1.25	1.73	1.56	1.66	1.56
2021	1.56	1.45	1.39	1.16	1.25	1.21	1.50	1.26	1.59	1.42	1.87	1.56
2022	1.56	1.46	1.59	2.23	1.25	1.31	1.41	1.17	1.77	1.35	1.71	1.59
2023	1.46	1.36	1.35	1.42	1.21	1.25	1.31	1.12	1.56	1.35	1.75	1.43

<부표 10> 소득5분위-맞벌이 여부별 자녀 수(25~34세)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맞 벌이	맞벌 이										
2003	1.59	1.41	1.64	1.17	1.49	1.52	1.55	1.52	1.59	1.38	1.79	1.36
2004	1.51	1.37	1.39	1.20	1.41	1.69	1.51	1.56	1.63	1.31	1.67	1.18
2005	1.56	1.31	1.61	1.67	1.58	1.44	1.50	1.37	1.54	1.30	1.68	1.21
2006	1.55	1.22	1.46	1.78	1.52	1.15	1.50	1.23	1.61	1.18	1.64	1.22
2007	1.50	1.21	1.30	1.13	1.48	1.47	1.46	1.36	1.56	1.10	1.56	1.19
2008	1.51	1.15	1.58	0.95	1.40	1.35	1.54	1.20	1.49	0.97	1.64	1.24
2009	1.47	1.20	1.24	2.00	1.31	0.97	1.45	1.52	1.61	1.21	1.53	1.13
2010	1.46	1.16	1.10	1.20	1.21	1.13	1.49	1.38	1.61	1.04	1.56	1.15
2011	1.37	1.14	1.33	0.62	1.20	1.01	1.37	1.34	1.42	1.14	1.49	1.07
2012	1.43	1.20	1.34	1.10	1.19	1.08	1.40	1.28	1.59	1.31	1.51	1.08
2013	1.56	1.13	1.10	1.00	1.51	1.35	1.55	1.18	1.63	1.30	1.71	0.98
2014	1.52	1.17	1.66	0.98	1.36	1.53	1.39	1.50	1.56	0.99	1.82	1.12
2015	1.39	1.09	1.34	1.00	1.14	1.26	1.25	1.16	1.57	0.99	1.54	1.11
2016	1.34	0.95	1.38	1.52	1.01	1.06	1.28	1.10	1.57	0.92	1.58	0.90
2017	1.36	1.03	1.61	1.82	0.80	0.69	1.33	0.88	1.46	1.29	1.55	0.98
2018	1.29	1.05	1.12	0.00	1.10	1.19	1.33	1.23	1.38	1.01	1.12	1.03
2019	1.14	1.00	0.29	0.00	0.91	1.00	1.17	1.10	1.20	1.08	1.22	0.93
2020	1.37	1.00	1.25	0.00	1.43	0.61	1.20	0.55	1.60	1.23	1.31	1.01
2021	1.30	0.88	1.28	0.00	1.00	0.25	1.27	0.60	1.31	0.98	1.67	1.02
2022	1.34	0.80	1.20	0.00	1.11	0.69	1.25	0.39	1.61	0.84	1.48	0.88
2023	1.10	0.65	1.11	2.25	0.86	0.53	0.98	0.82	1.01	0.59	1.67	0.61

<부표 11> 소득5분위-맞벌이 여부별 자녀 수(35~44세)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맞 벌이	맞벌 이										
2003	1.89	1.82	1.57	1.27	1.79	1.65	1.85	1.86	2.04	1.86	2.04	1.97
2004	1.90	1.81	1.67	1.46	1.75	1.80	2.00	1.76	1.93	1.80	2.05	1.93
2005	1.87	1.80	1.65	1.51	1.78	1.72	1.82	1.79	1.98	1.85	2.03	1.87
2006	1.83	1.84	1.34	1.40	1.63	1.68	1.80	1.82	1.97	1.88	1.96	1.88
2007	1.77	1.81	1.43	1.48	1.65	1.58	1.75	1.80	1.87	1.82	1.87	1.90
2008	1.82	1.89	1.74	1.70	1.70	1.75	1.84	1.89	1.89	1.95	1.84	1.87
2009	1.89	1.86	1.81	1.73	1.78	1.94	1.88	1.82	1.97	1.86	1.89	1.89
2010	1.90	1.90	1.68	1.60	1.78	1.88	1.82	1.94	2.00	1.92	1.99	1.87
2011	1.89	1.87	1.55	1.96	1.72	1.86	1.86	1.87	1.97	1.82	1.98	1.91
2012	1.88	1.80	1.73	1.50	1.58	2.01	1.85	1.81	1.99	1.81	1.98	1.76
2013	1.87	1.82	1.16	1.09	1.83	1.80	1.86	1.75	1.87	1.89	1.98	1.83
2014	1.87	1.76	1.64	1.84	1.82	1.31	1.82	1.73	1.94	1.86	1.87	1.77
2015	1.83	1.78	1.31	1.71	1.74	1.65	1.81	1.79	1.91	1.75	1.87	1.82
2016	1.77	1.85	1.46	2.00	1.51	1.68	1.84	1.77	1.71	1.92	1.91	1.85
2017	1.75	1.81	2.01	2.00	1.58	1.80	1.72	1.80	1.75	1.73	1.81	1.88
2018	1.78	1.75	2.15	0.71	1.62	1.67	1.70	1.65	1.80	1.71	1.88	1.83
2019	1.82	1.66	1.84	2.61	1.71	1.96	1.68	1.49	1.97	1.67	1.87	1.66
2020	1.64	1.71	0.71	2.41	1.43	2.08	1.52	1.62	1.77	1.68	1.75	1.71
2021	1.66	1.67	1.44	1.32	1.37	1.62	1.60	1.62	1.70	1.57	1.94	1.76
2022	1.66	1.70	1.70	2.23	1.35	1.63	1.50	1.44	1.81	1.62	1.78	1.81
2023	1.63	1.60	1.63	0.48	1.36	1.59	1.48	1.32	1.80	1.60	1.78	1.67

<부표 12> 소득5분위-맞벌이 여부별 자녀 수(40~44세)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비맞 벌이	맞벌 이										
2003	1.94	1.96	1.70	1.29	1.89	1.66	1.74	2.05	2.13	1.97	2.11	2.17
2004	1.98	1.94	1.87	1.81	1.75	2.04	2.07	1.84	2.04	1.92	2.08	2.03
2005	1.90	1.98	1.78	1.86	1.74	1.91	1.75	1.89	2.07	2.00	2.07	2.09
2006	1.95	2.01	1.54	1.77	1.73	1.78	1.95	1.97	2.12	2.04	2.09	2.08
2007	1.90	1.99	1.77	1.77	1.93	1.86	1.86	1.89	1.95	2.00	1.90	2.11
2008	1.92	2.08	1.74	1.88	1.91	1.95	1.96	2.06	1.92	2.19	1.93	2.06
2009	2.01	2.03	1.50	2.48	2.01	2.19	2.08	1.95	2.02	1.96	2.04	2.06
2010	1.97	2.06	1.75	2.22	1.60	1.93	2.06	2.24	2.01	2.11	2.14	1.93
2011	2.03	2.03	1.64	2.52	1.89	1.90	1.96	2.01	2.20	1.99	2.11	2.11
2012	2.00	2.01	2.15	2.25	1.51	2.36	1.93	1.96	2.18	1.98	2.08	1.96
2013	1.89	2.00	1.00	2.00	1.74	2.23	1.97	1.92	1.93	2.03	1.98	1.98
2014	1.94	1.93	2.16	0.00	1.92	1.79	1.80	1.97	1.94	1.94	2.01	1.92
2015	2.00	1.93	0.65	1.64	2.04	2.07	2.14	2.01	2.11	1.91	1.94	1.88
2016	1.87	2.00	2.25	.	1.71	1.68	1.70	1.94	1.90	2.03	1.99	2.04
2017	1.84	1.77	2.47	.	1.80	1.80	2.13	1.96	1.71	1.59	1.71	1.93
2018	1.79	1.90	2.00	0.00	1.64	2.44	1.63	2.01	1.91	1.63	1.77	1.94
2019	1.92	1.77	1.72	2.61	1.61	1.95	1.82	1.75	2.16	1.74	1.89	1.76
2020	1.81	1.77	1.13	2.00	1.56	1.79	1.59	1.55	2.03	1.81	1.82	1.79
2021	1.77	1.80	1.13	1.26	1.43	1.48	1.87	1.50	1.79	1.78	2.00	1.97
2022	1.79	1.89	1.91	2.54	1.44	1.71	1.62	1.78	1.97	1.94	1.86	1.89
2023	1.80	1.78	1.90	0.48	1.80	1.57	1.66	1.57	1.81	1.74	1.96	1.87

<부표 13> 소득5분위-여성 취업 여부별 자녀 수(25~44세)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취업	비 취업										
2003	1.67	1.74	1.31	1.62	1.56	1.65	1.74	1.69	1.70	1.81	1.74	1.94
2004	1.66	1.72	1.39	1.58	1.72	1.56	1.71	1.72	1.65	1.81	1.67	1.91
2005	1.65	1.74	1.58	1.63	1.64	1.69	1.67	1.65	1.67	1.79	1.65	1.92
2006	1.65	1.71	1.52	1.36	1.55	1.57	1.63	1.66	1.70	1.80	1.68	1.87
2007	1.62	1.68	1.19	1.50	1.57	1.56	1.68	1.62	1.58	1.75	1.66	1.78
2008	1.69	1.71	1.76	1.67	1.64	1.59	1.72	1.70	1.67	1.73	1.69	1.79
2009	1.67	1.73	1.65	1.60	1.65	1.62	1.74	1.67	1.68	1.83	1.62	1.78
2010	1.69	1.73	1.43	1.47	1.66	1.52	1.79	1.66	1.68	1.84	1.65	1.87
2011	1.66	1.70	1.76	1.40	1.67	1.52	1.72	1.66	1.60	1.77	1.67	1.85
2012	1.65	1.72	1.52	1.59	1.67	1.41	1.70	1.65	1.69	1.84	1.57	1.88
2013	1.63	1.77	0.95	1.22	1.74	1.68	1.59	1.73	1.73	1.81	1.59	1.92
2014	1.58	1.76	1.32	1.72	1.24	1.71	1.65	1.66	1.59	1.83	1.60	1.86
2015	1.59	1.70	1.44	1.32	1.51	1.53	1.62	1.62	1.56	1.80	1.61	1.80
2016	1.64	1.64	1.72	1.33	1.50	1.29	1.62	1.62	1.68	1.67	1.64	1.86
2017	1.64	1.66	2.08	1.71	1.33	1.41	1.55	1.60	1.66	1.68	1.67	1.78
2018	1.60	1.64	1.12	1.86	1.53	1.46	1.58	1.57	1.56	1.70	1.65	1.75
2019	1.46	1.61	2.43	1.51	1.78	1.53	1.28	1.51	1.55	1.70	1.45	1.71
2020	1.52	1.57	1.75	1.09	1.48	1.45	1.30	1.40	1.56	1.73	1.56	1.67
2021	1.45	1.57	1.17	1.49	1.18	1.27	1.30	1.49	1.43	1.59	1.56	1.87
2022	1.45	1.58	2.04	1.58	1.26	1.27	1.14	1.44	1.38	1.75	1.59	1.71
2023	1.34	1.48	1.63	1.25	1.13	1.27	1.09	1.34	1.35	1.57	1.43	1.77

<부표 14> 소득5분위-여성 취업 여부별 자녀 수(25~34세)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취업	비 취업										
2003	1.39	1.60	1.25	1.66	1.39	1.53	1.50	1.56	1.38	1.59	1.36	1.79
2004	1.35	1.53	1.11	1.43	1.58	1.43	1.55	1.52	1.31	1.64	1.18	1.67
2005	1.32	1.57	1.74	1.58	1.46	1.58	1.35	1.51	1.27	1.57	1.21	1.68
2006	1.21	1.57	1.82	1.42	1.19	1.54	1.19	1.52	1.18	1.62	1.21	1.67
2007	1.23	1.50	1.16	1.31	1.52	1.46	1.39	1.45	1.11	1.56	1.19	1.56
2008	1.16	1.51	0.95	1.58	1.27	1.42	1.25	1.53	0.98	1.49	1.24	1.64
2009	1.19	1.49	0.49	1.36	0.94	1.35	1.50	1.45	1.21	1.61	1.13	1.54
2010	1.16	1.47	0.96	1.15	1.05	1.23	1.39	1.49	1.05	1.62	1.15	1.56
2011	1.15	1.37	0.92	1.32	1.10	1.18	1.35	1.36	1.14	1.43	1.07	1.49
2012	1.19	1.44	1.24	1.31	1.03	1.20	1.28	1.41	1.31	1.59	1.07	1.54
2013	1.13	1.58	0.77	1.21	1.43	1.50	1.18	1.56	1.30	1.64	0.98	1.71
2014	1.16	1.54	1.19	1.67	1.17	1.47	1.48	1.39	1.01	1.55	1.12	1.83
2015	1.07	1.41	0.42	1.42	1.14	1.18	1.09	1.28	0.99	1.57	1.10	1.56
2016	0.95	1.36	1.56	1.35	0.84	1.05	1.09	1.28	0.92	1.57	0.90	1.58
2017	1.03	1.38	1.90	1.47	0.63	0.87	0.88	1.33	1.29	1.46	0.98	1.55
2018	1.04	1.30	0.39	1.56	1.23	1.08	1.21	1.34	1.01	1.38	1.03	1.12
2019	0.97	1.18	0.29	0.00	0.34	0.94	1.01	1.24	1.05	1.23	0.93	1.24
2020	1.00	1.40	1.08	1.29	0.90	1.47	0.57	1.22	1.23	1.60	1.01	1.34
2021	0.91	1.30	0.60	1.63	0.24	1.06	0.83	1.19	0.98	1.31	1.02	1.67
2022	0.84	1.34	0.00	1.42	0.51	1.29	0.41	1.26	0.98	1.40	0.88	1.48
2023	0.68	1.13	1.81	0.93	0.47	1.00	0.80	1.02	0.59	1.01	0.63	1.75

<부표 15> 소득5분위-여성 취업 여부별 자녀 수(35~44세)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취업	비 취업										
2003	1.81	1.90	1.34	1.56	1.64	1.81	1.86	1.86	1.86	2.04	1.97	2.04
2004	1.80	1.92	1.47	1.70	1.77	1.78	1.77	2.00	1.80	1.94	1.93	2.05
2005	1.79	1.89	1.53	1.67	1.70	1.80	1.79	1.83	1.85	1.98	1.87	2.03
2006	1.83	1.84	1.43	1.29	1.69	1.61	1.81	1.81	1.90	1.96	1.88	1.96
2007	1.78	1.81	1.20	1.61	1.59	1.65	1.77	1.78	1.80	1.89	1.89	1.88
2008	1.87	1.84	1.80	1.71	1.71	1.73	1.86	1.86	1.93	1.92	1.87	1.84
2009	1.85	1.91	1.78	1.78	1.84	1.83	1.80	1.91	1.87	1.96	1.88	1.89
2010	1.89	1.91	1.63	1.68	1.82	1.82	1.93	1.83	1.93	1.99	1.86	2.00
2011	1.86	1.90	1.94	1.48	1.78	1.76	1.86	1.87	1.82	1.97	1.91	1.98
2012	1.80	1.89	1.57	1.73	1.85	1.60	1.84	1.83	1.82	1.99	1.76	1.98
2013	1.81	1.88	1.03	1.23	1.82	1.82	1.75	1.86	1.88	1.88	1.83	1.99
2014	1.75	1.88	1.43	1.75	1.26	1.89	1.73	1.83	1.86	1.94	1.77	1.87
2015	1.77	1.84	1.59	1.21	1.65	1.75	1.80	1.80	1.75	1.91	1.82	1.87
2016	1.85	1.77	1.83	1.30	1.68	1.48	1.78	1.84	1.93	1.71	1.85	1.91
2017	1.81	1.75	2.16	1.86	1.73	1.58	1.80	1.72	1.73	1.75	1.87	1.82
2018	1.76	1.77	1.56	1.96	1.64	1.63	1.68	1.68	1.71	1.80	1.84	1.88
2019	1.66	1.82	2.43	1.83	1.88	1.72	1.47	1.69	1.68	1.96	1.66	1.87
2020	1.71	1.64	2.41	0.71	1.85	1.44	1.67	1.49	1.68	1.77	1.71	1.75
2021	1.66	1.67	1.35	1.45	1.56	1.38	1.59	1.62	1.57	1.70	1.76	1.94
2022	1.69	1.67	2.20	1.62	1.79	1.25	1.37	1.55	1.60	1.84	1.81	1.78
2023	1.59	1.64	1.41	1.61	1.50	1.38	1.31	1.49	1.59	1.82	1.67	1.78

<부표 16> 소득5분위-여성 취업 여부별 자녀 수(40~44세)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취업	비 취업										
2003	1.95	1.95	1.42	1.68	1.67	1.91	2.04	1.74	1.97	2.13	2.17	2.11
2004	1.94	1.98	1.84	1.85	1.97	1.81	1.87	2.04	1.92	2.03	2.03	2.08
2005	1.98	1.90	1.85	1.77	1.90	1.73	1.89	1.74	2.01	2.06	2.10	2.05
2006	2.00	1.94	1.72	1.47	1.82	1.63	1.98	1.94	2.07	2.08	2.08	2.09
2007	1.98	1.90	1.82	1.72	1.89	1.91	1.87	1.88	1.99	1.96	2.11	1.90
2008	2.07	1.93	1.70	1.81	1.96	1.89	2.04	1.97	2.18	1.92	2.04	1.95
2009	2.03	2.02	2.37	1.25	2.12	2.05	1.97	2.06	1.97	2.01	2.05	2.06
2010	2.04	2.00	2.07	1.74	1.85	1.61	2.21	2.10	2.11	2.00	1.92	2.15
2011	2.02	2.05	2.27	1.44	1.84	1.99	2.01	1.97	1.99	2.20	2.11	2.11
2012	1.98	2.03	2.08	2.37	2.01	1.56	1.96	1.93	1.98	2.18	1.96	2.09
2013	1.99	1.90	1.72	1.00	2.12	1.77	1.90	1.99	2.03	1.92	1.98	1.98
2014	1.93	1.94	2.00	2.16	1.71	2.00	1.97	1.79	1.94	1.94	1.92	2.01
2015	1.91	2.04	0.64	1.28	2.05	2.05	2.01	2.15	1.91	2.12	1.87	1.95
2016	2.00	1.87	1.00	2.61	1.76	1.55	1.94	1.70	2.03	1.89	2.04	1.99
2017	1.78	1.83	3.00	2.00	1.80	1.80	1.96	2.14	1.59	1.71	1.89	1.75
2018	1.90	1.80	0.96	.	2.24	1.55	2.01	1.61	1.60	1.94	1.94	1.77
2019	1.76	1.94	2.43	1.70	1.84	1.64	1.73	1.85	1.75	2.16	1.76	1.89
2020	1.77	1.81	2.00	1.13	1.92	1.52	1.54	1.59	1.81	2.03	1.79	1.82
2021	1.78	1.80	1.30	0.93	1.49	1.42	1.47	1.94	1.78	1.78	1.97	2.00
2022	1.87	1.81	2.39	1.86	1.92	1.27	1.70	1.67	1.88	2.04	1.89	1.85
2023	1.77	1.81	1.55	1.86	1.57	1.82	1.56	1.67	1.72	1.84	1.87	1.96

<부표 17> 소득5분위-거주 지역별 표본수(25~44세)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2003	3667	767	382	98	706	173	834	168	912	170	833	158
2004	3275	678	332	89	609	153	764	154	801	146	769	136
2005	3221	671	334	77	588	145	744	160	782	148	773	141
2006	3023	634	147	46	434	102	726	183	823	174	893	129
2007	2373	483	101	28	314	78	564	121	688	144	706	112
2008	2244	489	67	21	294	79	508	118	682	142	693	129
2009	2251	497	66	18	287	58	524	149	669	151	705	121
2010	2250	518	71	26	289	57	555	154	703	165	632	116
2011	2153	500	76	20	264	71	568	147	630	147	615	115
2012	2038	462	51	21	236	76	554	136	607	131	590	98
2013	1913	444	50	15	204	66	512	122	581	143	566	98
2014	1751	402	40	14	180	48	466	100	548	122	517	118
2015	1566	370	33	11	172	47	402	92	489	121	470	99
2016	1418	309	26	5	136	40	346	80	461	94	449	90
2017	776	182	17	6	62	13	166	42	273	71	258	50
2018	1104	169	19	5	92	18	242	43	371	57	380	46
2019	624	110	16	3	39	8	139	29	218	36	212	34
2020	886	150	21	3	82	12	181	31	283	64	319	40
2021	881	151	28	3	80	15	214	29	265	50	294	54
2022	928	133	15	3	84	10	211	23	291	43	327	54
2023	937	138	29	2	80	13	184	31	296	45	348	47

Abstract

A Study on the Childbirth Gap according to Economic and Social Factors

Hansoo Woo, Sujin Shim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the birth gap according to economic and social factors using the household trend survey time series ('03' to 23 years).

The main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married women aged 25 to 44 and the average number of unmarried children have been on a sharp decline since 2015.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number of unmarried children by income quintile, the upper class in the 4th to 5th quintiles of income had an average number of unmarried children than the lower 1st to 3rd quintiles, and this trend was consistent. Thir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2023), male income showed a positive (+) correlation with the number of unmarried children, but female income showed a negative (-) correlation. Homeownership had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number of unmarried children by 1.65 times compared to the case of non-ownership. As the age of women increased, the number of children increased. According to the study,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hildbirth and women's income is the establishment of a parental leave-related system that can help women give birth and the continuation of career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give birth in Korea. It can be said that it suggests that it remains a limitation.

Social and policy efforts will be needed for thi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give birth in relation to homeownership. It was confirmed that a stable living environment was necessary. Securing stable and sufficient living space in the early stages of marriag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helping to give birth to children, so the government needs to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this.

Key words : Spouse households, income, number of unmarried children, housing

연구진

- 우한수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 연구진의 소속 및 직급은 연구과제 완료 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2023-17

경제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인 쇄 2024년 4월
발 행 2024년 4월
발 행 인 박상영
발 행 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2733-4120



